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7권 (제61회 ~ 제7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61회 — 저팔계가 힘을 보태다	5
제62회 — 때를 씻고 마음을 닦아 탑을 끌어내고, 마귀를 묶어 주인에 게 돌아가게 함이 곧 몸을 닦는 것이다	32
제63회 — 두 스님이 괴물을 물리쳐 용궁을 소란케 하고, 여러 성현이 사악함을 제거하여 보물을 얻다	56
제64회 — 형극령에서 능력을 깨달아 힘써 노력하고, 목선암에서 삼장 이 시를 논하다	81
제65회 — 요사스러운 무리가 가짜 소뇌음을 세우고, 네 명의 제자가 모두 큰 재난을 당하다	108
제66회 — 제신이 독수를 당하고, 미륵이 요마를 결박하다	131
제67회 — 타라선의 고통에서 구제되어 성품이 안정을 찾고, 더러움에 서 벗어나 도심이 맑아지다	154
제68회 — 주자국에서 당승이 전생을 논하고, 손행자가 세 번의 꺾인 팔로 신통력을 펼치다	182
제69회 — 마음은 밤사이 약물을 닦고, 임금은 연회석상에서 요사스러 운 것을 논하다	206
제70회 — 요마가 보물에서 연기와 모래, 불을 내뿜고, 손오공이 계책 을 써서 자금령을 흠치다	233

제61회 — 저팔계가 힘을 보태다

豬八戒助力{{另}}

마왕 손오공이 파초선을 세 번 부쳐 다스리다 우마왕이 싸움을 멈추고 잔치에 들다 손오공이 파초선을 두 번 부쳐 다스리다

때를 씻고 마음을 닦아 탑을 청소하듯 하고 마왕을 묶어 주인에게 돌려보내 몸을 닦는다

한편, 우마왕이 손오공을 뒤쫓아가 보니, 손오공은 어깨에 파초선을 짊어진 채 아주 유유자적하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마왕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저 원숭이 녀석이 부채를 사용하는 법까지 알아내다니! 내가 직접 가서 달라고 하면 분명히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나에게 부채질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십만 팔천 리 밖으로 날아가 버려 내 뜻대로 할 수 없게 될 터. 마침 당승이 큰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예전에 내가 요괴로 활동할 때 마주친 적이 있지. 그러니 내가 저팔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다시 한번 저들을 속여보자. 손오공은

저 녀석이 부채를 가져온 것을 보고 기뻐서 정신이 팔려 있을 테니, 분명 자세히 살피지는 못할 것이다.'

과연 우마왕은 칠십이변의 신통력을 지녔으며 무예 또한 손오공 못지않았으나, 체격이 조금 더 거칠고 민첩함이 떨어졌다. 그는 보검을 숨기고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한 번 흔들며 순식간에 저팔계와 똑같은 얼굴로 변했다. 우마왕은 길을 가로질러 손오공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사형, 저 왔어요!"

손오공은 정말 기뻐했다. 옛말에 '싸움에서 이긴 고양이는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다'고 하더니,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상대방의 속셈을 살피지 못했다. 상대가 저팔계의 모습인 것을 보고는 손오공이 외쳤다.

"이보게 형씨, 어디 가는 길인가?"

우마왕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자네가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태산이시네. 우마왕의 수단이 워낙 대단해서 자네가 그를 당해내지 못할까 봐, 그 보물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자네를 맞이하러 왔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애쓸 것 없네. 이미 손에 넣었으니까."

우마왕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얻었는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늙은 소놈과 백 합 넘게 싸웠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더군. 그래서 그놈은 나를 내팽개치고 난석산 벽파담 밑으로 가서 교룡과 용의 정령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버렸지 뭐야. 내가 몰래 뒤를 쫓아가서 계로 변신한 뒤, 그놈이 타고 다니던 벽수금정수(물을 가르는 신령한 짐승)를 훔쳤네. 그러고는 우마왕의 모습으로 변해서 파초동으로 쳐들어 가 나찰녀를 속였지. 그 여자가 나랑 부부 사이가 된 건 내가 잔머리를 굴려 꾸며낸 일이라네."

우마왕이 말했다.

"과연 대단하구먼! 형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으니, 그 부채는 내가 가져가겠네."

손대성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도 못했고,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부채를 건네주었다.

알고 보니 우마왕은 그 부채를 다루는 근본적인 법술을 알고 있었다. 부채를 건네받은 우마왕이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듯하더니, 부채는 다시 살구 잎사귀처럼 작아지더니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우마왕이 입을 열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 원숭이 녀석!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속으로 스스로를 탓했다. '내 실

수였구나.’ 손오공은 이를 갈며 발을 구르고 크게 외쳤다. “에이! 매년 기러기를 잡으려 애쓰더니, 오늘 도리어 어린 기러기에게 눈을 쪼였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손오공은 천둥이 치듯 포효하며 철봉을 뽑아 들고 머리부터 내리쳤다. 그러자 우마왕이 부채를 휘둘러 손오공에게 한 차례 부채질을 했다. 하지만 손오공이 예전에 매미로 변해 나찰녀의 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입에 물고 있던 정풍단(定風丹, 바람을 멎게 하는 단약)을 자신도 모르게 삼켰던 것을 우마왕은 알지 못했다. 덕분에 손오공은 오장육부가 단단해지고 뼈와 살이 견고해져서, 우마왕이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당황한 우마왕은 보물을 입에 던져 넣고는 양손으로 검을 휘두르며 베어 왔다. 두 괴물이 공중에서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제천대성 손오공과 세상을 어지럽히는 우마왕이 오직 파초선 하나를 두고 서로의 힘을 겨루네. 부주의한 대성은 남을 속였고, 대담한 우마왕은 부채에 속았구나. 한쪽은 금고봉을 휘두르며 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한쪽은 쌍날검을 휘두르며 지략을 부리네. 대성이 위엄을 떨치며 오색 안개를 뿜어내면, 우마왕은 사납게 울부짖으며 광채를 내뿜는다. 용맹을 겨루니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고, 이를 갈며 기세를 높여 맞서 싸우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천지가 어둑하고,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니 귀신조차 숨을 지경이라. 한쪽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하고 외치고, 다른 쪽은 “내 처가 언제 너와 정을 통하기를 허락하더냐!”라며 맞서니, 말투는 거칠고 성격은 불같아 양쪽 다 강렬하구나. “남의 아내와 딸을 속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관가에 고해 죄를 묻겠다!” 영리한 제천대성과 사나운 대력왕이 오직 죽일 생

각뿐이니 상의할 겨를도 없구나. 몽둥이와 검이 맞부딪치며 힘을 겨루니,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리라.

두 사람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싸우는 사이, 한편 당승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첫째로는 화염산의 열기가 사람을 찌는 듯했고, 둘째로는 마음이 초조하고 목이 말랐다. 당승이 화염산 토지신에게 물었다. “존신께 여쭙건대, 저 우마왕의 법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신이 대답했다. “우마왕의神通력이 예사롭지 않고 법력이 끝이 없으니, 바로 손대성의 적수라 할 만합니다.” 당승이 말했다. “오공은 발이 빠른 아이라, 평소에는 이천 리 길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오곤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 저 우마왕과 싸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당승이 제자들을 불렀다. “오능아, 오정아, 너희 둘 중 누가 가서 네 형님을 맞이하겠느냐? 혹시 적을 만나거든 힘을 다해 도와서 부채를 구해 오너라. 그래야 이 번거로운 열기를 식히고 어서 산을 넘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벌써 날이 저물어 가니 어서 가서 모셔오고 싶습니다만, 적뢰산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토지신이 말했다. “소신이 그 길을 잘 압니다. 권렴장군을 스승님 곁에 머물게 할 테니, 제가 저팔계와 함께 가겠습니다.” 당승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존신께서 수고해 주신다면 나중에 꼭 사례하겠습니다.”

한편, 저팔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은 비단 도포를 단정히 여민 뒤, 쇠갈퀴를 움켜쥐고 토지신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곧장 동쪽으로 향했다. 한창 날아가던 중, 갑자기 거센 함성과 함께 광풍이 몰아치는 소리

가 들려왔다. 저팔계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니, 알고 보니 손오공과 우마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토지신이 “천봉(저팔계의 옛 이름), 어서 가서 도와야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자, 저팔계는 쇠갈퀴를 휘두르며 매섭게 소리쳤다. “사형, 제가 갑니다!”

손오공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너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뻔했잖아!”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사형을 맞으러 가라고 하셨는데, 산길을 몰라 한참을 의논하다가 토지신에게 길을 안내받아 오느라 늦은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큰일을 그르친 게 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늦게 온 걸 탓하는 게 아니야. 저 무례한 소놈이 문제라고. 내가 나찰녀에게서 겨우 부채를 얻어냈더니, 이놈이 네 모습으로 변신해서는 나를 맞으러 왔다고 속였단 말이다. 내가 반가운 마음에 그만 부채를 놈의 손에 쥐여주었더니, 바로 본모습을 드러내고 나랑 싸움을 거는 게 아니냐. 그래서 큰일을 그르칠 뻔했다는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쇠갈퀴를 치켜 들고 맞대고 욕을 퍼부었다. “이 염병할 놈아! 감히 네 조상님(이 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우리 사형을 속이고,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 드느냐!”

그러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쇠갈퀴를 휘두르며 우마왕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마왕은 첫째로 손오공과 하루 종일 싸우느라 기력이 다해 지쳤고, 둘째로는 저팔계의 쇠갈퀴가 워낙 사납게 몰아쳐 도저히 막아낼 재간 이 없었기에 패배를 직감하고 도망치려 했다. 이때 화염산의 토지신이 음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대력왕, 그만 멈추시오! 당승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은 모든 신이 보호하고 모든 하늘이 돕는 길이며, 삼계의 신선들과 십방의 신령들이 모두 지키고 있는 길이라오. 어서 파초선을 휘둘러 화염산을 식혀줌으로써 당승이 재난 없이 무사히 산을 넘게 도와주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늘이 그대에게 죄를 물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오."

그러자 우마왕이 대답했다.

"이 토지신이 도통 이치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군! 저 망할 원숭이 놈은 내 아들을 뺏고, 내 첩을 괴롭히고, 내 아내를 속였소. 매번 도리에 어긋나는 짓만 일삼으니, 나는 저놈을 통째로 삼켜버린 뒤에 똥으로 만들어 개에게나 먹여주고 싶을 지경이란 말이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보물을 저놈에게 빌려주겠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팔계가 달려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고약한 놈아! 어서 부채를 내놓지 못할까! 그래야 네 목숨이라도 살려줄 테니!" 그러자 우마왕은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며 보검을 휘둘러 저팔계를 공격했다. 손오공도 금고봉을 치켜들고 가세하니, 그곳은 그야말로 한바탕 치열한 싸움터가 되었다.

시로 이르되, 요괴가 된 돼지와 괴물이 된 소, 하늘의 도를 훔친 원숭이까지 가세했구나. 본래 싸움에 능한 이들이니 반드시 신령한 힘을

합쳐 맞서리라. 날카로운 구치점창은 매섭고 양날의 보검은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구나. 쇠몽둥이는 휘두르고 퍼며 주축이 되고 토지신의 도움으로 정과단을 얻었으니, 세 무리가 서로 다투며 싸우는 모습은 각자 재주를 떨치며 승부를 겨루는 듯하네. 소를 잡아 발을 갈면 재물이 늘어나고 돼지를 불려 화로에 넣으면 나무의 기운이 갈무리되리니, 마음이 탄 데 가 있으면 어찌 도를 닦겠으며 정신을 한곳에 모아야 저 원승이를 묶어둘 수 있으리. 함부로 소리치고 애처롭게 구걸해 보아도 세 가지 병기가 부딪치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 창과 쇠갈퀴는 해칠 마음 뿐이지만 금고봉이 휘둘러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네. 싸움이 너무 격렬하여 별빛조차 빛을 잃고 달빛도 흐려지니, 온 세상에 차가운 안개만 검게 깔리는구나.

우마왕은 용맹을 떨치며 기세를 다투었고,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어느덧 다시 날이 밝았다. 그들 앞에는 우마왕의 거처인 적뢰산 마운동 입구가 있었다. 세 사람이 토지신, 그리고 음병(陰兵, 저승의 군사)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싸우는 소리가 워낙 커서, 그 소란에 놀란 옥면공주가 시녀를 불러 도대체 누가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살펴보게 했다.

문지기 요괴가 달려와 보고했다. “저희 대왕님(우마왕)께서 어제 그 벼락신처럼 주둥이가 튀어나온 사내(손오공)와, 입이 길고 귀가 큰 스님(저팔계), 그리고 화염산 토지신 일행과 한데 엉켜 싸우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옥면공주는 즉시 호위하는 우두머리 요괴들에게 명하여 창과 칼을 들고 지원하러 나가게 했다. 앞뒤로 길고 짧은 무기 백여 자루를 든 요괴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요괴들은 저마다 기세를 뽐

내며 창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외쳤다. “대왕님! 저희가 마님(옥면공주)의 명을 받들어 도우러 왔습니다!” 우마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잘 왔다, 아주 잘 왔어!” 요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마구 베고 찌르기 시작했다. 저팔계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쳐 손쓸 새도 없이 쇠갈퀴를 뒤로 챙겨 든 채 패하여 달아났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날아올라 포위망을 빠져나갔고, 음병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승기를 잡은 우마왕은 요괴들을 불러 모아 동굴로 돌아가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이 아주 용맹하구나. 어제 오후 네 시경부터 나랑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네 놈들이 와서 힘을 보태주다니 다행이구나. 반나절 넘게 이렇게 고되게 싸우는데도 저놈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저 작은 요괴 놈들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날뛰는구나. 저놈이 동굴 문을 꼭 닫고 나오질 않으니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어제 오전 열 시쯤 스승님을 떠나놓고 왜 오후 네 시가 되어서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세 시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희와 헤어진 뒤 순식간에 이 산에 도착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 물어보니 바로 저놈의 애첩인 옥면공주더구나. 내가 철봉으로 한바탕 위협했더니 저 여자가 동굴로 도망쳐 들어가 우마왕을 불러냈어. 그래서 저놈과 한참을 말다툼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한 시간 동안 격렬하게 싸웠지. 그런데 한창 싸우던 중에 누군가 저놈을 잔치에 초대하는 바람에 흐름이 끊겼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따라 난석산 벽파담까지 가서 게로 변신해 소식을 살핀 뒤, 저놈의 벽

수금정수(辟水金睛獸, 물을 가르는 신령한 짐승)를 흠쳤다. 그리고는 우마왕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취운산 파초동으로 돌아갔지. 거기서 나 찰녀를 속여 부채를 얻어냈단 말이야. 밖으로 나와서 부채를 어떻게 쓰나 시험해 보려고 부채를 길게 늘려 보았는데, 다시 줄이는 법을 몰라 찢절매고 있었어. 그렇게 부채를 어깨에 메고 가던 중에, 저놈이 네 얼굴로 변신해 나타나 나를 속여 넘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두세 시간이나 지체된 것이야.”

저팔계가 말했다. "이게 바로 속담에 '바다에서 두부 배가 뒤집힌 격'이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물로 왔다가 나갈 때는 물로 가는 법이죠. 지금 부채를 구하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스승님을 모시고 이 산을 넘겠습니까? 그냥 길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갑시다."

토지신이 말했다. "손오공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팔계도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길을 돌린다는 건 결길로 새는 것인데, 그러면 수행자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옛말에 '행인은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길을 바꾸려 하십니까? 스승님께서는 정로(正路)에서 제자들이 성공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오공이 기세를 높이며 말했다. "웁소, 웁소! 이 어리석은 녀석아, 헛소리 마라. 토지신 말씀이 옳다. 우리는 저놈과 정면으로 맞서 승부를 가리고 수단을 써서 대결할 것이다. 내가 지살변(地煞變, 땅의 기운을 이용한 변신술)을 펼치리라. 서천에 도착할 때까지 맞설 자가 없으리니, 우마왕은 본래 내 마음속 원숭이가 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근원을 바로잡고 반드시 저 파초선을 빌려오리라. 시원한 바람

으로 화염산을 식히고, 이 고난을 타파하여 부처님의 법을 깨닫겠다.
수행을 마치고 극락천에 오르면, 다 함께 용화회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그제야 힘을 내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우마왕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해(亥)시에 태어난 돼지와 흙의 기운을 가진 소가 어찌 맞서겠습니까. 신(申)시에 태어난 원숭이는 금(金)의 기운을 가졌으니 성격이 온화하고 조화롭지요. 파초선을 써서 물의 기운을 내면 화염도 사라지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밤낮으로 고통을 잊고 공덕을 쌓아, 공덕을 다 마친 뒤에는 우란분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두 사람은 토지신과 음병(陰兵, 저승의 병사)들을 이끌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갈고리와 철봉을 휘두르며 쟁강쟁강 소리를 내며 마구 몰아치니, 마운동의 앞문이 산산조각이 났다. 밖을 지키던 머리수들이 겁에 질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손오공이 무리를 이끌고 앞문을 부수며 들어옵니다!"

우마왕은 마침 옥면공주와 그 일을 논하며 손오공을 원망하고 있던 참이었다. 앞문이 부서졌다는 말을 듣자 몹시 분노하여, 급히 갑옷을 입고 철봉을 든 채 밖으로 나와 옥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 원숭이 녀석! 네놈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감히 우리 문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느냐?"

저팔계가 다가가 맞대응하며 욕을 해댔다. "이 가죽만 남은 늙은 놈아! 네놈이 대체 어떤 인물이라고 감히 큰소리냐? 거기 서라, 내 갈고

리를 맛 좀 봐라!" 우마왕이 호통쳤다. "이 먹보 녀석은 왜 안 오고 저 원숭이 놈부터 나타나느냐! 어서 저 원숭이를 불러와라!"

손오공이 말했다. "사태 파악도 못 하는 짐승 같은 놈! 어제는 형제처럼 지냈건만, 오늘은 원수가 되었구나. 내 몽둥이를 똑똑히 받아라!" 우마왕이 용맹하게 맞서 싸웠다. 이번 싸움은 지난번보다 훨씬 치열했다. 세 영웅이 뒤엉켜 싸우는 광경은 실로 대단했다.

갈고리와 철봉이 신통력을 떨치고, 음병들과 함께 싸우며 목숨을 걸었다. 용맹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법력은 온 천지에 가득했다. 갈고리로 찌고 몽둥이로 내리치니, 철봉을 든 영웅의 기세가 기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세 가지 병기가 쟁강거리는 소리를 내며 맞부딪치니, 누가 누구에게 밀릴지 알 수 없었다. 저마다 자기가 으뜸이라 우기며 싸우니 토병들이 증인이 되어 그 싸움을 지켜보았다. 나무와 흙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듯 싸움은 격렬했다.

한쪽이 "어찌 파초선을 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면, 다른 쪽은 "네 놈이 어찌 내 아내를 속였느냐! 내 처자와 자식을 해치려 한 원수를 갚으리라!"라고 맞받아쳤다. 또 한쪽이 "여의봉을 조심해라,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 다른 쪽은 "갈고리를 잘 피하라, 잘못 맞으면 온몸에 구멍이 뚫려 피를 흘릴 것이다!"라고 외쳤다. 우마왕은 기세에 눌리지 않고 철봉을 높이 치켜든 채 기회를 엿보았다. 구름과 비를 부르듯 변화무쌍한 법력을 휘둘렀다. 서로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 악한 마음을 품고도 싸움 자체는 즐거운 듯 보였다. 체면을 버리고 높낮이를 가리지 않으며 앞뒤로 막고 치며 싸우니 결코 손해 볼 것이 없었다. 두 형제는 힘을 합쳤으나 손오공은 홀로 몽둥이를

휘두르며 독보적인 위력을 떨쳤다. 묘시(오전 5~7시)부터 진시(오전 7~9시)가 지나도록 싸움은 계속되었고, 우마왕은 지쳐서 물러났다.

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백여 합을 더 싸웠다. 저팔계가 특유의 어리석은 성미를 부리며 손오공의 신통력을 믿고 갈고리를 마구 휘두르자, 우마왕은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고 패하여 동굴 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토지신과 음병들이 문을 가로막으며 호통쳤다. "대력왕, 어디를 가느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마왕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급히 몸을 돌리려 했다. 그때 저팔계와 손오공이 쫓아오자, 당황한 나머지 갑옷과 철봉을 내팽개치고는 몸을 흔들어 백조로 변신하여 하늘로 날아 도망쳐 버렸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팔계야, 저건 우마왕이야!" 하지만 저팔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멍하니 있었고, 토지신 또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저 적뢰산 앞뒤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우마왕을 찾기에 바빴다.

손오공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하늘을 날아가는 건 무엇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저건 백조 한 마리인데요?" 손오공이 말했다. "저게 바로 우마왕이 변신한 것이다." 그러자 토지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손오공이 명령했다. "너희 둘이 먼저 저 동굴로 쳐들어가서 요괴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놈들의 소굴을 부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길을 끊어놓아라. 그동안 나는 저놈과 변신술 대결을 펼치며 맞서 싸우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팔계와 토지신은 손오공의 말대로 동굴 문을 부수며 공격해 들어갔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거두고는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해동청(매의 일종)으로 변신했다. 해동청은 날개를 파닥이며 구름 사이를 뚫고 아래로 급강하하더니, 백조의 목을 껴안고 눈을 부라리며 덮쳤다.

우마왕도 상대가 손오공의 변신술임을 알아채고는 급히 날개를 떨며 황금매로 변해 해동청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다시 검은 봉황으로 변해 황금매를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우마왕은 손오공의 수법을 깨닫고는 백학으로 변신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깃털을 한 번 털더니, 이번에는 붉은 봉황으로 변해 높게 울부짖었다. 백학은 봉황이 새들의 왕임을 알아보고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다가, 날개를 휘둘러 절벽 아래로 급히 내려갔다. 그리고는 몸을 바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노루로 변신했다. 절벽 아래에서 풀을 뜯는 척했다.

손오공은 이를 알아채고 날개를 접으며 내려가 굶주린 호랑이로 변했다.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발을 놀려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 우마왕은 당황하여 이번에는 금색 점박이가 있는 커다란 표범으로 변해 호랑이를 공격하려 했다.

손오공은 이를 보고 바람을 가르며 머리를 흔들더니, 금빛 눈을 가진 산예(사자 모양의 신수)로 변했다. 산예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뿜으

며 철 같은 이마와 구리 같은 머리를 하고는 다시 몸을 돌려 표범을 잡아먹으려 했다. 우마왕은 마음이 급해져 이번에는 곰으로 변해 발을 내딛으며 산예를 붙잡으려 했다. 손오공은 몸을 한 바퀴 굴리더니 코는 긴 뱀 같고 엄니는 죽순 같은 코끼리로 변신했다. 코끼리는 코를 휘두르며 곰을 휘감으려 했다.

우마왕은 히죽히죽 웃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변했다. 머리는 험준한 산맥 같고 눈은 번쩍이는 빛과 같았으며, 두 뿔은 마치 철탑 두 개를 세워놓은 듯했고 이빨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몸집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천 장이 넘고, 발굽에서 등까지의 높이는 팔백 장에 달했다. 우마왕이 손오공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이제 나를 어찌할 테냐?"

손오공도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여의봉을 뿔아 들고는 허리를 굽히며 크게 외쳤다. "길어저라!" 그러자 손오공의 키가 만 장 높이로 솟구쳤다. 머리는 태산 같고 눈은 해와 달 같았으며, 입은 피 웅덩이 같고 이빨은 문짝 같았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쥐고 머리부터 사정없이 내리쳤다. 우마왕은 머리에 힘을 주고 뿔로 맞받아쳤다. 이 싸움은 정말로 산맥을 흔들고 산을 뒤흔들며,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기세였다. 이에 시로 이르되,

"도(道)가 한 자 높아지면 마(魔)는 천 자나 높아지니, 재주 넘치는 손오공이 힘을 써서 항복시키네. 화염산의 불길에 잿아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보배로운 부채의 시원함이 있어야 하리. 황婆(황파)는 뜻을 다해 원로를 돕고, 목(木)의 기운은 정을 담아 요괴를 쓸어버리네. 오

행이 화목하여 정과를 이루면, 마를 다스리고 때를 씻어 서천으로 향하리라."

두 괴물이 신통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산 중턱에서 격렬하게 싸우니, 지나가던 허공의 모든 신선들이 깜짝 놀랐다. 이에 금두개제와 육갑육정, 그리고 열여덟 분의 호교가람이 모두 몰려와 우마왕을 에워싸고 압박했다. 그러나 우마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동쪽과 서쪽으로 번쩍이는 두 철뿔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들이받았다. 남쪽과 북쪽으로 들이받을 때마다 뻗뻗하고 거친 꼬리가 좌우로 휘둘러지며 몰아쳤다. 손오공은 정면에서 맞서고 여러 신장은 사방에서 공격했다. 다급해진 우마왕은 땅을 한 바퀴 굴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뒤, 파초동으로 도망쳐 버렸다. 손오공도 법력을 거두고 여러 신장과 함께 뒤쫓았다. 우마왕은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결국 모든 신선이 취운산 전체를 빈틈없이 에워싸게 되었다.

막 모두가 문 앞으로 다가가 공격하려는데, 갑자기 저팔계와 토지신, 그리고 음병(저승의 병사)들이 떠들썩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를 본 손오공이 물었다.

“마운동의 상황은 어떠하냐?”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늙은 소 녀석의 마누라 말입니다, 제가 쇠갈퀴로 한 번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옷을 벗겨 확인해 보니 알고 보니 옥면 살팽이 요괴(玉面狸精)더군요. 그놈의 요괴 무리도 당나귀, 노새, 송아지, 황소, 오소리, 여우, 너구리, 노루, 양, 호랑이, 고라니, 사슴 같은 짐승 요괴들

이었는데, 제가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놈들의 동굴과 북도에도 불을 질러버렸지요. 토지신 말씀으로는 그놈들에게 이 산에 따로 머무는 식솔들이 더 있다고 해서, 이곳까지 와서 소탕하러 온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아우가 공을 세웠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기뻐! 이 몸은 그 늙은 소와 변신술로 승부를 겨루었으나 아직 이기지 못했다. 그놈은 커다란 흰 소로 변신하더니, 나는 법천상지(하늘과 땅만큼 몸을 크게 키우는 술법)를 펼쳐 맞붙었지.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중에 다행히 여러 신장이 내려와 그놈을 오랫동안 포위해준 덕분에, 그놈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동굴 안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저팔계가 물었다.

“그곳이 파초동입니까?”

손오공이 답했다.

“그렇다, 바로 그곳이다. 나찰녀가 지금 그곳에 있다.”

저팔계가 독기를 품고 말했다.

“상황이 그렇다면 어찌 그냥 두고 보십니까? 당장 쳐들어가서 그놈을 소탕하고 부채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어찌 저 요괴 부부가 시간을 끌며 피를 내고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옹거니, 저 멍청한 저팔계가 위세를 떨치며 쇠갈퀴를 들어 문을 내리치니,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돌 절벽이 문째로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깜짝 놀란 어린 계집아이가 급히 달려가 고했다.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앞문을 다 부숴 놓았어요!”

우마왕은 막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나찰녀에게 손행자(손오공)가 부채를 빼앗아 가서 그와 싸운 일을 막 이야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 보고를 들은 우마왕은 크게 노하여, 입에 물고 있던 부채를 뱉어 나찰녀에게 건넸다.

나찰녀는 부채를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왕님, 이 부채를 그 원숭이에게 그냥 주어 버리고 군사를 물려 돌아가게 하세요.”

우마왕이 말했다. “부인, 물건은 작을지 몰라도 원한은 깊은 법이요. 당신은 잠시 앉아 계시오. 내가 다시 가서 저놈과 한판 붙고 오겠소.”

우마왕은 다시 갑옷을 정돈하고 보검 두 자루를 골라 들고 문밖으로 나섰다. 마침 저팔계가 쇠갈퀴로 문을 부수고 있던 터라, 우마왕은 말도 섞지 않고 검을 뽑아 곧장 머리 위로 내리쳤다. 저팔계가 갈퀴를 들어 막아내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문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우마왕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동굴을 뛰쳐나갔고, 두 세력은 취운산에서 격돌했다. 수많은 신장이 사방을 에워쌌고, 토지신이 이끄는 병사들이 좌우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 싸움은 그야말로 살벌한 전쟁이었다.

구름은 세상을 가리고 안개는 하늘과 땅을 뒤덮었네. 서늘한 바람에
모래바람 휘날리고, 거센 분노는 바다처럼 일렁이네. 두 자루 검을 다
시 갈고, 온몸에 갑옷을 갖추어 입었으니, 맺힌 원한은 바다보다 깊고,
품은 분노는 끝없이 치솟네. 보아라, 제천대성은 세운 공을 앞세워 옛
인연조차 돌보지 않고, 저팔계는 위세를 떨치며 부채를 구하려 하네.
신장들은 법을 수호하며 우마왕을 잡으려 달려드니, 우마왕은 설 새 없
이 손을 놀리며 좌우를 막아내며 기세를 부리네. 살기가 너무 매서워
지나가던 새들도 날개를 접고 숨고, 헤엄치던 물고기들도 비늘을 감춘
채 바닥으로 숨어드네. 귀신은 울부짖고 신들은 통곡하며 천지가 어두
워지고, 용도 슬퍼하며 호랑이도 겁에 질려 햇빛마저 흐려지네.

우마왕은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이미 오십 합 넘게 맞붙은 끝에 적
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미 오
대산 비마암에서 신통력이 뛰어나고 법력이 강한 발법금강이 앞을 가
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우마왕, 어디를 가느냐!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천라지망을 펼치고 너를 잡으러 왔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오공과 저팔계, 그리고 여러 신장이 뒤따라
도착했다. 당황한 우마왕은 몸을 돌려 남쪽으로 도망쳤으나, 이번에는
아미산 청량동의 법력이 무한한 승지금강이 길을 막아서며 외쳤다.

“나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서 너를 붙잡으러 왔다!”

우마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급히 몸을 빼 동쪽으로 달아났으나, 이번에는 수미산 마이애의 비로사문 대력금강이 나타나 가로막았다.

“늙은 소야,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여래의 밀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우마왕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번에는 서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곤륜산 금하령의 불괴존왕 영주금강이 다시 앞을 막아서며 꾸짖었다.

“이놈이 또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나는 서천 대뇌음사(大雷音寺)의 부처님(여래)께 친히 명을 받들어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누가 너를 놓아주겠느냐!”

우마왕은 간담이 서늘해져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팔방이 온통 부처의 군사와 천계의 신장들로 가득하니, 마치 거대한 그물을 쳐놓은 듯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한창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에, 손오공이 무리를 이끌고 달려오는 소리까지 들리자 그는 급히 구름을 타고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마침 토탑이천왕과 나타나 어복약차와 거령신장들을 거느리고 공중에 가로막아 서서 외쳤다. “게 섰거라, 게 섰거라! 우리는 옥황제의 명을 받들어 너를 소탕하러 왔다!”

우마왕은 다급해진 나머지 다시 한번 몸을 변신시켜 커다란 흰 소로 변하더니, 두 개의 철뿔로 이천왕을 들이받으려 했다. 이천왕이 칼을 휘둘러 그를 베어 넘기려 할 때, 손오공이 뒤이어 도착했다.

그러자 나타가 엄숙하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대성, 지금 갑옷을 입고 싸우는 중이라 예법을 다 갖추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 부자는 여래 부처님께서 격문을 띄워 옥황상제께 아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승이 화염산에서 길이 막혔고 손대성께서도 우마왕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러자 옥황상제께서 명을 내려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 신장들을 거느리고 가서 돕도록 하셨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의神通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렇게 커다란 몸으로 변신까지 하다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나타가 웃으며 말했다. “대성,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놈을 잡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나타가 크게 외쳤다. “변신하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타는 세 개의 머리와 여섯 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 변하더니, 몸을 날려 우마왕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요괴를 베는 검(참요검)을 휘둘러 우마왕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나타가 칼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손오공과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우마왕의 목구멍 속에서 또 다른 머리 하나가 쑥 튀어나오더니, 검은 기운을 내뿜고 눈에서는 금빛 광채를 발했다. 나타가 다시 검을 휘둘러 베었지만,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다른 머리가 솟아올랐다. 나타가 연달아 수십 번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려 나간 자리마다 머리가 계속해서 돌아나 순식간에 수십 개의 머리가 생겨났다.

나타는 불타는 수레바퀴인 화륜을 꺼내 늙은 황소의 뿔에 걸고는 진정한 불꽃을 내뿜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우마왕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휘둘렀다. 우마왕이 변신하여 도망치려 하자, 이번에는 토탑천왕이 조요경을 꺼내 우마왕의 본모습을 비추었다. 그러자 우마왕은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도망칠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외쳤다.

“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기꺼이 불교에 귀의하겠습니다!”

나타가 말했다. “목숨이 아깝다면 어서 부채를 내놓아라!”

우마왕이 대답했다. “부채는 제 아내(나찰녀)가 보관하고 있소.”

나타가 상황을 보고는 묶는 데 쓰는 밧줄을 풀어 우마왕의 목에 걸치더니, 코끝을 짝 움켜쥐고는 밧줄을 콧구멍에 통과시켜 손으로 끌어당겼다. 손오공은 사대금강과 육정육갑, 호교가람, 토탑천왕, 거령신장과 더불어 저팔계, 토지신, 그리고 음병들을 거느리고 백우를 에워싼 채 파초동 입구로 돌아갔다. 백우가 울부짖으며 외쳤다. “부인, 어서 부채를 가지고 나와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나찰녀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비녀를 빼고 옷을 벗어 던졌다. 그러고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흰 옷을 차려입어 마치 도녀나 비구처럼 정갈한 모습으로 변한 뒤, 두 손으로 길쭉한 파초선을 받쳐 들고 문밖으로 나왔다. 그때 금강신들과 천왕 부자가 황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부디 보살님께서 저희 부부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채를 손숙부님께 바쳐 일이 잘

풀리도록 돕게 해주십시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부채를 건네받자, 일행은 모두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곧장 동쪽 길로 향했다.

한편, 당승과 사오정은 잠시 서 있다가 앉기를 반복하며 손오공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손오공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니 그 걱정이 오죽했을까.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상서로운 빛이 땅 위에 가득하며, 신선들이 가볍게 떠다니듯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신들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챈 당승이 겁에 질려 물었다.

“사오정아, 저기 오는 신령스러운 군대는 누구냐?”

사오정이 알아보고 대답했다.

“스님, 저분들은 사대금강과 금두게체, 육갑육정과 호교가람, 그리고 수많은 신장님입니다. 소를 몰고 오는 분은 나타 삼태자이고, 거울을 들고 있는 분은 토탑이천왕입니다. 큰사형은 파초선을 들고 있고, 둘째 사형과 토지신께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호위 신장들입니다.”

당승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로모자를 쓰고 가사까지 갖춰 입은 뒤, 사오정과 함께 성스러운 신들을 맞이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제자가 무슨 덕이 있다고 감히 이토록 귀하신 성현들을 인간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대금강이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이여, 기뻐하십시오. 수행의 공덕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스님을 돕기 위해 왔으니, 스님께 서는 마땅히 온 힘을 다해 수행에 정진하시고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워서 안 됩니다.”

당승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그 명을 받들었다.

손오공이 부채를 짝 움켜쥐고 산 근처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화염산의 불길이 평온하게 가라앉으며, 요동치던 빛 줄기도 고요히 사라졌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다시 한번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이 일며 산들바람이 살랑였다. 세 번째 부채질을 하자 하늘에는 구름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시로 이르되,

화염산은 멀리 팔백 리 길이라, 대지를 태우는 불길이 그 명성을 떨쳤네. 불길이 너무 뜨거워 신선이 되는 단약도 익히기 어렵고, 세 가지 관문도 불길에 타버려 도를 닦기 힘들었네. 때마침 파초 부채를 빌려 비와 이슬을 내려주니, 다행히 천계 신장들이 신통력을 도와주었구나. 소는 이제 일을 마치고 불법의 세계로 돌아가니,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의 성품이 절로 평온해지리라.

그제야 당승은 타는 듯한 갈증과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을 맑게 가라앉힐 수 있었다. 제자들도 모두 안도하며 금강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육정육갑(여섯 신령과 여섯 갑자) 신장들은 하늘로 올라가 보호 임무를 수행했고, 이곳을 지나가던 여러 신령들도 흠어들었다. 천왕과 태자, 그리고 소를 모는 신들은 곧장 부처님

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오직 이 산의 토지신만이 나찰녀를 붙잡아 둔 채 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찰녀, 네가 갈 길을 가지 않고 왜 여기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냐?"

나찰녀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부디 대성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이 부채를 제게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팔계가 호통을 쳤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구느냐! 네 목숨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감히 부채를 달라고 해? 우리가 이걸 가져가서 팔아 맛있는 간식이라도 사 먹으면 될 것이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며 힘을 써서 너에게 돌려주겠느냐? 비도 오는데 어서 돌아가지 못할까!"

나찰녀가 다시 절하며 말했다. "대성께서 분명 불길을 잠재워주면 부채를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제가 너무 늦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대범하지 못해 이토록 많은 사람을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도를 닦아 사람의 도리를 아는 처지이나,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제 본모습이 드러났으니 다시는 망령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부채를 내려주시면, 새로이 마음을 다잡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토지신이 거들었다. "대성, 이 여인이 불길을 잠재우는 법을 깊이 깨달았으니, 아예 불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부채를 돌려주십시오. 소신이 이곳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하고

약간의 제물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모두 대성께서 베푸시는 은혜 덕분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내가 아까 이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산의 불길을 잠재워도 일 년치 곡식만 거두고 나면 다시 불이 난다더구나. 어떻게 해야 뿌리째 없앨 수 있겠느냐?"

나찰녀가 대답했다. "불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부채를 마흔아홉 번 연속해서 부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다시는 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부채를 움켜쥐더니, 온 힘을 다해 산봉우리를 향해 마흔아홉 번을 연달아 휘둘렀다. 그러자 산 위에서 썩아아 하고 거센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과연 보물다운 위력이었다. 불길이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고, 불길이 없는 곳은 날이 맑게 개었다. 덕분에 손오공과 제자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있었기에 몸이 젖지 않았다.

밤새 자고 일어나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말과 짐을 챙기고 나찰녀에게 부채를 돌려주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부채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할 것이니, 이제 그만 가보겠소. 당신은 부채를 가지고 산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쁜 일을 도모하지 마시오. 이제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보내주겠소.”

나찰녀는 부채를 받아 주문을 외우더니, 부채를 살구 잎처럼 작게
뭉쳐 입에 물었다. 그리고 여러 신선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이름
을 숨기고 수행에 정진하였다. 훗날 그녀 또한 정당한 깨달음을 얻어
불경 속에서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다. 나찰녀와 토지는 모두
감격하여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
은 당승을 모시고 길을 떠났다. 몸은 시원해지고 발밑은 촉촉해졌으
니, 참으로 다음과 같은 시의 구절과 같았다.

시로 이르되, “감(坎)과 이(離)가 조화를 이루어 참된 원기가 합쳐지
니, 물과 불이 평온해져 대도의 길이 이루어지도다.”

결국 몇 년이 지나야 동토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 이야
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2회 — 때를 씻고 마음을 닦아 탑을 쓸어내고, 마귀를 묶어 주인에게 돌아가 게 함이 곧 몸을 닦는 것이다

滌垢洗心惟掃塔 縛魔歸主乃修身

제62회

두 승려가 요괴를 몰아내고 용궁을 소란케 하며, 여러 성현이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보물을 얻다.

"열두 시의 흐름을 잊지 말고 정진하여, 백 번의 공력을 쌓아 온전히 거두어라. 오 년 동안 십만 팔천 번을 수행하니, 신령한 물이 마르게 하지 말고 타오르는 불길에 근심하지 말지어다.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어 해로움이 없으니, 오행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구나. 음양의 기운이 화합하여 구름 위 누각에 오르니, 신선 이 타는 새를 타고 자색 궁궐로 향하며 학을 타고 영주 땅으로 나아가 도다."

이 글은 '임강선'이라는 곡조의 사(詞)로, 당삼장 일행이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어 본래의 청량한 성품을 되찾았음을 말한다. 또한 순음보선(순수한 음의 기운을 가진 부채)을 빌려 타오르는 조열한 불길을 잠재우며 산을 넘었음을 뜻한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팔백 리 길을 지나온 스승과 제자들은 유유자적하게 서쪽으로 향했다. 마침 계절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풍경은 이러했다.

"들국화는 시든 꽃잎을 떨어뜨리고, 어린 매화는 새로이 꽃망울을 터뜨린다. 마을마다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곳곳에서는 맛있는 국물 요리 냄새가 풍긴다. 평탄한 숲에는 나무가 지고 먼 산이 모습을 드러내며, 굽이진 계곡에는 서리가 질게 내려 깊은 골짜기가 맑고 고요하다. 종소리에는 가을 기운이 서려 있고, 벌레와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려 숨어든다. 음과 양의 기운은 달과 밤의 깊은 바다와 같고, 물의 기운이 성하니 순임금 시절의 맑은 날씨가 그리워진다. 땅의 기운은 내려가고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니, 무지개는 자취를 감추어 보이지 않고 연못에는 서서히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절벽에는 덩굴꽃이 시들어 매달려 있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찬 기운을 머금어 그 빛이 더욱 푸르다."

네 사람이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 눈앞에 성곽이 가까이 보였다. 당삼장이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세우며 제자들에게 물었다. “오공아, 저기 저 높이 솟은 누각들을 보아라. 저곳은 대체 어떤 곳이냐?”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과연 커다란 성곽이 하나 있었다.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었다.

용이 파리를 튼 듯 웅장하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견고한 금빛 성벽이라. 화려한 지붕들이 사방으로 늘어서 있고, 구불구불한 길 끝에는

자줏빛 궁궐이 평온하게 자리 잡았구나. 옥과 돌로 만든 난간에는 정교한 짐승 모양 조각들이 늘어서 있고, 황금빛 대좌 위에는 현명한 신하들이 줄지어 있네. 참으로 신령한 땅의 대도시요, 하늘의 궁궐 같구나. 만 리에 이르는 영토는 굳건하고, 천 년을 이어온 제국의 업적은 드높도다. 오랑캐들도 임금의 은덕에 굴복하여 멀리서 찾아오고, 바다와 산의 정령들도 성스러운 모임에 참석하려 모여드네. 어좌로 향하는 계단은 깨끗하고 수레가 다니는 길은 평온하구나. 술집에서는 노래 소리가 북적이고, 꽃다운 기생들이 있는 누각에는 즐거운 기운이 넘쳐나네. 미양궁 밖에는 상춘 나무가 푸르는데, 아침 햇살을 받으니 오색 빛깔 봉황이 올 것만 같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 성곽은 한 나라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부(府)가 있으면 부성(府城)이 있고, 현(縣)이 있으면 현성(縣城)이 있는 법인데, 어찌 저게 임금이 사는 곳인 줄 바로 아십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너는 임금이 사는 곳이 일반 부나 현의 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구나. 저 성을 보렴. 사방에 문이 열 개가 넘게 있고, 둘레는 백 리가 넘으며, 높은 누각들이 구름과 안개 속에 솟아 있지 않느냐? 제국의 수도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토록 장엄할 수 있겠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눈이 정말 밝으십니다. 임금이 사는 곳인 줄은 알겠는데, 그럼 저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현판이나 깃발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성안으로 들어가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장법사가 말을 채찍질해 몰아가니 순식간에 문 앞에 다다랐다. 말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리는 시장과 맞닿아 온갖 물건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채 위세 당당하게 거닐고 있었다.

한창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열댓 명의 승려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목에는 칼(枷)을 쓰고 몸에는 쇠사슬을 찬 채 문 앞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고 가련했다.

삼장법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더니,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손오공아, 네가 앞으로 가서 저들에게 왜 저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물어보아라."

손오공이 스승의 말대로 다가가 물었다. "이보시오, 스님들! 어느 절에서 오신 분들이기에 어찌하여 저런 쇠사슬과 칼을 차고 계신 거요?"

승려들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나으리, 저희는 금광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승려들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금광사가 어디에 있소?"

승려들이 말했다. "모퉁이만 돌면 바로 나옵니다."

손오공은 그들을 삼장법사 앞으로 안내한 뒤 물었다. "어찌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말해 보시오."

승려들이 말했다. "나으리, 어느 곳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웬지 낮이 익은 분들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부디 저 황량한 산으로 가셔서 저희의 괴로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렇구려. 그럼 우선 저들의 절로 가서 자세한 사정을 물어봅시다."

산문에 이르니 문 위에는 ‘칙건호국금광사(나라에서 세운 나라를 지키는 금광사)’라는 금색 글자 일곱 자가 가로로 쓰여 있었다. 스승과 제자들이 문 안으로 들어서서 살펴보니, 보이는 풍경은 이러했다.

오래된 전각에는 향과 등불이 식어 차갑고, 빈 복도에는 바람에 쓸린 낙엽만 뒹구는구나. 구름을 찌를 듯 솟은 천 척 높이의 탑과 마음을 다스려 주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건만, 땅에는 떨어진 꽃잎만 가득할 뿐 지나가는 손님이 없고, 처마 앞에는 거미줄만 무성하게 쳐져 있네. 텅 빈 북과 헛되이 걸린 종, 먼지 쌓인 벽화 속 불상들은 형체가 흐릿하기만 하구나. 법좌는 적막하여 스님은 보이지 않고, 선당은 너무 고요하여 새들만 드나드니, 이 쓸쓸한 광경에 탄식만 절로 나오고 외로움은 끝이 없구나. 부처님 앞에 향로가 놓여 있다 한들 재는 식고 꽃은 시들었으니, 모든 것이 덧없고 허무하도다.

당삼장은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승려들은 머리에 칼(가해)과 쇠사슬을 쓴 채 정전을 밀어 열고, 노스님을 모셔 전 안에서 불공을 드리게 했다. 노스님이 전 안으로 들어가 향을 올리고 정성스레 절을 올렸다. 그러다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방장 스님의 처

마 기둥에 어린 승려 대여섯 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당 삼장은 그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방장(스님들이 머무는 건물)에 이르자, 승려들이 모두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나으리들, 생김새가 다들 다르신데 혹시 동토 당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이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력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맞다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승려들이 대답했다. “나으리, 저희에게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날마다 하늘과 땅을 향해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혹시 천신을 감동시켰는지, 어젯밤에 다들 꿈을 꾸었습니다. 동토 대당에서 오신 성스러운 스님이 저희의 목숨을 구해 주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꿈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나으리 같은 분들을 뵈었으니, 당연히 알아본 것이지요.”

삼장법사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이곳은 대체 어디이며,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승려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고했다. “스님, 이곳은 제사국이라 불리는 곳으로 서쪽 나라에서 아주 큰 나라이옵니다. 예전에는 사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지요. 남쪽으로는 월타국, 북쪽으로는 고창국, 동쪽으로는 서량국, 서쪽으로는 본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아름다운 옥과 밝은 구슬, 아름다운 후궁과 준마를 바쳤습니다. 저희가 칼을 들고 싸우거나 정벌하러 나가지 않아도, 그 나라들이 스스로 저희를 상국으로 받들어 모셨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토록 상국으로 받들었다면, 이 나라 국왕께
서도 도리가 있고 문무 관료들도 어질고 현명하겠군요."

승려들이 대답했다. "스님, 문관은 어질지 못하고 무관은 현명하지
못하며, 국왕 또한 도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금광사의 보탑은
본래 상서로운 구름이 감돌고 상서로운 기운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밤이면 노을빛을 내뿜어 만 리 밖 사람들도 보았고, 낮이면 채색 기
운을 뿜어내어 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았지요.

그래서 이곳을 하늘이 내린 신성한 도읍이라 여겨 사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초가을 첫날, 한밤중 자시(子
時)에 피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밝자 집집마다 두려움에 떨고 마을마
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러 관리들이 국왕께 상소를 올려 하늘이 어찌
하여 노하셨는지 여쭙었습니다. 당시 도사를 불러 제사를 지내고 스님
들이 경전을 읽으며 하늘과 땅에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절의 황금 보탑이 더러워지는 바람
에 지난 2년 동안 외국에서 조공이 끊겼을 줄이야요. 국왕께서 전쟁이
라도 일으키려 하자, 신하들이 간언하기를 '우리 절의 승려들이 탑 위
의 보물을 훔쳐갔기 때문에 상서로운 구름과 기운이 사라지고 외국에
서 조공을 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임금은 이치를 살
피지도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저희 승려들을 잡아다가 온
갖 방법으로 고문하며 죄를 추궁했습니다. 당시 저희 절에는 세 부류의
스님이 있었는데, 앞선 두 부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죽었습니
다. 이제는 저희 차례가 되어 죄를 묻겠다며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스님, 저희가 어찌 감히 마음을 속여 탑 안의 보물을 훔쳤겠습니까! 부디 저희를 가련히 여겨 주십시오. 끼리끼리 모이고 물건은 그 성질대로 나뉘는 법이니, 부디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고 신통력을 발휘하여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이 일은 앞뒤가 맞지 않아 참으로 알기 어렵구나. 첫째는 조정의 정치가 잘못된 탓이고, 둘째는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 탓이다. 하늘에서 핏빛 비가 내려 보탑을 더럽혔다면, 그때 즉시 임금께 보고하여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했어야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승려들이 말했다. "스님, 저희 같은 범인들이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게다가 선배 스님들조차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장법사가 물었다. "오공아, 지금이 몇 시쯤 되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신시(오후 3시~5시 사이)쯤 되었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내가 임금을 뵈고 통행증(관문)을 새로 교체받고 싶어도, 이 승려들의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니 임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장안을 떠나 법문사에서 서원을 세울 때, '서방으로 가는 길에 사찰을 만나면 향을 피우고, 절을 만나면 부처님께 절하며, 탑을 만나면 탑을 청소하리라'라고 다짐했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보탑 때문에 고통받는 승려들을 만났으니, 너는 나와 함께 새 빗자루를 하나 준비하거라. 내가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탑에 올라가 청소를 해보마. 그래야 이 더러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왜 빗을 잃었는지 그 실체를 알아내어 임금께 보고하고 이들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쇠사슬에 묶인 승려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 한 자루를 가져오더니 저팔계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리, 이 칼로 기둥에 묶여 있는 어린 스님의 쇠사슬을 풀어주십시오. 그를 보내 공양과 목욕물을 준비하게 하고, 나리께서 식사하시고 목욕하실 수 있도록 모시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거리로 나가 새 빗자루를 구해와서 나리께서 탑을 청소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자물쇠 푸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칼이나 도끼 따위는 필요 없다. 저기 저 털 많은 나리에게 시키자꾸나. 저분이 자물쇠 푸는 데는 도가 튼 분이다."

손오공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가 자물쇠를 푸는 법을 부리며 손으로 숙 문지르자, 쇠사슬 여러 개가 한꺼번에 툭 하고 풀려 떨어졌다. 어린 승려들은 모두 주방으로 달려가 솥과 아궁이를 깨끗이 닦고 차와 음식을 준비했다. 당삼장 일행이 공양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그때 쇠사슬에 묶여 있던 승려들이 빗자루 두 개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삼장은 매우 기뻐했다.

한편, 한 어린 스님이 등불을 들고 와서 목욕을 도와드렸다. 이때 하늘에는 별과 달이 찬란하게 빛나고, 성루에서는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시로 이르되, 사방에는 찬 바람이 일고, 집집마다 등불은 밝구나. 여섯 거리의 집들은 문과 창을 닫고, 세 곳의 시장은 문을 닫아걸었네. 낚

식배는 깊은 나무 사이로 돌아가고, 쟁기질하던 농부는 고삐를 내려놓았구나. 나무꾼은 도끼를 쉬게 하고, 글 읽는 선비의 소리만 들려오네.

삼장법사는 목욕을 마친 뒤, 소매가 짧은 가벼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맸다. 발에는 부드러운 신을 신고 손에는 새 빗자루를 든 채 스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편히 잠자리에 드시오. 나는 가서 탑을 좀 끌고 오겠소."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탑 위는 혈우 때문에 더러워진 데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해 요괴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밤은 고요하고 바람은 찬데 동행도 없으니, 혼자 가시다가는 변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저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그거 참 좋겠구려, 아주 좋소."

두 사람은 각자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먼저 대전으로 가서 유리 등불을 켜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절하며 빌었다. "제자 진현장은 동토 대당의 명을 받들어 영산에 계신 우리 부처님 여래를 뵈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에, 지금 이곳 제사국 금광사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스님들이 보탑이 더러워진 일로 국왕의 의심을 받아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을 밝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자가 정성을 다해 탑을 끌 테니,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탑이 더러워진 원인을 빨리 알려주어 범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원을 마친 뒤, 삼장법사는 손오공과 함께 탑 문을 열고 아래층부터 위를 향해 끌기 시작했다. 이 탑의 모습은 참으로 이려했다.

웅장하게 솟아 하늘을 찌를 듯하고, 홀로 높이 서서 허공을 가로지르는구나. 이름하여 오색 유리 탑이요, 천금 같은 사리 봉우리라. 사다리는 굴속을 뚫고 지나가는 듯하고, 문은 새장 속에서 나오는 듯하네. 보배로운 병은 하늘 끝 달빛을 비추고, 금종 소리는 바다 위 바람을 타고 들려오네. 처마는 구름을 머금은 듯 아치형으로 굽어 있고, 꼭대기는 구름 속에 잠겨 있구나. 정교한 처마는 꽃 사이를 누비는 봉황 같고, 구름 덮인 꼭대기는 안개를 두른 용과 같네. 멀리서 바라보면 천 리 밖까지 보이고, 높이 오르면 마치 구만리 창공에 있는 듯하구나. 층층이 문마다 유리 등불이 걸려 있으나 먼지만 쌓였을 뿐 불은 꺼져 있고, 층마다 처마 앞 백옥 난간에는 때가 끼고 벌레들이 날아다니네. 탑 안 불단 위에는 향 연기가 끊겼고, 창살 너머 신상 앞에는 거미줄이 어지럽게 얹혀 있구나. 향로에는 쥐똥이 가득하고 잔에는 기름이 말랐으니, 오직中间的의 보물을 잃어버린 탓에 스님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고생만 하는구나. 삼장법사가 마음을 내어 탑을 끌어 옛 모습을 되찾게 하려 하네.

삼장법사는 빗자루로 한 층을 쓸고 또 다음 층을 쓸어 올라갔다. 그렇게 일곱 번째 층까지 다 쓸었을 때는 이미 밤이 두 시(이경)를 넘긴 시간이었다. 삼장법사가 점점 졸음이 밀려오자 손오공이 말했다. "스님, 피곤하시니 잠시 앉아 계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쓸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이 탑은 모두 몇 층이나 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아마 열세 층은 될 겁니다." 삼장법사는 피곤함을 참으며 말했다. "반드시 다 끌어야 내 서원을 이룰 수 있을 게야."

그는 다시 세 층을 더 쏘였으나,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 열 번째 층에서 주저앉으며 말했다. "오공아, 네가 남은 세 층을 깨끗이 끌어다 오." 손오공은 정신을 가다듬고 열한 번째 층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열두 번째 층까지 올라갔다. 한창 쏘고 있는데, 갑자기 탑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상하네, 이상해! 벌써 밤이 깊어 세 시(삼경)가 다 되어 가는데, 어찌 탑 꼭대기에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분명 요괴가 틀림없으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빗자루를 가볍게 끼고 옷을 털어낸 뒤, 앞문으로 살며시 빠져나가 구름을 타고 살펴보았다. 보니 제13층 탑 안에는 요괴 두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밥 한 그라기, 그릇 하나, 주전자와 놓여 있었는데,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며 술을 마시고 노는 중이었다.

손오공이神通력을 부려 빗자루를 던져버리고는 곧장 여의금고봉을 뿔아 들었다. 그리고 탑 문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이 요괴 놈들아! 탑 위의 보물을 훔친 놈들이 바로 너희였구나!"

요괴 두 마리는 혼비백산하여 급히 일어나더니, 주전자와 그릇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당황했다. 하지만 손오공이 철봉으로 앞을 딱 가로막으며 말했다. "너희를 때려죽여 버리면, 보물을 훔친 놈이 누구인지 자백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손오공은 몽둥이로 그들을 압박하며 몰아붙였다. 요괴들은 벽에 딱 달라붙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시오, 살려

주시오!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소! 보물을 훔친 놈은 따로 있단 말이 오!"

손오공이 법술을 부려 한 손으로 요괴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제10층 탑으로 끌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외쳤다. "스승님, 보물을 훔친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마침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삼장법사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며 기쁜 듯이 물었다. "어디서 잡았느냐?"

손오공이 요괴를 끌고 와 앞에 무릎을 꿇리며 말했다. "이놈들이 탑 꼭대기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술을 마시고 놀고 있기에, 소손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단숨에 뛰어올라 가로막았습니다. 힘을 써서 때리려니 혹시라도 죽어서 자백할 사람이 없을까 봐 살살 잡아 왔습니다. 스승님, 이놈을 심문하여 어느 나라 요괴인지, 훔친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내십시오."

요괴는 벌벌 떨며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사실대로 자백했다. "저희 둘은 난석산 벽파담의 만성룡왕께서 탑을 순찰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파파아분이고, 저 친구의 이름은 분파아파라고 합니다. 저 친구는 메기 괴물이고 저는 검은 물고기 요괴입니다. 저희 만성룡왕께서 딸을 하나 낳으셨는데, 그 이름을 만성공주라 부릅니다. 공주님은 꽃 같은 얼굴에 달 같은 자태를 지니셨으니, 그 인물됨이 더할 나위 없이 빼어나입니다. 그래서 구두부마라는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자 또한 신통력이 매우 대단합니다. 재작년에 용왕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커다란 법력을 부려 핏빛 비를 내리게 했는

데, 그 바람에 보탑이 더러워졌고 탑 안에 있던 사리(舍利) 불보(佛寶)도 흠쳐 갔습니다. 공주님은 또 대라천의 영소전까지 가서 왕모냥냥의 구엽영지초를 흠쳐 와 못 밑에 길렀더니, 금빛과 노을빛이 감돌며 밤낮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오공이라는 자가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신통력이 대단하여, 길에서 오로지 남의 잘못(불의)을 들춰내 따지고 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손오공이 이곳에 나타나면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수시로 보내 순찰하게 한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히죽히죽 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저 망나니 같은 놈들이 이토록 무례하다니! 어쩐지 요전에 우마왕을 그곳 모임에 초대하더라니, 알고 보니 저런 못된 요괴들과 결탁해서 나쁜 짓만 일삼고 있었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팔계가 어린 승려 두세 명과 함께 등롱 두 개를 들고 탑 아래에서 올라오며 말했다. "스님, 탑을 다 쓸었으면 가서 주무셔야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사제, 마침 잘 왔다. 이 탑에 있던 보물을 만성룡왕이 흠쳐 갔는데, 방금 이 요괴 두 마리가 탑을 순찰하다가 우리가 온 것을 알아채려고 살피던 것을 내가 딱 붙잡았다." 저팔계가 물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요괴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금 자백을 받아냈는데, 한 놈은 분파아파라고 하고 다른 한 놈은 파파아분이라고 한다. 하나는 민물고기 괴물이고, 하나는 검은 물고기 요괴다." 저팔계가 즉시 갈고리 모양의 무기를 휘두르며 때리려 했다. "요괴라면 자백을 받았으니, 때려 죽이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일단 살려두어야 국왕에게 가서 보고하기도 좋고, 나중에 눈을 뽑아내는 형벌을 내려 도둑을 잡고 보물을 되찾을 때

도 쓸 수 있단 말이다.” 이 고집불통인 저팔계도 이번에는 정말로 무기를 거두고는, 요괴를 한 놈씩 붙잡아 탑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요괴들이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십시오!” 저팔계가 쏘아붙였다. “너희 민물고기와 검은 물고기 놈들을 잡아다가 싱싱한 국을 끓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 스님들께 대접해 드려야겠다!”

어린 승려 서너 명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등불을 들고 와, 노스님을 탑 아래로 안내했다. 그중 한 명이 먼저 달려가 다른 승려들에게 외쳤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드디어 우리도 밝은 하늘을 보게 되었구나. 보물을 훔쳐 간 요괴는 이미 대사님들께서 붙잡으셨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철사슬을 가져와서 저놈들의 비파골(어깨뼈)에 꿰어 이곳에 묶어 두어라. 너희는 이놈들을 잘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잠을 좀 자고 내일 다시 처리할 테니.”

승려들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괴를 삼엄하게 지켰고, 덕분에 삼장법사 일행은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나와 손오공이 조정에 들어가, 서류를 교체하고 오겠네.” 삼장법사는 곧바로 비단 가사를 걸치고 비로모를 쓴 뒤, 위엄 있는 모습으로 정돈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손오공 역시 호피 치마를 두르고 면직물 도포를 단정히 여민 뒤, 서류를 챙겨 함께 나섰다. 저팔계가 말했다. “왜 저 요괴 놈 두 마리는 데려가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리가 먼저 보고를 마치고 나면, 관청에서 알아서 명단을 보내 저놈들을 잡으러 올 것이야.”

두 사람은 곧 조정의 문 앞에 다다랐다. 붉은 주작과 황금빛 용이 새겨진 문들, 그리고 청량하고 화려한 궁궐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삼장법사가 동화문에 도착하여 문을 지키는 관리를 향해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인께 전해주시시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국왕 폐하를 뵙고 서류를 교체하고자 하니, 부디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황문관이 곧 가서 보고하였다. "밖에서 생김새와 옷차림이 특이한 승려 두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남섬부주 동토 대당에서 서방의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온 사절이라 하며, 국왕 폐하를 뵙고 서류를 교체하고 싶다고 합니다."

국왕이 그 말을 듣고 명을 내려 알리게 했다. 장로가 손오공을 이끌고 조정으로 들어갔다. 문무백관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모두 깜짝 놀라며 겁에 질렸다. 어떤 이는 "원숭이 스님이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뇌공의 입을 닮은 스님이다"라고 속삭였다. 백관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 감히 오래 쳐다보지도 못했다. 장로는 계단 앞에서 춤을 추듯 절을 올리며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곁에 비스듬히 서서 태연자약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장로가 아뢰었다. "소승은 남섬부주 동토 대당에서 서방 천축국 대뇌음사 부처님을 뵙고 진정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방국을 지나게 되었으나 함부로 지나갈 수 없어, 지니고 있는 공문을 보여드리오니 부디 살펴주시고 지나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국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명을 내려 당나라에서 온 성승을 금란전으로 모셔오게 하고 비단 방석을 내려 앉게 하였다. 장로는 홀로 전각에 올라 먼저 공문을 받들어 올린 뒤, 은혜에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국왕은 상소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더니,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들의 대당 왕은 병이 있어도 훌륭한 고승을 찾아낼 줄 알고, 길이 멀고 험한 것도 마다치 않으며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구하러 오지 않았소? 반면 과인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승려들은 오로지 도둑질에만 정신이 팔려 나라를 망치고 군주를 위태롭게 하고 있구려."

삼장법사가 그 말을 듣고 합장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나라를 망치고 군주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국왕이 대답했다. "과인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서역의 상국(上邦)으로서 사방의 오랑캐들이 항상 조공을 바쳐왔소. 이는 나라 안에 금광사가 있고, 그 사찰 안에 황금 보탑이 있어 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최근 금광사의 도둑 승려들이 그 안의 보물을 몰래 훔쳐 간 뒤로, 3년 동안 빛이 나지 않았소. 그 바람에 외국에서도 3년째 조공을 오지 않으니, 과인의 마음이 아프고 원통할 따름이오."

삼장법사가 합장하며 웃으며 말했다. "폐하, '한 치의 차이가 천 리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빈승이 어젯밤 이곳에 도착해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칼과 쇠사슬을 찬 승려 열댓 명을 보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으니, 금광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절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 일은 금광사 승려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빈승이 밤에 탑을 청소하다가, 보물을 훔쳐간 요괴를 이미 붙잡아 두었습니다."

국왕이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그 요괴가 어디에 있소?"

삼장법사가 말했다. "지금 제 제자가 금광사에 잡아 가두어 놓았습니다."

국왕은 급히 금패를 내리며 명령했다. "금의위는 즉시 금광사로 가서 요괴를 잡아 오너라. 과인이 직접 심문하겠다."

그러자 삼장법사가 다시 아뢰었다. "폐하, 금의위가 있다 하나 제 제자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그 뛰어난 제자가 어디 있는가?"

삼장법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옥계 옆에 서 있는 자입니다."

국왕이 그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성승께서는 이토록 풍채가 고결하신데, 어찌 제자는 저런 모습이란 말인가?"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폐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바닷물을 되로 재어 그 양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 겉모습만 따지신다면 어찌 요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왕은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기쁨으로 바꾸며 말했다. "성승의 말씀이 옳소. 짐은 인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괴를 잡아 보물을 되찾고 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

이어 국왕은 가마를 모시는 관리를 불러 황색 우산을 준비하게 하고, 금의위에게는 교위를 거느려 성승을 잘 모시고 요괴를 잡아 오도록 명했다.

가마를 모시는 관리는 즉시 커다란 가마 한 채와 황색 우산 하나를 준비했다. 금의위는 교위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손오공을 어깨에 메고 길을 비키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금광사로 향했다. 이 광경은 온 성안의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성 안의 사람치고 성승과 요괴를 구경하러 나오지 않은 이가 없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는 국왕이 보낸 관리인 줄 알고 급히 마중 나갔더니, 알고 보니 손오공이 가마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저팔계가 눈앞에서 보며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아주 제 몫을 다 하셨군요!"

손오공이 가마에서 내려 저팔계를 부축하며 물었다. "내가 내 몫을 다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노란 우산을 쓰고 여덟 사람이 메는 가마를 타고 오시니, 이 어찌 원숭이 왕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님이 제 몫을 다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쓸데없는 농담은 그만두어라." 그러고는 붙잡은 요괴 두 마리를 풀어놓고 국왕에게 압송하러 갔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여기서 짐과 말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쇠사슬에 묶여 있던 승려가 말했다. "나오리들께서 모두 국왕 폐하의 은혜를 입으러 가시니, 저희는 여기서 짐이나 지키고 있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가 국왕께 보고를 드리고 온 뒤에 너희를 풀어주마."

저팔계는 요괴 한 마리를 붙잡고, 사오정은 다른 요괴 한 마리를 붙잡았으며, 손오공은 다시 가마에 올라 가마를 견고 앞장서서 두 요괴를 끌고 국왕 앞에 나아갔다.

잠시 후, 요괴들이 국왕 앞에 도착하여 말했다. "그 요괴 놈들을 잡아 왔습니다." 국왕이 용상에서 내려와 당삼장과 문무백관들과 함께 그들을 살펴보았다. 요괴 하나는 턱이 불거지고 검은 갑옷을 입었으며 부리가 뾰족하고 이빨이 날카로웠고, 다른 하나는 피부가 매끄럽고 배가 볼록하며 입이 크고 수염이 길었다. 비록 발이 달려 걸어 다녔지만, 대체로 사람의 형상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국왕이 물었다. "너희는 어느 곳에서 온 도적이며 요괴냐? 언제 우리 땅을 침범했고, 언제 내 보물을 훔쳐 갔느냐? 도적 떼는 모두 몇 명이며 이름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사실대로 고하라."

두 요괴는 위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목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흘러 내리고 있었으나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요괴들이 말했다. "3년 전 7월 초하루, 만성룡왕이라는 자가 수많은 친척을 거느리고 이 나라 동남쪽, 여기서 백 리쯤 떨어진 난석산 벽파담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 공주가 매우 아름답고 요염하여, 신통력이 무적이라 불리는 구두 부마를 데려다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가 당신네 탑에 진귀한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는 룡왕과 합심하여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핏빛 비를 내리게 한 뒤 사리를 훔쳐 갔습니다. 지금 그 보물들이 용궁에서 빛을 내느라, 칠흑 같은 밤에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공주가 신통력을 부려 은밀하게 왕모의 영지버섯까지 훔쳐다가 담 안에서 보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룡왕이 보낸 졸개들일 뿐입니다. 오늘 밤 붙잡힌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자백은 다 했으면서 어찌 너희의 이름은 말하지 않느냐?"

요괴가 대답했다. "저는 분파아파라 하고, 이놈은 파파아분이라 합니다. 분파아파는 민물고기 괴물이고, 파파아분은 검은 물고기 요괴입니다."

국왕은 금의위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잘 가두어 두게 하고, 다음과 같이 어명을 내렸다. "금광사 승려들의 쇠사슬을 모두 풀어주어라. 그리고 즉시 광록사로 하여금 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기린전에서 성승(삼장법사)께서 요괴를 잡은 공을 치하하고, 성승께서 요괴의 우두머리까지 잡아주시기를 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라."

광록사에서는 즉시 고기와 채소를 섞은 두 종류의 잔칫상을 준비했다. 국왕은 당삼장 일행을 기린전으로 초대하여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성스러운 스님의 존함은 무엇입니까?” 당삼장이 합장하며 대답했다. “보잘것없는 이 승려의 속가는 진 씨이며, 법명은 현장이라 합니다. 임금님께서 당 씨라는 성을 내려주셨으니, 비천하게도 삼장이라 불립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성스러운 스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첫째는 손오공이고, 둘째는 저오능이며, 셋째는 사오정입니다. 이는 남해 관음보살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어, 저는 오공을 행자라 부르고, 오능은 팔계라 부르며, 오정은 스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왕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삼장을 상석에 앉혔고, 손오공은 상석 왼쪽 옆자리에, 저팔계와 사오정은 상석 오른쪽 옆자리에 앉혔다. 음식은 모두 과일과 채소, 차와 밥으로 차려진 채식이었다. 앞쪽 상석에는 고기 요리가 차려진 상이 놓여 국왕이 앉았고, 그 아래로 백여 개의 고기 요리 상이 차려져 문무백관들이 앉았다. 신하들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고한 뒤 자리에 앉았다. 국왕이 술잔을 들자 당삼장은 감히 술을 마시지 못했으나, 나머지 세 제자는 각자 대접받는 술을 마셨다. 아래쪽에서는 교방사에서 연주하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흥을 돋웠다. 저팔계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로 굶주린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니, 상에 차려진 과일과 채소 등을 순식간에 깨끗이 비워버렸다. 잠시 후 국과 밥이 새로 차려져 나왔으나, 그는 또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 술을 나르는 사람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잔을 비워냈다. 이 잔치는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다.

당삼장은 성대한 잔치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국왕이 다시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이 잔치는 성승께서 요괴를 잡으신 공로를 그저 작게나마 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어 국왕은 광록사 관리에게 명했다. "어서 음식을 건장궁으로 옮겨 다시 차려라. 성승을 다시 모셔 도둑의 우두머리를 잡고, 보물을 되찾아 탐을 되돌려 놓을 계획을 여쭙어보아야겠다." 당삼장이 말했다. "도둑을 잡고 보물을 찾는 일이 급하니, 굳이 잔치를 다시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만 임금께 하직하고 요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물러나기를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건장궁으로 모셔 또 한 차례 잔치를 베풀었다. 국왕이 술잔을 들어 물었다. "어느 성승께서 무리를 이끌고 출정하여 요괴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첫째 제자인 손오공을 보내겠습니다." 손오공이 손을 모아 출정을 승낙했다. 국왕이 물었다. "손 장로가 가신다니, 군마는 얼마나 필요하며 언제 성을 나서시겠소?"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또 시간을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술 마시고 배부른 김에 저와 사형이 가서 단숨에 잡아 오겠습니다!" 당삼장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팔계가 요새 이렇게 부지런해졌구나!" 손오공이 덧붙였다. "그렇다면 사오정 동생에게 스승님을 모시라 하고, 우리 둘이 다녀오겠습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두 장로께서 군사를 쓰지 않으신다면, 무기는 필요 없으십니까?"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네 무기는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저희 형제에게는 각자 몸에 지닌 병기가 따로 있습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큰 술잔을 가져와 두 장로에게 배웅하며 건넸다. 손오공이 말했다. "술은 그만 마시고, 어서 금의위에게 명해 저 어린 요괴 둘을 데려오게 하시오. 우리가 저놈들을 끌고 가서 눈을 파낼 것이오." 국왕이 즉시 명령을 내리자 요괴들이 끌려 나왔다. 두 사람은 어

린 요괴들을 붙잡은 채 바람을 타고 신통력을 부려 곤장 동남쪽으로 날아갔다. 아! 이야기는 이러하다. 임금과 신하들이 구름과 안개 속으로 날아가는 이들을 보며, 비로소 저 스승과 제자들이 성스러운 승려임을 깨달았구나.

결국 이번 길에 가서 어떻게 요괴를 사로잡을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3회 — 두 스님이 괴물을 물리쳐 용 궁을 소란케 하고, 여러 성현이 사악함을 제거하여 보물을 얻다

二僧蕩怪鬧龍宮 群聖除邪獲寶貝

한편, 제재국의 국왕과 여러 대신은 손오공과 저팔계가 구름과 안개를 타고 날아오르며 요괴 두 마리를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하늘을 향해 절하며 감탄했다. "소문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오늘에야 이런 신선과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도다." 그들이 멀리 사라져 자취를 감추자, 국왕은 다시 삼장법사와 사오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과인이 눈이 어두운 범인이라, 그제 제자들이 힘이 세서 요괴를 붙잡아 온 줄로만 알았지, 이토록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신선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러자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빈승은 별다른 법력이 없으니, 길을 오는 동안 이 세 제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오정이 말을 이었다. "폐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큰스님은 제천대성으로 귀의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천계에서 크게 난동을 부려 금고봉 하나로 십만 천병을 상대하셨는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해 태상노군께서 겁을 먹고 옥황상제께서도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정도지요. 저희 둘째 스님은 천봉원수 출신으로, 예전에 천하(天河)의 팔만 수병을 다스리던 분이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법력이 없어 권렴대장 시절에 계율을 받고 수행 중인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른 일에는 서툴지 몰라도, 요괴를 잡고 도둑을 쫓으며,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다스리며, 바다를 뒤흔들고 강을 뒤엎는 일 따위는 한두 가지 능통합니다. 구름을 타고 바람과 비를 부르는 것이나, 별을 옮기고 달을 쫓는 일 같은 것은 그저 덤일 뿐이니, 굳이 입에 올릴 가치도 없습니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깊이 존경하며 삼장법사를 상석에 모시고는 연신 '노불(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였고, 사오정 일행에게도 모두 '보살'이라 불렀다. 조정의 문무백관은 기뻐하였고, 온 나라 백성들 또한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니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한편, 손오공과 저팔계는 광풍을 타고 두 마리의 작은 요괴를 낚아채 난석산 벽파담으로 날아갔다. 구름 위에 자리를 잡은 손오공이 여의봉에 선기(仙氣, 신선의 기운)를 한 입 훑 붙여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여의봉이 한 자루의 계도(戒刀)로 변했다. 손오공은 검은 물고기 요괴의 귀를 베고, 매기 요괴의 아랫입술을 싹둑 잘라 물속에 던져버리며 호통을 쳤다. “어서 가서 만성룡왕에게 전해라! 나 제천대성 손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고 말이다. 만성룡왕은 당장 제재국 금광사 탑에 있던 본래의 보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온 가족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게야. 만약 ‘싫다’는 소리라도 반 마디 내뱉는 날에는, 내가 이 연못 물을 모조리 휘저어 말려버려서 그 집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버리겠다!”

명령을 받은 두 요괴는 고통을 참으며 겨우 목숨을 건져, 쇠사슬을 길게 늘어뜨린 채 물속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지나가자 자라와 거북, 가재와 게, 물고기 정령들이 모두 몰려들어 에워싸며 물었다. “너희 둘은 왜 밧줄과 쇠사슬을 끌고 다니느냐?” 한 놈은 귀를 감싸 쥐고 꼬리를 흔들며 도망치고, 다른 한 놈은 입술을 움츠린 채 발을 헛디디며 가슴을 쳤다. 요괴들은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며 곧장 용왕의 궁전으로 달려가 외쳤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만성룡왕은 구두부마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온 두 요괴를 보고 잔을 멈추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요괴들이 대답했다. “어젯밤 순찰을 돌다가 당승과 손오공에게 붙잡혔습니다. 쇠사슬로 꼬꽂혀 묶여 있었지요. 오늘 아침 국왕을 뵈는데, 그 손오공과 저팔계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놈은 귀가 잘리고, 다른 한 놈은 입술이 잘린 채 물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보내 탐 꼭대기에 있는 보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요괴들은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고했다.

그 말을 들은 만성룡왕은 상대가 손오공, 즉 제천대성이라는 말에 혼비백산하여 뉘이 나갈 지경이 되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구두부마에게 말했다. “사위, 다른 이라면 어떻게든 대처해 보겠지만, 만약 정말 그자라면 상황이 좋지 않네.” 그러자 구두부마가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려서부터 무예를 좀 익혔고, 천하를 떠돌며 호걸들과 몇 번 겨뤘본 적도 있습니다. 그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딱 세 합만 겨루면, 그놈은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요괴였다! 구두부마는 서둘러 몸을 솟구쳐 무장을 갖추고, 월아산이라 불리는 병기를 들고 궁궐 밖으로 나섰다. 그는 물결을 가르며 수면 위로 나타나 크게 외쳤다. “제천대성이라는 자가 누구냐? 어서 나와서 목숨을 내놓아라!”

손오공과 저팔계는 강가에 서서 그 요괴가 어떻게 차려입었는지 지켜보았다.

“은빛 투구는 눈부신 백설처럼 빛나고, 갑옷은 서릿발처럼 서늘 퍼런 기운을 뿜어낸다. 비단 도포를 걸친 모습은 마치 채운이 옥을 감싼 듯하고, 허리에 두른 무소뿔 무늬 띠는 금빛 구렁이가 휘감은 듯 화려하다. 손에 든 월아산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돼지 가죽 장화를 신은 발짓에 물결이 갈라진다. 멀리서 보면 머리와 얼굴이 하나뿐인 듯하나, 가까이서 보니 사방이 모두 사람의 얼굴이다.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어 팔방을 꿰뚫어 보며, 왼쪽에도 입이 있고 오른쪽에도 입이 있어 아홉 개의 입이 동시에 떠든다. 그가 한 번 크게 호령하니 하늘이 진동하고, 학이 울며 구천을 뚫는 듯하다.”

대답하는 이가 없자, 구두부마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어떤 놈이 제천대성이냐?”

손오공은 금고아를 한 번 매만지고 여의봉을 고쳐 잡으며 말했다. “이 몸이 바로 손오공이다!”

그러자 요괴가 물었다. “너는 어디 사느냐? 어디서 왔기에 제재국까지 와서 국왕을 위해 탑을 지키느냐? 감히 내 두목을 붙잡고도 또 흥포하게 굴며, 내 보산(寶山)까지 찾아와 싸움을 거는 것이냐?”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도둑놈 요괴가, 알고 보니 이 손 할아버지를 몰라보는구나! 앞으로 나와 잘 들어라.

나의 고향은 화과산, 큰 바다 가운데 수렴동이다. 어릴 때부터 님아 불괴(不壞)의 몸을 이루니, 옥황상제께서 나를 제천대성에 봉하셨다. 다만 두우궁에서 크게 난동을 부리니, 천상의 못 신들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에 여래를 청해 오묘하고 높은 법을 펼치시니, 그 끝없는 지혜는 범상치 않았다. 근두운을 뒤집으며 신통을 겨루다, 여래의 손이 산으로 변해 나를 무겁게 눌렀다. 그렇게 오백 년을 지나, 관음보살의 권유로 비로소 목숨을 건졌다. 대당의 삼장법사가 서천으로 올라가, 멀리 영산을 참배하고 불경을 구하니, 내 몸을 벗어나게 해 그를 보호하며, 마귀를 단련하고 요괴를 없애며 수행을 따른다. 길에서 서역의 제재성을 만났는데, 승려 삼대(三代)의 목숨이 억울하게 해를 입었더라. 우리가 자비로이 옛 사정을 물으니, 바로 탑 위에 빛이 비치지 않은 탓이었다. 우리 스승께서 탑을 쓸며 분명히 살피시다, 밤이 삼경에 이르러 천지가 고요할 때 요괴를 붙잡아 신토를 받아내니, 너희가 보물을 훔쳤다고 하더라. 한패가 되어 도둑질한 데에는 용왕이 있고, 공주는 이름을 나란히 하여 만성이라 불린다. 피의 비를 탑 위 빛에 뿌리고는, 그 보물을 훔쳐다 쓴 것이다. 궁전 앞의 자백서에 거짓이 없으니, 나는 임금의 말을 받들어 이 땅에 달려왔다. 그래서 너를 찾아 싸움을 청하는 것이니, 다시 손 할아버지 이름을 물을 것 없다. 어서 보물을 그에게 돌려주어, 너희 온 가족 노소의 목숨을 보전하라. 감히 무지하게 강한 척 날뛰다면, 물이 마르고 산이 무너지도록 모두 곤경에 빠뜨려 주마.”

그 말을 들은 구두부마가 싸늘히 비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너는 경전을 구하러 가는 중이로구나. 쓸데없이 트집을 잡아 참견하는구나. 나는 저자의 보물을 훔쳤고, 너는 부처의 경문을 구하는 것이니, 너와 무슨 상관이라고 와서 싸우려 드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도둑 요괴가 참으로 도리를 모르는구나! 내가 비록 국왕의 은혜를 입은 것도, 그의 물과 쌀을 먹은 것도 아니어서 그를 위해 힘쓸 까닭은 없다. 하지만 네놈이 그의 보물을 훔쳐 보탑을 더럽히고, 여러 해 동안 금광사 승려들을 억울하게 괴롭혀 왔으니, 그들은 나와 한 가문의 같은 기운(같은 불문)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를 위해 힘써 이 억울함을 밝히지 않겠느냐?”

구두부마가 말했다. “네가 정 그렇다면, 끝내 겨뤄볼 셈이로구나. 흔히들 이르기를 ‘무예란 곱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싸움엔 인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손을 쓰기 시작하면 인정을 둘 수 없으니, 자칫 네 목숨을 상하게 하여 경전 구하러 가는 길을 그르칠까 걱정이로구나.”

손오공이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네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감히 입을 크게 벌리느냐? 어서 나와라, 내 몽둥이 맛을 보여주마!” 하지만 구두부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월아산을 들어 올려 철봉을 막아냈다. 난석산 꼭대기에서 두 사람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시로 이르되, 요괴가 보물을 훔쳐 탑의 빛이 사라지니, 제천대성이 요괴를 잡아 국왕의 은혜를 갚는구나. 작은 요괴는 목숨을 구하러 물속으로 도망가고, 늙은 용왕은 겁에 질려 대책을 논의하네. 구두부마는

위세를 떨치며, 갑옷을 갖춰 입고 용맹하게 나선다. 제천대성 손오공이 노여워하며, 금고아봉을 들어 힘차게 휘두르네. 그 요괴는 아홉 개의 머리에 열여덟 개의 눈을 가졌으니, 앞뒤로 번쩍번쩍 빛을 내뿜고, 손오공은 천근의 힘을 가진 무쇠 팔을 휘두르며, 상서로운 기운을 두르고 맞서 싸우네. 월아산은 갓 떠오른 달처럼 날카롭고, 철봉은 만 리에 내리는 서리처럼 매섭구나. 요괴가 외치길, "네 일도 아닌데 참견 말고 물러가라!" 손오공이 맞받아치길, "보물을 훔친 네놈이야말로 참으로 나쁜 놈이다!" "이 고약한 놈아, 까불지 마라. 보물을 돌려줘야 네놈이 무사할 것이다!" 몽둥이와 삽이 맞부딪치며 높낮이를 다투니, 승부를 가릴 길 없이 전쟁터가 되었구나.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싸움을 이어갔고, 서른 합 넘게 맞붙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저팔계가 산 앞에 서 있다가, 싸움이 한창 무르익은 것을 보고는 정저를 치켜들고 요괴의 등 뒤를 습격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요괴는 아홉 개의 머리가 모두 눈이라, 저팔계가 뒤에서 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요괴는 월아산 끝을 정저에 맞대어 막아냈다. 다시 대여섯 합을 더 싸웠으나 앞뒤로 휘두르는 공격을 막아 내지 못하자, 요괴는 몸을 굴려 공중으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본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구두충이었다. 그 형상이 너무나 흉악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듯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깃털은 비단처럼 화려하고 몸은 솜뭉치처럼 둥글구나. 크기는 한 길 두 자에 달하고, 길쭉한 몸은 악어와 닮았도다. 두 발끝은 갈고리처럼 날카롭고, 아홉 개의 머리는 한데 모여 있네. 날개를 펼치면 대붕도 부럽지 않을 만큼 잘 날며, 울음소리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

저 학보다 높구나. 눈에서는 금빛 광채가 번쩍이며, 기세는 보통의 새들과는 격이 다르도다.

저팔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형님! 제가 살다 살다 이런 흥측한 괴물은 처음 봅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짐승을 만들어 냈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 보기 드문 놈이구나. 내가 가서 혼내주마!" 손오공은 서둘러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 철봉을 머리 위로 내리쳤다. 요괴는 본모습을 드러낸 채 날개를 펴고 비스듬히 날아오르더니, 획 하고 몸을 돌려 산 앞으로 내려왔다.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머리 하나를 쑥 내밀어, 피가 낭자한 대접 같은 입을 벌려 저팔계의 갈기를 한입에 물고는 반쯤 끌어당기며 벽파담 물속으로 잡아채 가버렸다.

용궁 밖에 이르자 요괴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저팔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애들아, 모두 어디 있느냐!" 그러자 물속에 살던 고기 요괴들과 거북, 자라 요괴들이 떼를 지어 몰려나오며 대답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구두부마가 명령했다. "이 스님을 저기에 묶어 두어라. 내 정찰하던 부하들의 원수를 갚아줘야겠다." 요괴들이 웅성거리며 저팔계를 끌고 들어오자, 만성룡왕이 기뻐하며 마중 나와 물었다. "사위, 큰 공을 세웠구나! 어찌하여 이놈을 잡아왔느냐?" 구두부마가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자, 만성룡왕은 즉시 술을 차려 공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했다.

한편, 손오공은 요괴가 저팔계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속으로 겁이 났다. '저놈이 보통대기가 아니구나. 스승님께 돌아가 보고하자니 국왕께서 나를 비웃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곧장 싸움을 걸자니 나 혼자뿐

인 데다 물속 싸움에도 서투르니 어찌면 좋나. 우선 내가 변신해서 들어간 뒤에, 저 괴물이 저 멍청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자. 만약 기회가 되면 몰래 빼내어 일을 도모해야겠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게 한 마리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곧장 패루 앞까지 헤엄쳐 갔다. 사실 이 길은 예전에 우마왕을 습격해 금정수(金睛獸)를 훔치러 갔을 때 이미 익숙해진 길이었다.

손오공이 궁궐 아래까지 옆으로 기어갔을 때, 보니 만성룡왕과 구두충 일가가 모여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손오공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동쪽 복도 아래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새우 정령과 게 정령들이 떼를 지어 노는 모습이 보였다. 손오공은 잠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말투를 익힌 뒤, 슬쩍 말을 건넸다. “부마 어른께서 잡아 오신 그 입이 긴 스님은 지금 죽었소?”

그러자 정령들이 대답했다. “아직 안 죽었소. 서쪽 복도 아래에 묶여서 끙끙거리고 있는 놈이 바로 그놈 아니오?”

손오공은 이야기를 듣고 서쪽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기어갔다. 정말로 그 멍청한 저팔계가 기둥에 묶인 채 끙끙거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팔계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저팔계는 목소리만 듣고도 손오공인 줄 알고 대답했다.

“형님, 어찌 된 일이에요? 도리어 제가 저놈한테 붙잡히고 말았지 뭐예요.”

손오공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빨로 밧줄을 끊어 주며 어서 가라고 일렀다. 결박에서 풀려난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무기는 그놈이 가져가 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죠?”

“그 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느냐?”

손오공이 묻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 괴물이 궁전 안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너는 먼저 저 문루 아래에서 나를 기다려라.”

손오공의 말에 저팔계는 얼른 도망치듯 살금살금 빠져나갔다. 손오공은 다시 몸을 움직여 궁전 위로 올라가 살폈다. 왼쪽 아래에서 번뜩이는 빛이 났는데, 바로 저팔계의 쇠스랑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손오공은 은신술을 써서 쇠스랑을 몰래 훔쳐낸 뒤, 문루 아래로 내려가 외쳤다.

“팔계야, 무기를 받아라!”

무기를 받아 든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형님은 먼저 피하세요. 이 못난 돼지가 궁전으로 쳐들어갈 테니까요. 만약 이기면 그놈 식구들을 통째로 잡아버릴 거고, 만약 지게 되면 도망쳐 나올 테니 형님은 여기 연못가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손오공은 기뻐하며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저팔계가 호기롭게 말했다.

“그놈이 무섭긴요. 물속에서 싸우는 건 저도 제법이라고요.”

손오공은 저팔계를 내버려 두고는 아무 말 없이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한편, 저팔계는 검은 도포를 갖춰 입고 두 손으로 정저를 움켜쥔 채,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 기세에 눌린 물속의 수많은 물고기와 괴물들이 혼비백산하여 궁전으로 도망치며 외쳐댔다. “큰일 났다! 입이 커다란 스님이 밧줄을 꿸고 다시 쳐들어온다!”

만성룡왕과 구두충, 그리고 그 일가족은 전혀 손쓸 겨를도 없이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이리저리 숨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저팔계는 죽고 사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궁전으로 난입하여, 가는 곳마다 정저를 휘둘러댔다. 문짝을 부수고 탁자와 의자를 박살 냈으며, 술상에 차려진 음식과 집기류를 모조리 때려 부수었다. 이를 시로 이르되,

나무의 정기를 품은 어머니는 물괴물에게 붙잡히고, 심원(心猿, 마음속의 원숭이)은 포기하지 않고 괴로이 찾아다니네. 몰래 묘책을 써서 자물쇠를 열어젖히니, 신통력을 크게 떨치며 깊은 분노를 터뜨리도다. 사위는 급히 공주를 데리고 숨기에 바쁘고, 용왕은 전율하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네. 수중 궁궐의 붉은 문과 창문은 모두 부서지고, 용의 자손과 손자들은 혼비백산하였구나.

이 난리통에 저팔계는 거북등으로 만든 병풍을 가루로 만들고, 산호 나무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구두충은 공주를 안으로 급히 숨겨두고는, 월아산을 챙겨 들고 앞궁으로 달려 나가 호통을 쳤다. “이 천한 돼지 놈아! 네놈이 감히 내 가족을 겁주어 괴롭히다니!”

그러자 저팔계가 맞서며 욕을 퍼부었다. “이 요괴 놈아, 네가 감히 나를 잡아 왔느냐? 이 일은 내 알 바 아니지만, 네가 나를 불러 싸움을 건 것이니 어쩔 수 없구나. 당장 보물을 내놓고 국왕께 가서 일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의 목숨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

요괴가 어찌 용서를 구하겠는가. 그는 이를 악물고 저팔계와 격렬하게 맞붙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만성룡왕이 용자와 용손들을 거느리고 창과 칼을 든 채 일제히 공격해 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팔계는 쇠갈퀴를 휘둘러 위협하며 몸을 빼서 재빨리 도망쳤다. 만성룡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그 뒤를 쫓았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물속에서 튀어나와 연못 위로 올라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한편, 손오공은 연못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괴들이 저팔계를 뒤쫓아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손오공은 곧장 구름을 밟고 솟구쳐 올라가 철봉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게 서라!"

단 한 번의 휘두름에 늙은 용의 머리가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다. 가련하게도 튀어 오른 피가 연못을 붉게 물들였고, 부서진 용의 사체와

떨어진 비늘들이 물결을 타고 떠다녔다. 겁에 질린 용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고, 구두부마는 용의 시체를 거두어 궁궐로 돌아갔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더 쫓아가지 않고 육지로 돌아와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저놈 기세가 아주 꺾였어. 내가 정저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을 때, 아주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 부마 녀석과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늙은 용왕이 쫓아오는 바람에 죽을 뻔했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놈들이 돌아가면 분명히 상이라도 치르며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안 나올 텐데, 벌써 날도 저물었으니 이제 어찌면 좋냐?"

손오공이 말했다. "날이 저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 기회에 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공격해. 반드시 보물을 찾아내야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게으르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저팔계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미루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다그치며 말했다. "형제여, 의심할 것 없다. 아까처럼 저놈을 밖으로 유인해 내기만 해. 그다음은 내가 때려눕힐 테니까!"

두 사람이 한창 상의를 하던 중,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자욱한 안개가 음산하게 피어오르더니 동쪽에서 남쪽으로 무섭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이랑진군이 매산의 여섯 형제를 거느리고 몰려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와 사냥개를 데리고, 여

우와 토끼를 쫓아지며, 노루와 사슴을 메고 있었다. 모두가 허리에는 활을 차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든 채, 바람과 안개를 가르며 힘차게 달려왔다.

손오공이 말했다. “팔계야, 저들은 나의 칠성(七聖) 형제들이니, 꼭 붙잡아 청해서 나와 함께 싸우게 하자. 이번에 성공한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야.”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제들이라면 마땅히 붙잡아 모셔야지요.”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저들 중에는 이랑진군 형님이 계시는데, 나는 예전에 그에게 제압당한 적이 있어서 차마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구나. 네가 가서 구름을 막아 세우고 이렇게 외쳐라. ‘진군이시여,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제천대성이 이곳에서 문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멈출 것이다. 그가 안정을 찾은 뒤에 내가 나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 멍청이(저팔계)가 급히 구름을 타고 산 위로 올라가 길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진군님, 수레를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제천대성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랑진군은 즉시 명령을 내려 여섯 형제를 멈춰 세웠다. 저팔계와 인사를 나눈 이랑진군이 물었다. “제천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저팔계가 대답했다. “지금 산 아래에서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랑진군이 말했다. “형제들아, 어서 가서 모셔 오너라.”

그러자 강, 장, 요, 이, 광, 직이라는 이름의 여섯 형제가 각자 진영에서 나와 외쳤다. “손오공 형님, 큰형님께서 모셔 오라 하십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와 일행에게 예를 갖춘 뒤 함께 산 위로 올라갔다. 이랑진군은 손오공을 마중 나와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대성, 큰 난관을 벗어나 승려의 계율을 받더니, 이제 곧 공덕을 다하고 높은 연화좌에 오르겠구나. 참으로 축하할 일이네, 축하해!”

손오공이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입었으나, 아직 잠시의 보답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난관을 벗어나 서쪽으로 길을 떠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수행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재국을 지나던 길에 승려들에게 닥친 재앙을 돕고자, 이곳에서 요괴를 잡아 보물을 되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형님의 행차를 보고 무례를 무릅쓰고 멈춰 달라고 청했습니다. 형님께서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인지, 저희를 만나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랑진군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한가한 차에 형제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네. 대성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옛 정이 느껴져 참으로 고맙군. 만약 요괴를 잡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한다면, 어찌 명령을 거역하겠나? 그런데 이곳에는 어떤 요괴가 나타난 것인가?”

여섯 형제가 대답했다. “큰형님, 잊으셨습니까? 이곳은 난석산이며, 산 아래는 벽파담에 있는 만성룡왕의 용궁입니다.”

이랑진군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만성룡왕이 평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니, 어찌 감히 탐의 보물을 훔쳤단 말인가?”

손오공이 설명했다. “그가 최근에 사위를 하나 들었는데, 바로 구두충이 요괴로 변한 자입니다. 그 사위와 장인 두 사람이 짜고 도둑질을 하여 제재국에 피비린내 나는 비를 내리게 했고, 금광사 탐 꼭대기에 있는 사리 불보(佛寶)까지 훔쳐 갔습니다. 국왕은 영문을 몰라 승려들을 붙잡아 고문하며 애를 태웠지요. 다행히 자비로운 저희 스승님이 밤에 탐을 쏴며 살피러 가셨다가, 제가 탐 위에서 순찰하던 작은 요괴 두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놈들이 오늘 아침 조정으로 압송되어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에 국왕이 스승님께 항복을 청했고,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이곳으로 가보라고 명하셨습니다. 한바탕 싸우는 중에 구두충이 허리춤에서 머리를 쑥 내밀어 저팔계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신해 물속으로 들어가 저팔계를 구해냈지요. 그 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제가 그 늙은 용왕을 때려죽이는 바람에 놈들이 시신을 거두고 상을 치르러 갔습니다. 저희 둘이 다시 싸울 준비를 하던 중에 형님의 행차를 뵈게 되어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랑진군이 말했다. “이미 용왕을 죽였다면, 이번 기회에 놈들을 몰아붙여 틈을 주지 말고 아예 둥지까지 통째로 끌어버리는 게 어떻겠나?”

저팔계가 거들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벌써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찌면 좋습니까?”

이랑진군이 호쾌하게 말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전쟁은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네. 날이 저무는 게 무엇이 두렵겠나?”

강, 요, 광, 직도가 말했다. "형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놈의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 도망갈 곳도 없을 것입니다. 손 형님도 귀한 손님이시고, 저팔계도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하들에게 시켜서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여 여기서 바로 상을 차리겠습니다. 두 분의 경사를 축하드리는 자리이자, 오랜만에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싸움은 내일 해가 뜨면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랑진군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현제의 말이 아주 옳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여러분의 정성이 지극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제가 스님이 된 뒤로는 늘 재계(齋戒, 음식을 가려 먹음)를 하고 있어, 고기 음식을 먹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랑진군이 대답했다. "채소와 과일도 충분하고, 술도 채식용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하여 형제들은 별빛과 달빛 아래,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자리 삼아 잔을 높이 들고 옛 정을 나누었다.

즐거움이 지나가니 외로움은 더 길게 느껴지고, 환희에 찬 밤은 짧게만 지나갔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다. 술을 몇 잔이나 들이켜 기분이 한껏 들뜬 저팔계가 말했다.

"날이 밝았으니, 이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 한판 붙어봐야겠구나!"

그러자 이랑진군이 말했다.

"원수님, 조심하십시오. 일단 저놈을 밖으로 유인해내기만 하면, 우리 형제들이 손을 쓰기 좋을 것입니다."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알고 말고, 다 안다니까!"

저팔계는 옷을 추스르고 정저를 챙기더니, 물을 가르는 법술을 부려 곧장 누각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전각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때 용의 아들은 삼베옷을 걸친 채 용왕의 시신을 보며 울고 있었고, 용의 손자와 구두부마는 그 뒤에서 관을 정리하고 있었다. 저팔계가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어 정저를 휘두르자, 정저 끝이 용의 아들을 덮쳐 머리부터 몸통까지 아홉 개의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 광경을 본 용파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도망치며 울부짚었다.

"입 큰 중놈이 또 내 자식을 때려죽였구나!"

그 부마는 말을 듣자마자 월아산을 휘두르며 용손(龍孫)을 데리고 밖으로 살기등등하게 쳐들어왔다. 저팔계가 쇠스랑을 들어 맞서 싸우며 물 밖으로 뛰어올라 후퇴하자, 육지에서 기다리던 손오공과 일곱 형제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들이 창과 칼로 마구 찢러대니, 용손은 순식간에 고깃덩어리처럼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부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산 앞에서 한 바퀴 구르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랐다. 이랑진군이 즉시 금활을 꺼내 은탄을 끼우고 활시위를 팽팽히 당겨 위를 향해 쏘았다. 요괴가 급히 날개를 퍼덕이며 이랑진군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할 때, 허리춤에서 머리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그때 이랑진군의 사냥개인 세견(細犬)이 잽싸게 달려들어 왈각 물어뜯으니, 그 머리가 피칠갑이 된 채 떨어져 나갔다. 요괴는 큰 상처를 입고 목숨을 건진 채 북해로 달아나 버렸다.

저팔계가 곧장 뒤쫓으려 하자, 손오공이 그를 만류하며 말했다.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어. ‘궁지에 몰린 적은 쫓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 머리를 물린 걸 보니 살아남기 힘들 거야. 대신 내가 저놈의 모습으로 변신할 테니, 너는 물길을 갈라 나를 쫓아 안으로 들여보내 주렴. 가서 공주를 찾아낸 다음 보물을 속여서 빼앗아 오겠다.”

이랑진군과 여섯 형제가 말했다. “쫓아가지 않는 것도 괜찮지만, 저런 놈을 세상에 남겨두면 반드시 후대에 해를 끼칠 것이니 아쉽구나.”

지금까지도 피를 떨구는 구두충(머리 아홉 달린 새)이 있다고 하니, 바로 그 잔재가 남은 셈이다.

저팔계는 말한 대로 물길을 갈라 길을 만들었다. 손오공은 괴상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앞장서 달렸고, 저팔계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뒤를 쫓았다. 점점 용궁에 다다르니, 만성공주가 말했다.

"서방님, 어찌 이리 당황하여 허둥대시나요?"

손오공이 말했다.

"저팔계가 승기를 잡고 나를 이 안으로 몰아넣었소.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으니, 어서 보물을 잘 숨겨 주시오."

공주는 급히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겨를도 없이, 곧장 후전으로 달려가 황금빛이 도는 상자 하나를 꺼내 손오공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불보입니다."

그러고는 또 백옥 상자 하나를 꺼내 손오공에게 건네며 덧붙였다.

"이것은 구엽영지입니다. 이 보물들을 가져가서 숨겨 두세요. 내가 저팔계와 두세 합 정도 싸우며 시간을 벌 테니, 당신은 보물을 잘 챙겨 둔 다음에 다시 나와서 맞서 싸우시오."

손오공은 두 상자를 몸에 품고는 얼굴을 숙 문질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공주, 나를 보고도 서방님인지 모르겠소?"

공주는 혼비백산하여 상자를 되찾으려 했으나, 뒤쫓아온 저팔계가 달려들어 정저로 공주의 등을 내리쳤고, 공주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또 다른 늙은 용파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하자, 저팔계가 그녀를 붙잡고는 정저를 휘둘러 내리치려 했다. 그때 손오공이 말했다.

"잠깐, 죽이지 마라. 살려두어야 나중에 나라에 가서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러고는 용파를 물 밖으로 끌어 올렸다.

손오공은 뒤이어 보물 상자 두 개를 받쳐 들고 물 위로 올라와 이랑진군에게 말했다. "형님의 위력이 대단한 덕분에 보물을 되찾고 요괴를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랑진군이 대답했다. "첫째는 그 나라 국왕의 복이 하늘과 같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네의 신통력이 끝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나?" 곁에 있던 신선들도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손오공 형님이 이미 대업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손오공은 고마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커서 그들과 함께 국왕을 뵈러 가자고 청했다. 하지만 신선들이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은 무리를 이끌고 관구로 돌아갔다.

손오공은 상자를 받쳐 들고, 저팔계는 용파를 끌고 구름과 안개 사이를 지나 순식간에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마침 금광사의 해탈 스님들이 모두 성 밖에서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구름과 안개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와 절을 올린 뒤, 이들을 성 안으로 안내했다.

그 시각, 국왕과 삼장법사는 대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먼저 길을 떠났던 스님이 용기를 내어 조정으로 들어가 고했다. "폐하, 손 대인과 저 대인께서 도둑을 잡고 보물을 되찾아 돌아오셨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국왕은 급히 대전에서 내려와 삼장법사, 사오정과 함께 이들을 맞이했다. 국왕은 신통한 공덕이 끝이 없다며 감사를 표하

고, 즉시 잔치를 베풀어 은혜에 보답하려 했다. 그러자 삼장법사가 말했다. "술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탑에 있어야 할 보물을 제 자리에 갖다 놓게 한 뒤에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삼장법사가 다시 손오공에게 물었다. "너희가 어제 나라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오늘에서야 돌아왔느냐?"

손오공은 구두부마와 싸운 일, 용왕을 때려눕힌 일, 이랑진군을 만난 일, 요괴를 물리친 일, 그리고 가짜 보물로 변신해 속인 일까지 그간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삼장법사와 국왕, 그리고 조정의 문무백관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용파가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용왕의 아내로서 용의 자식과 손주를 수없이 낳았는데, 어찌 사람의 말을 모르겠습니까?”

국왕이 말했다. “사람 말을 할 줄 안다면, 앞뒤로 도둑질을 저지른 내막을 어서 말해 보아라.”

그러자 용파가 말했다. “부처님의 보물을 훔친 일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모두 제 남편인 용귀와 사위인 구두충이, 당신의 탑에 있는 빛이 부처님의 사리라는 것을 알고는 3년 전 피비가 내린 틈을 타 훔쳐 간 것입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럼 영지초는 어떻게 훔쳤느냐?”

용파가 대답했다. “그건 제 딸인 만성공주가 대라천 영소전 앞으로 몰래 들어가 왕모 마마의 구엽영지초를 훔친 것입니다. 그 사리는 이 영지초의 신령한 기운으로 보살핌을 받아 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만 년이 지나도 빛을 냅니다. 땅바닥이나 밭에 그 영지초로 한 번 쓸기만 해도 만 갈래 노을빛과 천 갈래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물을 빼앗기니, 제 남편은 죽고 자식은 끊겼으며 사위는 잃고 딸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저팔계가 말했다. “절대 안 살려 줄 거다!”

손오공이 말했다. “한 집안 사람이 모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 네가 네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 대신 네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대신해 탑을 지켜야겠다.”

용파가 말했다. “곱게 죽느니 구차하게라도 사는 편이 낫지요. 목숨만 살려 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쇠사슬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관리가 즉시 쇠사슬 한 줄을 가져와 용파의 비파골(어깨뼈)을 꿰어 버렸다. 그러고는 사오정에게 말했다. “국왕께 우리를 따라와 탑을 안치하는 것을 보시라고 해라.”

국왕은 즉시 행차를 준비하여 삼장법사와 손을 잡고 조정에서 나왔다. 문무백관들도 모두 뒤를 따라 금광사로 향했다. 손오공은 탑 위로 올라가 사리를 13층 탑 꼭대기에 있는 보물병 한가운데에 안치하고, 용파를 탑 중앙 기둥에 묶어 두었다. 그러고는 주문을 외워 그 나라의 토지신과 성황신, 그리고 금광사의 사찰을 지키는 가람신들을 불러냈다. 손오공은 그들에게 명하기를, “사흘에 한 번씩 음식 한 끼를 가져

다 용파의 입에 넣어 연명하게 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즉시 처단하겠다”라고 엄히 일렀다. 신들은 암묵적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어 손오공은 영지를 가져다가 13층 탑의 각 층을 구석구석 쓸어내듯 바른 뒤 보물병 안에 넣어 사리를 따뜻하게 보살폈다. 그러자 탑은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말끔해졌고, 만 갈래의 노을빛과 천 갈래의 상서로운 기운이 뿔어져 나와 다시금 팔방이 함께 보고 사방의 나라가 함께 우러러보게 되었다. 탑에서 내려오자 국왕이 감격하며 말했다.

“노불(삼장법사)과 세 분 보살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금광'이라는 두 글자는 좋지 않습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지요. 금은 흘러 다니는 것이요, 빛은 번쩍이다 사라지는 기운일 뿐입니다. 이 빈승이 폐하를 위해 애를 썼으니, 이 절의 이름을 '복룡사'로 바꾸어 폐하의 나라가 영원토록 번창하게 하소서."

그러자 국왕은 즉시 절의 이름을 바꾸어 '칙건호국복룡사'라는 새 현판을 걸게 했다. 한쪽에서는 임금의 잔치를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공을 불러 네 명의 수행자의 모습을 그리게 한 뒤 오봉루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올렸다. 국왕은 수레를 내어 당승 일행을 배웅하며 금과 옥을 내려 보상하려 했으나, 스승과 제자들은 정중히 거절하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사악한 요괴를 물리치니 온 세상이 고요하고, 보물 탑에 빛이 돌아 대지가 밝게 빛나도다."

결국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4회 — 형극령에서 능력을 깨달아 힘 써 노력하고, 목선암에서 삼장이 시를 논 하다

荊棘嶺悟能努力 木仙庵三藏談詩

제재국왕은 보물을 되찾고 요괴를 잡은 당삼장 일행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과 옥을 선물했으나, 일행은 이를 조금도 받지 않았다. 대신 국왕은 명령을 내려, 일행이 평소 입는 옷과 똑같은 것을 두 벌씩 만들고 신발과 버선도 두 켤레씩, 허리띠와 장식도 두 개씩 준비하게 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마른 음식도 넉넉히 챙기고 통관문첩(여행 허가증)도 새로 교체해 주었다. 국왕은 화려한 행렬을 꾸미고 문무백관과 성안의 모든 백성, 그리고 복룡사의 승려들까지 불러 모아 악기를 크게 울리며 일행을 성 밖까지 배웅했다.

한 20리쯤 갔을 때 일행은 먼저 국왕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사람들은 다시 20리를 더 따라오며 작별을 나누었다. 복룡사의 승려들은 50~60리나 되는 먼 길을 따라오며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함께 서천으로 가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스승님을 모시며 수행하겠다고 매달렸다.

손오공이 보니 다들 도무지 돌아갈 기미가 없었다. 이에 손오공은 수단을 부려 자신의 털을 서른에서 마흔 가닥 정도 뽑은 뒤,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뽑은 털들이 모두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 앞길을 가로막고는 포효하며 날뛰기 시작했다. 승려들은 겁에 질려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제야 손오공은 스승을 이끌고 말을 달려 떠났고, 순식간에 멀리 달아났다. 뒤에 남겨진 승려들은 목놓아 울며 소리쳤다.

"은혜롭고 의리 넘치는 어르신들! 저희와는 인연이 없으시다니, 저희를 제도해주지 않으시다니요!"

승려들이 울며 매달리는 일은 차치하고, 이야기는 이렇다.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이 큰길로 나서서야 비로소 손오공이 뽑아 놓았던 털들을 거두어들이고 다시 서천을 향해 길을 떠났다. 마침 계절이 바뀌어 늦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온 때라,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아 길을 가기에 딱 좋았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게 뻗은 고개가 나타났는데, 고개 꼭대기로 길이 이어져 있었다. 삼장이 말을 멈추고 살펴보니, 고개 위에는 가시덤불과 엉쿨이 엉켜 뒤엉켜 있었다. 길의 흔적은 남아 있었으나, 길 양옆은 온통 날카로운 가시와 덩굴뿐이었다.

삼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제자들아, 이 길을 대체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못 갈 게 무엇 있습니까?” 그러더니 다시 덧붙였다. “스승님, 길은 아래에 있고 가시덤불은 위에 덮여 있습니다. 뱀이나 벌레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 기어간다면 모를까, 우리가 걸어가려 하면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을 텐데, 제가 어떻게 말을 태워 드린단 말입니까?”

저팔계가 나섰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갈퀴질하듯 힘을 써서 가시덤불을 싹 헤쳐 놓겠습니다. 말을 타는 건 물론이고, 가마를 메고 가더라도 문제없게 해 드리지요.”

삼장이 말했다. “네가 힘은 좋지만, 가는 길이 멀면 금방 지칠 게다. 게다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리 힘을 쓰려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의논할 것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오지요.”

손오공이 몸을 휙 날려 공중으로 뛰어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눈앞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이리하였다.

시로 이르되, 땅끝과 하늘 끝이 맞닿아 안개와 비가 엉겨 있고, 길가에는 부드러운 풀들이 어지럽게 깔렸으며, 온 산에는 푸른 잎들이 덮개처럼 펼쳐졌구나. 뽕뽕하게 돌아난 새잎들은 서로 엉겨 있고, 꽃향기 머금은 덩굴들은 서로를 붙잡네. 멀리 바라보니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가까이 보니 마치 푸른 구름이 몰려오는 듯하구나. 풀과 나무는

무성하고 울창하며, 바람 소리는 쓸쓸히 들리고 햇빛은 눈부시게 비치네. 그 사이로 소나무와 잣나무, 대나무가 있고, 매화와 버들, 뽕나무도 가득하구나. 넝쿨은 고목을 휘감고, 덩굴은 버드나무를 감싸며, 마치 틀을 짠 듯, 침상처럼 얹히고설켰네. 어디선가 꽃이 피어 비단처럼 아름답고, 이름 모를 꽃들은 멀리까지 향기를 내뿜는구나. 사람 사는 세상에 가시밭길을 겪지 않는 이 없건만, 어찌 서천 가는 길에 이토록 가시가 길게 뻗어 있단 말인가?

손오공은 한참 동안 구경을 마치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말했다.
“스승님, 갈 길이 아주 멀니다.”

삼장이 물었다. “얼마나 멀기에 그러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아마 천 리는 족히 되어 보입니다.”

삼장이 깜짝 놀라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도 들판을 태우는 법을 배웠으니, 불을 한 번 크게 질러서 가시덤불을 싹 태워 버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팔계가 말을 가로막았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들판을 태우려면 열 달쯤 지나서 풀이 마르고 나무가 시들어야 불이 잘 붙는 법이다. 지금은 한창 무성한 철인데 어떻게 태운단 말이냐?”

손오공이 거들었다. “태울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놀라 달려올까 봐 걱정이다.”

삼장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이 난관을 어찌 헤쳐 나가야 하겠느냐?”

저팔계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잘 지나가고 싶으시면,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 멋들어진 멍청이(저팔계)는 결(訣)을 짚고 주문을 외우더니, 허리를 한 번 굽히며 "커져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저팔계의 몸이 순식간에 이십 장(약 60m) 높이로 쑥 커졌다. 이어 손에 든 쇠갈퀴를 한 번 휘두르며 "변해라!" 하고 외치니, 갈퀴 자루가 서른 장(약 90m) 길이로 길게 늘어났다. 저팔계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며 양손으로 갈퀴를 휘둘러 가시덤불을 좌우로 헤쳐 나갔다.

"스승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당삼장은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백룡마를 몰아 저팔계의 뒤를 바짝 따랐다. 사오정은 짐을 짊어지고 뒤따랐고, 손오공 역시 여의봉을 휘둘러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쳐내며 거들었다. 일행은 그날 하루 종일 손을 멈추지 않고 백 리 남짓을 나아갔다.

어느덧 날이 저물 무렵, 길가에 탁 트인 빈터가 나타났다. 그곳 길 위에는 커다란 돌비석 하나가 서 있었는데, 비석 위에는 '형극령'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시덤불이 팔백 리나 뻗

어 있어, 예부터 길이 있으나 다니는 이는 적도다'라는 열네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 돼지 저팔계가 여기에 두 구절을 더 보태야겠군요. '오늘부터 저팔계가 길을 뚫으니, 서천으로 가는 길이 끝까지 평탄하리라!'"

당삼장은 기뻐하며 말에서 내려 말했다.

"제자들아, 너희도 많이 지쳤겠구나.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자꾸나."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 머물지 마세요! 날도 아직 맑고 기운도 넘치는데, 오늘 밤에 아예 길을 다 터버리고 가버립시다!"

당삼장은 어쩔 수 없이 저팔계의 뜻에 따랐다.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서 길을 닦자, 스승과 제자들은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하루 낮과 밤을 꼬박 쉬지 않고 달려가니 어느덧 다시 날이 저물어 갔다. 앞을 보니 덩불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소나무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행히 또 한 구역의 빈터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 오래된 사당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당 문밖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푸름을 머금고, 복숭아꽃과 매화꽃이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당삼장이 말에서 내려 세 제자와 함께 살펴보니, 그 풍경이 이러했다.

바위 앞 옛 사당은 차가운 시냇물에 기대어 있고, 눈길 닿는 곳마다 황량한 안개가 폐허를 감싸네. 흰 학이 노니는 숲속에는 긴 세월이 깊게 배어 있고, 무성한 풀 우거진 대 아래에는 봄과 가을이 스스로 흐르네. 푸른 옥패 흔들리듯 대나무가 흔들리니 말소리인가 의심스럽고, 새들의 지저귀는 남은 여운처럼 시름을 읊는 듯하구나. 닭과 개조차 드물고 사람 흔적도 거의 없는데, 한가로운 꽃과 들녘쿨만이 담장 위를 휘감고 있네.

손오공이 이를 보고 말했다. "이곳은 길한 기운보다 흉한 기운이 많으니,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사형, 너무 의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적으로 꿇긴 곳에 괴물이나 요괴, 이상한 새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더니, 사당 문 뒤에서 노인 한 명이 나타났다. 노인은 각건을 머리에 쓰고 열은 색 옷을 입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은 모습이었다. 그 뒤에는 얼굴은 푸르고 송곳니가 솟았으며, 붉은 수염에 몸은 붉은 귀신 하나가 머리에 찢은 떡 한 판을 이고 따르고 있었다. 귀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대성님, 소신은 형극령의 토지신입니다. 대성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알았으나 제대로 대접할 길이 없어, 특별히 찢은 떡 한 판을 준비하여 스승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팔백 리에 달하는 땅이라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그저 허기를 달래는 정도로 드셔 주십시오."

저팔계는 신이 나서 앞으로 나가 손을 뻗어 떡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기에, 크게 호통을 쳤다. "게 멈춰라! 이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네놈이 무슨 토지신이라고 이 손오공을 속이려 드느냐? 내 몽둥이를 맛봐라!"

노인은 손오공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몸을 획 돌리더니 한 줄기 음산한 바람으로 변했다. 그러더니 '휘익' 소리와 함께 삼장법사를 낚아채 데리고는 허공으로 두둥실 떠올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손오공은 황망히 쫓았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안색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았고, 백룡마 또한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세 형제와 말까지 넷이 정신없이 멀리 높은 곳까지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떨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앞뒤로 찾아보아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한편, 노인과 귀신은 당삼장을 안개와 노을이 어린 돌집 앞으로 데려가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부축하며 다정하게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 두려워 마십시오. 저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곳 형극령의 십팔공(十八公)이라 합니다. 바람이 맑고 달빛이 갠 이 밤을 맞아, 스님을 모시고 벼들과 시를 나누며 정취를 풀고자 청한 것뿐입니다." 그제야 마음을 진정한 당삼장은 눈을 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은 참으로 이려하였다.

아득한 구름이 머무는 곳, 맑고 깨끗한 선계의 집이로다. 몸을 깨끗이 하여 수련하기 좋고, 대를 심고 꽃을 가꾸기에 딱이로다. 바위 위에는 학이 날아오고, 늪가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 들리네. 천대(天臺)의

단약 가마보다 낮고, 화악산의 밝은 노을을 기약하네. 구름을 일구고 달을 낚는다니, 이곳의 은거함은 자랑할 만하구나. 오래 앉아 있으니 깊은 회포는 바다와 같고, 희미한 달빛은 창살 위로 비치네.

당삼장이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 달빛이 밝아지며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모두 "십팔공께서 성스러운 스님을 모셔왔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삼장이 고개를 들어 보니 세 명의 노인이 서 있었다. 첫 번째 노인은 서리가 내린 듯 고결한 풍채를 지녔고, 두 번째 노인은 푸른 머리카락이 멋스럽게 늘어져 있었으며, 세 번째 노인은 속이 비고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모습과 옷차림이 달랐으나 모두 당삼장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당삼장도 답례하며 말했다. "제자가 무슨 덕행이 있다고, 이토록 여러 신선 어른들께서 저를 아끼며 왕림하셨습니까?" 십팔공이 웃으며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께서 도를 지니셨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오늘 다행히 뵙게 되었습니다. 부디 귀한 말씀을 아끼지 마시고 편히 앉아 회포를 나누어 주신다면, 스님의 참된 선기(禪機)의 종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삼장이 몸을 굽히며 물었다. "감히 신선님들의 존함을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십팔공이 대답했다. "서리 내린 듯한 풍채를 가진 이는 고직공(孤直公)이라 하고, 푸른 머리칼을 가진 이는 능공자(凌空子)라 하며, 속이 빈 이는 불운수(拂雲叟)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는 경절(勁節)이라 합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네 분 신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직공이 시로 답했다.

내 나이 어느덧 천 살을 넘겼으니, 하늘을 떠받친 잎사귀는 사계절 내내 푸르구나. 향기로운 가지는 용과 뱀처럼 굽이치고, 겹겹이 드리

운 그림자는 서리 맞은 몸 같도다. 어릴 때부터 강직하여 늙도록 견뎌왔으니, 이제는 곧은 마음으로 참된 도를 닦노라. 봉황이 깃들고 까마귀가 쉬어가는 비범한 곳, 세속의 먼지를 멀리하고 울창하게 서 있네.

능공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 또한 천 년 세월 동안 풍파를 견뎌왔으니, 곧은 줄기와 영험한 가지에 힘이 절로 굳세구나. 밤이 고요하면 빗방울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가을날 맑게 개면 구름처럼 그늘을 드리우네. 서린 뿌리는 이미 장생의 비결을 얻었으니, 하늘의 명을 받아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 학을 머물게 하고 용으로 화하는 비범한 존재로서, 푸르고 시원하게 선향(仙鄉)과 가까이 있노라.

불운수가 웃으며 말했다. 추운 겨울을 헛되이 천 년을 지내왔으나, 노경은 시원스럽고 맑으며 더욱 그윽하구나. 시끄러운 속세에 섞이지 않아 끝내 담백하고, 서리와 눈을 실컷 겪어 절로 풍류를 아네. 죽림칠현과 벗 되어 함께 도를 논하고, 죽계육일과 어울려 함께 시를 주고받노라. 옥을 두드리고 쇠를 울리는 듯하니 자질구레하지 않고, 타고난 본성으로 신선과 노니는구나.

경절, 즉 십팔공이 웃으며 말했다. 나 또한 천 년의 세월을 넘겼으니, 푸르고 곧고 빼어난 모습이 한결같도다. 비와 이슬이 길러낸 힘이 어여쁘고, 천지의 조화의 기틀을 빌려 자라났구나. 온 골짜기의 바람과 안개 속에 오직 나만이 무성하고, 사계절 시원스러움은 내가 으뜸으로 펼치네. 푸른 그림자를 넓게 펼쳐 선객을 머물게 하고,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고르며 도서를 강론하노라.

당삼장이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네 분 신선께서 모두 장수하셨으나, 경절 어르신께서는 천 년을 훌쩍 넘기셨군요. 높은 연세에 도를 얻으시고 풍채가 청아하시니, 한나라 때의 '사호(四皓, 상산의 네 현자)'가 아니신지요?" 네 노인이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사호가 아니라 깊은 산속의 '사조(四操)'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성스러운 스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당삼장이 합장하며 몸을 굽혀 대답했다.

마흔 해 전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으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목숨을 구하려 물에 떠내려가 물결 따라 굴렀으나, 다행히 금산(金山)을 만나 본래 몸을 건졌지요. 성품을 기르고 경전을 읽는 데 게으름이 없었으며, 정성으로 부처님을 뵈며 감히 잠시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황상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가던 길에, 신선님들의 아끼심을 입어 이렇게 왔습니다.

네 노인이 모두 감탄하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불교의 길을 따르셨으니, 과연 어려서부터 수행을 쌓아 참으로 도가 깊고 바른 으뜸가는 승려이십니다. 저희가 다행히 존안을 뵈게 되었으니, 감히 큰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디 선법(禪法)으로 한두 가지라도 일깨워 주신다면 평생의 위안이 되겠습니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담하게 대중에게 말했다. "선(禪)이란 고요함이며, 법(法)이란 건너가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의 건너감은 깨달음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을 씻고 번뇌를 없애며, 속세를 벗어나 티끌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얻기 어렵고, 중토(中土)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바른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니,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추었다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습니다. 지극한 덕과 오묘한 도는 아득하고 형체가 없으니, 육근(六根)과 육식(六識)을 마땅히 쓸어 없애야 합니다. 보리(菩提)란 죽지도 나지도 않고,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공(空)과 색(色)을 두루 아우르니, 성인과 범인을 다 같이 떨쳐 버립니다. 참됨을 찾아 원시(元始)의 단련을 마치고, 실상을 깨달아 모니(牟尼, 부처)의 수단을 터득해야 합니다. 형상 없는 것을 드러내고, 열반마저 밝아 깨뜨려야 합니다. 반드시 깨달음 속에서 다시 깨닫고 깨우침 속에서 다시 깨우쳐, 한 점의 영롱한 빛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뜨거운 불꽃을 놓아 온 사바세계를 비추면, 법계가 가로세로로 홀로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극히 그윽하고 미묘한 데 이르러 더욱 굳게 지키니, 그 현묘한 관문을 입으로 말한들 누가 건네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큰 깨달음의 선(大覺禪)을 닦아왔으니, 인연이 있고 뜻이 있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새길 수 있습니다." 네 노인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받아들이고는 한없이 기뻐하였다. 저마다 머리를 조아려 귀의하고 몸을 굽혀 절하며 감사드렸다. "성스러운 스님이 야말로 선기(禪機)를 깨달은 근본이십니다."

불운수가 말했다. "선(禪)이 아무리 고요하고 법이 아무리 엄격하다 한들, 무엇보다 성품이 안정되고 마음이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설령 큰 깨달음을 얻은 진선이라 해도 결국은 무생(無生)의 도에 머물 뿐이지요. 저희가 깨달은 현묘한 도는 그와 또 다릅니다."

삼장이 물었다. "도는 본래 변함없는 것이요, 체(體)와 용(用)이 하나로 합쳐진 것인데 어찌 다르단 말입니까?"

불운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단단하고 굳건하니, 체와 용이 그대와는 다릅니다. 천지의 기운을 느껴 몸을 이루었고, 비와 이슬을 머금어 빛깔을 더했습니다.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웃고 즐기며 세월을 보냅니다. 잎 하나 시들지 않고 천 가지가 절개를 지키고 있지요.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는 그저 범어(梵語)만 붙들고 있으니, 도라는 것은 본래 중원 땅에 있는 것을 두고 거꾸로 서천에 가서 증명하려 하니, 짚신만 낭비할 뿐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사자가 심장을 도려내고 들여온 여우가 골수까지 침을 흘리는 격이지요. 근본을 잊은 채 선을 참구하며 망령되어 불과를 구하니, 이는 마치 우리 형극령의 덩굴 넝쿨이 엉켜있는 수수께끼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군자를 어찌 인도하며, 이런 규모로 어찌 법을 전수하겠습니까? 반드시 먼저 자신의 본모습을 되돌아보아야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밑 빠진 대나무 바구니로 물을 길고, 뿌리 없는 철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격이지요. 영보봉 꼭대기에 발을 굳건히 내디디고, 다시 돌아와 이 우아한 모임에서 용화회(龍華會)를 함께합니다."

삼장은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십팔공이 손을 잡아 부축하고 고직공이 몸을 일으켜 세워주자, 능공자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불운수의 말은 분명 허풍이 섞여 있습니다. 성스러운 스님께서는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달빛이 밝은 이 밤에 도를 논하거나 수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를 읊으며 유유자적하게 마음을 즐기려는 것뿐입니다."

불운수가 웃으며 돌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를 읊고 싶다면, 우선 작은 암자에 들어가 차라도 한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장은 정말로 몸을 일으켜 돌집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았다. 문 위에는 '목선암'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삼장은 그곳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갑자기 붉은 몸의 귀신이 나타나 복령고(茯령을 달여 만든 귀한 음식) 한 접시와 향기로운 차 다섯 잔을 받들어 올렸다. 네 명의 노인이 삼장에게 먼저 드시라고 권하자, 삼장은 의아하고 두려운 마음에 감히 선뜻 먹지 못했다. 네 노인이 일제히 음식을 즐기는 동안 삼장은 겨우 두 조각만을 먹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차를 마시고 접시를 거두어 가자, 삼장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곳은 마치 달빛 아래 있는 것처럼 영롱하고 빛이 났으며,

물은 돌 틈에서 절로 흘러나오고, 향기는 꽃 사이에서 절로 풍겨오네. 좌중은 맑고 비어 있어 고아하니, 티끌 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삼장은 이 선경과 같은 풍경을 보고 마음이 벅차올라 매우 기뻐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 구절을 읊었다.

"선심(禪心)은 달과 같아 티끌 하나 없도다."

그러자 경절이 웃으며 즉시 다음 구절을 이었다.

"시의 흥취는 푸른 하늘처럼 새로워라."

고직공이 말했다.

"좋은 구절을 비단에 수놓듯 엮어내니, 참으로 멋지구나."

능공자가 말했다.

"아름다운 글이라 보배로운 향기조차 감출 수 없네."

불운수가 덧붙였다.

"지난 세월의 변화함은 모두 씻겨 나갔고, 옛 성현의 우아한 노래만이 다시금 울려 퍼지는구나."

삼장이 말했다. "제자가 잠시 입을 놀려 함부로 몇 마디를 뽐였으니, 참으로 '문 앞에서 도끼 자랑을 한 격(반문농부)'입니다. 방금 신선 같은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맑고 고결하여 진정한 시인이라 할 만합니다."

경절이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 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수행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하는 법인데, 이미 첫 구절을 떼었으니 어찌 끝맺음을 하지 않으십니까? 부디 완성해 주십시오."

삼장이 말했다. "제자는 능력이 부족하니, 부디 열여덟 공께서 끝맺음을 하여 한 편의 시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절이 말했다. "스님도 참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직접 시작한 구절을 어찌 끝맺지 않으려 하십니까? 보석 같은 글귀를 아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삼장은 어쩔 수 없이 뒤의 두 구절을 이어 읊었다.

"솔바람 베개 삼아 차는 익어가는데, 시를 읊는 마음은 봄기운으로 가득하네."

열여덟 공이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시를 읊는 마음이 봄기운으로 가득하다'라니, 멋지구나!"

고직공이 말했다. "경절, 자네가 시의 맛을 잘 아는구먼. 그러니 그저 맛만 보지 말고, 새로 한 편을 더 지어보게나."

경절 또한 흔쾌히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앞 구절의 끝글자를 따서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은 영화롭고 겨울은 마르지 않으니, 구름 오고 안개 가도 그저 아무 일 없듯 하네."

능공자가 말했다. "저도 앞 구절의 끝글자를 이어받아 읊어 보겠습니다."

"바람 없어도 춤추는 그림자 흔들리니, 손님은 그 모습을 보며 복과 장수를 기원하네."

불운수 역시 끝글자를 이어받아 말했다.

"그 모습은 서산의 굳센 절개와 같고, 맑음은 남국의 정절 있는 선비와 같도다."

고직공 또한 끝글자를 받았다.

"그 덕에 기둥이 될 재목이라 칭송받고, 그 기상에 큰 나무가 법도를 세우는구나."

삼장은 이 시들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참으로 고결하고 기개가 하늘을 찌르는 시입니다. 제자가 재주가 없으나 감히 두 구절을 더 보태보겠습니다."

고직공이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은 도를 깨우친 분이자 덕이 높은 분입니다. 더 이상 구절을 잇기보다는, 부디 전체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억지로라도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장은 어쩔 수 없이 웃으며 한 수의 시를 읊었다.

"지팡이 짚고 서천에서 오시어 법왕께 절하니, 묘한 경전 구하여 멀리 전하고자 하네. 금빛 꽃 세 가지 향기로 시단의 상서로움 더하고, 보배로운 나무 천 송이 꽃으로 연꽃 향기 풍기네. 백 자 높이의 나무 위에서 더욱 정진하여, 사방 세계에 도를 세워 행보를 펼치리라. 옥 같은 몸을 닦아 장엄한 형상을 이루고, 극락세계 문앞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으리."

네 노인은 시를 다 듣고 모두 극찬했다. 열여덟 공이 말했다. "제가 재주가 없어 무례를 무릅쓰고 한 수 화답하겠습니다."

"경절은 고고하여 나무 왕을 비웃으니, 영락춘(경절)은 내 이름처럼 드높지 못하네. 백 자 깊은 산에 용과 뱀의 그림자 비치고, 천 년 흐르는 샘물은 호박의 향기를 머금었네. 천지와 함께 기개를 떨치며, 비바

람을 반겨 도를 펼치기를 기뻐하네. 쇠락함을 스스로 부끄러워 신선의
골격은 없으나, 오직 복령고로써 장수를 기원하노라."

고직공이 말했다. "이 시는 시작이 호방하고 이어지는 구절이 힘차
지만, 끝맺음이 너무 겸손하구려! 참으로 부럽소! 나도 한 수 화답하겠
소."

"서리 맞은 자태는 늘 새들의 왕을 반기고, 사절당 앞에 큰 기상이
드높도다. 이슬 무거워 구슬 장식은 푸른 덮개를 가리고, 바람 가벼워
돌 틈 사이로 찬 향기가 부서지네. 긴 회랑 밤은 고요하여 읊는 소리 가
늘고, 옛 전각 가을 그늘엔 희미한 그림자 숨었네. 새해 봄맞이하며 장
수를 빌었으니, 노년에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며 머무르리."

능공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시로다, 참으로 달빛이 하늘의 마음
을 돕는 듯하구나! 내가 어찌 감히 화답하겠느냐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 몇 마디 거들어 보마."

"기둥이 될 재목은 임금 곁에 가깝고, 태청궁 밖에서도 그 이름 드높
도다. 맑은 정자에는 푸른 기운이 도는 듯하고, 어두운 벽에는 푸른 향
기가 감도네. 굳은 절개는 천 년토록 빼어나고, 깊은 뿌리는 구천에 닿
아 있도다. 구름을 넘는 기세로 춤추는 그림자를 덮으니, 화려한 꽃밭
따위에는 관심 없도다."

불운수가 말했다. "세 분의 시가 참으로 고아하고 맑아, 마치 비단
주머니를 활짝 연 듯합니다. 저는 힘도 없고 재주도 없으나, 세 분의 가
르침을 받으니 막혔던 속이 뽕 뚫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박
한 시를 몇 구절 읊을 테니 부디 비웃지 마십시오."

"성왕을 즐거워하는 원림의 정원처럼, 위천의 넓은 벌판에 이름이 널리 퍼지네. 푸른 대나무는 상아의 눈물에 물들지 않으니, 그 향기는 한나라 역사의 기록처럼 전해지리. 서리 맞은 잎은 그 빛이 변함없는 데, 안개 낀 가지 끝의 빛깔은 어디로 숨었는가? 자유(자유)가 떠나니 알아주는 이 적으나, 만고에 문장가로서 이름을 남기리라."

삼장이 말했다. "신선님들의 시가 참으로 보석을 뿜어내는 듯 아름다워 칭찬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그 깊은 정에 감동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이미 깊었는데, 제 세 제자가 어디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오래 머물 수 없어 이만 물러가 제자들을 찾아보려 하니, 부디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의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로서도 천 년 만에 만난 귀한 인연인데 어찌 이리 서두르십니까? 게다가 날씨도 맑고, 밤이 깊긴 해도 달빛이 낮처럼 밝으니 조금 더 편히 앉아 계십시오. 날이 밝으면 저희가 직접 고개를 넘어가는 길까지 배웅해 드릴 테니, 제자들과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창 대화가 오가던 중, 돌방 밖에서 푸른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붉은 비단 등룡 한 쌍을 들고 나타나더니, 그 뒤를 이어 선녀 한 명을 안내하며 들어왔다. 그 선녀는 살구꽃 한 가지를 손에 쥐고 생글생글 웃으며 문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다. 그 선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푸른 기운이 도는 화사한 화장에 붉은 얼굴은 연지보다 고우며,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는 채색처럼 영롱하고 눈썹은 나비 모양으로 곱고 가지런하다. 아래로는 오색 빛이 도는 연홍색 매화 무늬 치마를 입고, 위에는 안개 속의 불꽃처럼 은은한 빛깔의 비단 저고리를 걸쳤다. 구두는 봉황의 부리처럼 끝이 굽어 있고, 비단 버선과 화려한 신발까지 갖추었으니, 그 요염하고 아리따운 모습이 마치 천태산의 선녀 같아 예전의 달기 못지않았다.

네 명의 노인이 몸을 굽혀 물었다. "행선은 어찌 찾아왔는가?" 여인이 모두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하며 말했다. "이곳에 귀한 손님들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찾아보였습니다. 감히 뵙기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경절이 당삼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귀한 손님은 바로 이분이라네. 굳이 따로 찾을 필요가 있겠나?" 당삼장은 몸을 굽힌 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여인이 말했다. "어서 차를 내오너라." 그러자 노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붉은 칠을 한 쟁반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작은 사기 찻잔 여섯 개가 놓여 있었고, 찻잔 안에는 갖가지 이색적인 과일들이 담겨 있었으며 손가락이 곁들여져 있었다. 또한 황동을 박아 넣은 하얀 쇠 주전자를 들고 왔는데, 주전자 안에서 향긋한 차 내음이 코를 찔렀다. 차를 다 마신 여인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먼저 사기 찻잔을 받들어 당삼장에게 올리고 다음으로 네 노인에게 올린 뒤, 마지막 남은 한 잔을 자신이 직접 가져다 마시며 대접했다.

능공자가 "행선은 왜 앉지 않는가?"라고 묻자, 그제야 여인이 자리에 앉았다. 차를 다 마신 여인이 몸을 굽혀 물었다. "신선들께서 오늘 밤

즐거운 잔치를 벌이시는데, 멋진 시 한두 구절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운수가 말했다. "우리 같은 이들은 그저 보잘것없는 말들뿐이라네. 오직 성승(聖僧, 거룩한 스님)께서 지으신 시야말로 진정한 당나라의 기풍을 담고 있으니, 참으로 부럽고 대단할 따름이지."

여인이 다시 말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네 노인은 즉시 예전에 지었던 시와 선법(禪法)에 관한 논리를 한 차례 읊어 보였다. 여인은 얼굴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재주가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멋진 시를 듣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하니, 염치 불고하고 화답하는 시 한 수를 지어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낭랑하게 시를 읊었다.

"한 무왕은 이름을 남겨 세상에 드높였고, 주나라 공자는 제단을 세워 도를 펼쳤네. 동선은 숲을 이룬 나를 사랑하여 아꼈고, 손초는 한식의 향기를 가련히 여겼다네. 비에 젖은 붉은 자태는 곱고도 연하며, 안개 머금은 푸른 빛은 드러났다 숨어 있네. 스스로 너무 익어 약간은 시큼함을 아노니, 떨어진 자리마다 해마다 보리밭과 함께하리."

네 노인은 시를 듣고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다. "정말 맑고 우아하여 속세의 때가 묻지 않았구나! 시 구절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하네. '비에 젖은 붉은 자태는 곱고도 연하며'라니, 참으로 멋진 구절로다! '비에 젖은 붉은 자태는 곱고도 연하며!'"

여인은 웃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황송할 따름입니다. 방금 성승의 시를 들으니 참으로 문장력이 뛰어나십니다. 혹 관촬으시다면 보석 같은 시 한 수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삼장은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여인은 점차 호감을 품고는 슬금슬금 당삼장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귀한 손님께서 이 좋은 밤을 이대로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말이에요."

경절이 말했다. "행선이 이토록 높이 우리러보는 마음을 보이는데, 성승께서 어찌 아랫사람을 보살피듯 받아주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만약 가련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분위기를 모르는 일입니다."

고직공이 거들었다. "성승은 도를 닦고 이름이 높은 선비이니,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지금 거절하신다면 저희가 죄를 짓는 셈이 되겠군요. 남의 명성을 더럽히고 덕을 해치는 일은 결코 멀리 가질 못하는 법입니다. 만약 정말로 행선에게 뜻이 있다면, 불운수와 경절이 중매를 서고 저와 능공자가 혼사를 보증하여 인연을 맺게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삼장이 그 말을 듣고는 안색이 변하더니, 벌떡 일어나 크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똑같은 괴물들이구나! 감히 나를 이렇게 유혹하다니! 아까는 그저 제자들의 말을 빌려 도를 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인계로 이 빈 승려를 해치려 들다니, 이게 대체 무슨 도리냐!"

네 명의 나무 정령은 삼장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는, 하나같이 손가락을 깨물며 겁에 질려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자 붉은 몸의 귀신이 천둥이 치듯 사납게 소리쳤다.

“이 중놈이 참으로 눈치가 없구나! 우리 누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냐? 빼어난 용모에 옥처럼 고운 자태를 지녔고, 바느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금 읊은 시재(詩才)만 보더라도 네놈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그런데 어찌 이리 거절한단 말이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고직공의 말이 옳다. 정 합궁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나중에 다시 혼례를 주선했다 주마.”

삼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들이 어찌 저런 망언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하지만 결코 따를 수는 없었다. 귀신이 다시 말했다.

“이 중놈아,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듣지 않는구나. 만약 우리가 본성을 드러내어 너를 억지로 잡아간다면, 승려 노릇도 못 하고 장가도 못 가게 만들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랴?”

삼장의 마음은 금석처럼 단단하여 끝까지 거절했다. 그는 속으로 ‘내 제자들이 어디선가 나를 찾고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여인이 웃음을 띠며 삼장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비취색 소매 안에서 향기로운 비단 손수건을 꺼내 삼장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어찌 번뇌하시나요? 저와 함께 향기로운 곳에 기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요.”

삼장은 크게 호통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끌려다니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았다.

그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스님! 어디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 보니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말들을 끌고 짐을 멘 채 밤새 한시도 쉬지 않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동서로 분주히 삼장법사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다. 반쯤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한 형극령을 지나 서쪽으로 팔백 리쯤 왔을 때, 삼장법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얼른 대답했다.

삼장법사가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다. "오공아, 내가 여기 있다! 어서 와서 나를 구해다오, 어서 나를 구해다오!"

그러자 아까 보였던 네 명의 어르신과 귀신,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순식간에 저팔계와 사오정이 달려와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삼장이 손오공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제자들아, 너희를 참으로 고생시키는구나. 어제저녁에 만난 그 노인이 토지신이 공양을 올

리는 일에 대해 말하더니, 네가 소리를 지르며 때리려 한다고 하더구나. 그러더니 나를 이곳으로 번쩍 들어 옮겨 놓았어. 그 노인은 내 손을 잡고 이끌어 문 안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노인 세 명을 더 만났단다. 그들은 모두 나를 ‘성스러운 승려’라고 부르며 반겨주었지. 하나같이 말씨가 우아하고 시를 짓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어. 나도 그들과 어울려 시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단다. 그때 보니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나 나를 맞이하며 시 한 수를 읊더니, 나를 ‘귀한 손님’이라 부르더구나. 그러더니 내 얼굴을 보고는 배우자를 맺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제야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지. 내가 따를 수 없는 일이라 거절하려는데, 그 여인이 중매를 서고 혼인을 주선하겠다고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맹세코 따르지 않겠다고 소리쳤단다. 막 벗어나려고 소란을 피우던 차에 마침 너희가 도착한 것이지. 날이 밝기도 했고 무엇보다 너희가 무서워서 겨우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단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들과 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서, 이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그들의 호를 물어보았지. 그 노인은 ‘십팔공’이라 불리며 호는 ‘경절’이라 했고, 두 번째는 ‘고직공’, 세 번째는 ‘능공자’, 네 번째는 ‘불운수’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 여인은 ‘행선’이라 불렀다.”

저팔계가 물었다.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삼장이 말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를 읊던 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단다.”

세 사람이 스승을 따라 살펴보니, 절벽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위에는 '목선암'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삼장이 말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손오공이 자세히 살펴보니, 알고 보니 커다란 측백나무 한 그루와 오래된 잣나무 한 그루, 노송 한 그루, 그리고 노죽 한 그루가 있었고, 대나무 뒤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절벽 저편을 다시 보니 오래된 살구나무 한 그루와 매화 두 그루, 계화나무 두 그루가 더 있었다.

손오공이 웃으며 물었다. "너 요괴가 보이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나무들이 모두 이곳에서 정령이 된 것이니 네가 모르는 것이다."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나무가 정령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손오공이 설명했다. "경절은 소나무요, 고직공은 잣나무요, 능공자는 측백나무요, 불운수는 대나무란다. 귀사는 단풍나무이고, 행선은 살구나무이며, 저 계화나무와 매화나무를 닮은 아이들은 각각 계화와 매화 정령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팔계는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따질 겨를도 없이, 쇠갈퀴를 휘둘러 입을 크게 벌린 괴물처럼 마구 휘저어 대기 시작했다. 매화와 계화, 오래된 살구나무와 단풍나무를 죄다 쓰러뜨려 버리니, 과연 나무 밑동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왔다.

당삼장이 가까이 다가와 저팔계를 말리며 말했다. "오능아, 저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비록 정령이 되었다 하나 나를 해치지는 않았느니라. 어서 길을 찾아 떠나자꾸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들을 가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커다란 요괴가 되어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저팔계는 아예 갈퀴를 한 번 더 휘둘러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대나무를 모조리 때려눕혀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스승을 말에 태우고 큰길을 따라 일제히 서쪽으로 향했다.

결국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5회 — 요사스러운 무리가 가짜 소뇌 음을 세우고, 네 명의 제자가 모두 큰 재 난을 당하다

妖邪假設小雷音 四眾皆遭大厄難

이번 회의 인과를 살펴보니,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계하는구나.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신명께서 밝게 살피시니, 그가 무엇을 하든 다 알고 계신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어찌 배우려 하겠는가, 그 두 가지 모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살아생전 바른 도를 닦아야 마땅하니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근원을 찾아 본래의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한다. 영생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이치를 붙잡아야 하니, 때마다 깨어 있어 참된 진리를 가려내고 살피도록 하라. 세 가지 관문을 관통하여 검은 바다를 채우면, 선한 자는 신령한 학을 타고 날아오를 것이니, 그 사이에서 자비를 베풀어 극락세계에 오르게 하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삼장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니, 천신이 보호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풀과 나무의 영물들조차 길을 안내하며 하룻밤을 함께 머물러 주었다. 덕분에 가시덤불과 날카로운 가시를 벗어나 더는 냉쿨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사제 일행 넷이 서천을 향해 나아간 지 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삼춘(三春)의 계절이 찾아왔다.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북두칠성의 자리가 인(寅)방으로 돌아가니, 온 땅에는 풀싹이 푸르게 돌아나고 제방에는 버들눈이 가득 피어났다. 고개 너머 복숭아꽃은 비단처럼 붉게 물들었고, 시냇물 위로 피어오른 안개는 푸른 비단처럼 맑게 빛난다. 수많은 비바람을 겪어온 마음에는 끝없는 감회가 밀려온다. 햇살을 머금은 꽃은 더욱 화사하고, 제비는 이끼 사이의 꽃술을 가볍게 물어 나른다. 산의 빛깔은 왕유의 그림처럼 짙고 열음이 아름다우며, 새들의 지저귀는 계자의 재담처럼 거침이 없다. 꽃과 풀이 수를 놓은 듯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구경할 사람은 없으나, 춤추는 나비와 노래하는 벌들에게는 더없이 정겨운 풍경이다.

스승과 제자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말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나아갔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문득 저 멀리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이 나타났다. 당삼장이 채찍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공아, 저 산은 높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구나. 마치 푸른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 같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옛 시에 '하늘은 오직 위에 있을 뿐, 산이 하늘과 나란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산이 그만큼 높아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지, 어찌 하늘과 맞닿아 있겠습니까?"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하늘과 맞닿지 않았다면, 어찌 곤륜산을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부르겠어?"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잘 모르는구나. 예부터 '하늘은 서북쪽이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했다. 곤륜산은 서북쪽 건(乾)방에 위치해 있어서, 하늘을 찌르고 공간을 메운다는 뜻으로 '천주(天柱)'라 부르는 것이다."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저 사람에게 그런 좋은 지식은 말해 주지 마세요. 듣고 나서 또 남을 깎아내리려 할 테니까요. 우리는 그저 길을 갑시다. 저 산에 올라가 보면 높고 낮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저 멍청한 짐승이 사오정을 뒤쫓으며 요란하게 싸우는 사이, 스승님의 말은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어느덧 일행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다다랐고, 한 걸음 한 걸음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산의 모습은 이러했다.

숲속에는 바람이 뽕뽕 불고, 계곡 바닥에는 물소리가 졸졸 흘렀다. 까마귀와 참새조차 날아오르기 힘들 만큼 험하니, 신선이라 해도 어렵다 하겠다. 수천 개의 절벽과 만 개의 골짜기, 억만 번 굽이치는 물길이 이어져 있었다. 먼지만 자욱할 뿐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았고, 기괴한 바위들이 뻗뻗하게 늘어서 있어 보기만 해도 질릴 정도였다. 어떤 곳은 구름이 물처럼 넘실거리고, 또 어떤 곳은 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번성했다. 사슴은 영지버섯을 물고 가고, 원숭이는 복숭아를 따 먹는다. 여우와 오소리는 절벽 위를 뛰어다니고, 노루와 고라니는 고개 사이를 제멋

대로 드나든다. 그러다 갑자기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와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표범과 늑대들이 길을 가로막으며 버티고 서 있었다.

당삼장은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손오공은 신통력이 워낙 광대하여, 그가 든 여의금고봉을 휘두르며 크게 한 번 포효하자 맹수들이 겁을 먹고 물러났다. 손오공은 길을 터서 스승님을 모시고 높은 산 위로 곧장 올라갔다. 고개를 넘어 서쪽 평평한 곳으로 내려가니, 갑자기 상서로운 빛이 아스라이 감돌고 오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곳에는 누각과 전각이 늘어선 사찰이 보였고, 은은한 종소리와 경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당삼장이 물었다. "제자들아, 저곳이 대체 어떤 곳이냐?" 손오공은 고개를 들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대단한 곳이었다. 그 풍경은 이러했다.

보배로운 누각과 귀한 좌석은 하늘의 명성을 떨치고, 골짜기에는 자연의 소리가 가득하며 고요한 경계에는 하늘의 향기가 퍼져 나간다. 푸른 소나무는 비를 머금어 높은 누각을 가려주고, 푸른 대나무는 구름을 머금어 강당을 감싸 안는다. 노을빛은 아스라이 용궁처럼 신비롭고, 오색 구름은 사바세계에 길게 드리워져 있다. 붉은 난간과 옥으로 만든 문, 화려하게 그려진 들보와 조각된 대들보가 눈부시다. 경전을 논하는 향기가 좌중에 가득하고, 경전을 읽는 소리는 창가에 비치는 달빛과 어우러진다. 붉은 나무 사이로는 새가 지저귀고, 바위 샘가에서는 학이 물을 마신다. 사방에는 꽃이 피어 신선들의 정원처럼 아름답고, 세면의 문이 열린 곳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비친다. 누각은 험준한 봉우리 사이로 우뚝 솟아 있고, 종과 경쇠 소리는 허공에 길게 울려 퍼진다. 창

문 너머로 미풍이 스치고, 발을 걸어 올리니 안개가 아득하다. 승려의 마음은 담백하여 속세의 욕심이 없고, 정토의 기운은 화창하여 도를 닦기에 더할 나위 없는 도량이다.

손오공은 이 광경을 다 보고는 대답했다. "스승님, 저곳은 분명 사찰인 듯합니다만, 상서로운 빛과 기운 속에서도 어찌 된 일인지 흥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풍경만 보면 뇌음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는 길이 어딘가 다릅니다. 저곳에 가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 독한 손길에 당할까 두렵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뇌음사와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 필시 영산이 아니겠느냐? 네가 나의 정성을 방해하고 나의 뜻을 꺾으려 하지 마라." 손오공이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영산으로 가는 길을 몇 번이나 가보았습니다만, 저 길은 그곳이 아닙니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설령 영산이 아니라 해도, 분명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일 겁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너무 의심할 것 없습니다. 저 길을 따라 저 문 앞으로 가 보기만 하면 맞는지 틀린지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사오정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장로가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산문 앞에 이르렀다. 문에 적힌 '뇌음사'라는 세 글자를 보자마자 그는 혼비백산하여 말에서 굴러떨어지더니, 바닥에 엎드린 채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여기가 뇌음사라니, 아직도 나를 죽이려 드느냐!"

손오공이 곁에서 웃으며 달랬다. "스승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산문에 적힌 글자는 네 글자인데, 어쩌서 세 글자만 읽으시고 저를 탓하십니까?"

장로가 벌벌 떨며 일어나 다시 살펴보니, 정말로 글자는 네 글자, 즉 '소뇌음사'라고 적혀 있었다. 당삼장이 말했다. "소뇌음사라 해도 분명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삼천 제불이 계시다 하였으니, 부처님이 한곳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을 게 아니냐. 관음보살은 남해에 계시고, 보현보살은 아미산에 있으며, 문수보살은 오대산에 계시듯 말이다. 이곳이 어느 부처님의 도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부처와 경전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보배가 없으랴'라고 했다. 어서 들어가 보자꾸나."

손오공이 말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길한 기운보다 흉한 기운이 훨씬 강합니다. 만약 화를 입게 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삼장이 대답했다. "설령 부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반드시 불상이라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을 뵈고 절을 올리는 것이 내 제자의 소원인데, 어찌 너를 원망하겠느냐?"

당삼장은 팔계에게 명령하여 가사를 가져오게 하고 승려의 모자를 바꿔 쓰게 하여 의관을 정제시킨 뒤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산문 안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당승, 네가 동토에서 와서 우리 부처님을 뵈는데 어찌 이리도 예의가 없느냐?”

당삼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절을 올렸고, 팔계와 사오정도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다. 오직 손오공만이 말을 붙들고 뒤에서 짐을 챙기고 있을 뿐이었다. 일행이 이층 문 안으로 들어서자 여래를 모신 대전이 나타났다. 대전 문 밖 보석으로 장식된 제단 아래에는 오백나한과 삼천 계제, 사금강, 팔보살, 비구니, 우바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스러운 승려와 도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향기롭고 화려하며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흘렀다. 당삼장과 팔계, 사오정은 당황하여 영산의 제단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절을 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손오공은 대놓고 절을 하지 않았다.

그때 연화좌 위에서 엄한 목소리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손오공은 여래를 뵈고 어찌 절을 하지 않느냐?”

손오공이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말과 짐을 내팽개치고 여의봉을 손에 쥔 채 소리쳤다.

“이 요괴 놈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부처의 이름을 빌려 여래의 청정한 덕을 더럽히다니, 거기 서라!”

손오공이 양손으로 여의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내리쳤다. 그러자 공중에서 쟁그랑하는 소리가 나더니 금요(金鏢, 금속으로 만든 뚜껑 모양의 한 쌍짜리 바라) 하나가 떨어져 내려와 손오공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가두어 버렸다. 당황한 저팔계와 사오정이 급히 갈퀴와 지팡이를 휘둘렀으나, 주변에 있던 나한과 계제, 성스러운 승려들과 도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들을 에워쌌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두

사람은 붙잡혔고, 당삼장까지 모두 붙잡혀 밧줄로 뽕뽕 묶인 채 단단히 결박당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연꽃 좌대 위에 부처로 앉아 있던 자는 요괴 왕이었고, 그 곁을 지키던 아라한들은 모두 하찮은 요괴들이었다. 요괴 왕은 부처의 형상을 거두어들이고 본래의 요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당삼장 일행 세 사람을 들어 올려 뒤편에 가두어 버렸다. 손오공은 금나라(금속으로 만든 뚜껑) 안에 가두어 결코 열지 못하게 한 뒤 보좌 위에 올려두었는데, 사흘 밤낮 동안 그 안에서 피가 되어 흘러나오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피가 되고 나면 철장에 넣어 세 사람을 요리해 먹을 작정이었다.

이 상황을 시로 읊으면 이러하다.

푸른 눈의 원숭이는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았으나, 선방의 기틀에 속아 불상인 줄 알고 금빛 몸에 절을 했구나. 눈먼 노파는 함께 예를 올리고, 어리석은 마음은 함께 도를 논하며 경전을 읽었네. 사악한 요괴가 강한 힘으로 본성을 억누르고, 마귀가 악한 마음을 품어 하늘과 사람을 속였으니, 참으로 도는 작은데 마귀는 크구나. 결길로 잘못 들어들었으니 헛된 수고만 했도다.

그때 요괴 무리는 당삼장 일행 세 사람을 뒤편에 가두고, 백룡마를 뒤에 묶어 두었다. 또한 당삼장의 가사와 승모를 짐 보따리 안에 넣어 함께 치워버렸다. 사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아무런 소문도 나지 않게 입을 막았다.

한편, 손오공은 금나라 안에 갇혀 있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숨이 막힐 듯 더워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손오공은 왼쪽으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부딪치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도무지 나올 수가 없었다. 급한 마음에 여의봉을 휘둘러 마구 두드려 보았지만, 티끌만큼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묘책이 떠오르지 않자, 아예 몸을 힘껏 내뺀어 금나라를 깨뜨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문을 외워 몸을 수천, 수만 장 높이로 키웠다. 그러자 금나라 역시 손오공의 몸집에 맞춰 커졌으나, 여전히 틈새 하나 없이 매끄럽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주문을 외워 몸을 겨자씨만큼 작게 줄여 보았다. 그러자 금나라 또한 몸에 맞춰 작아졌고, 역시 구멍 하나 없이 꽉 막혀 있었다. 손오공은 다시 여의봉에 선기(仙氣)를 불어넣으며 "변해라!" 하고 외쳤다. 여의봉은 깃대처럼 길게 변해 금나라를 지탱했다. 이어 손오공은 뒷덜미의 털 중 긴 것 두 가닥을 뽑아 "변해라!" 하고 외쳤다. 털은 매화꽃 모양의 다섯 갈래 송곳으로 변해 여의봉 아래를 수천, 수만 번 뚫기 시작했다. 창강창강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금나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옴,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르게 흐르도다"라고 읊조렸다. 그러자 오방계제와 육정육갑, 그리고 열여덟 명의 호법 신선들이 금나라 밖에서 나타났다. 신선들이 말했다. "손대성, 저희는 모두 스승님을 보호하며 요괴가 해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까지 불러내시는 겁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스승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니 차라리 죽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너희는 어서 빨리 법술을 써서 이 금나라를 열고 나를 꺼내다오. 안은 빛 한 점 안 들고 숨이 막힐 듯 더워 죽을 지경이다. 이러다 내가 답답해서 죽겠구나!"

신선들이 정말로 금나라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마치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티끌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다. 금두계제가 말했다. "손대성, 이 금나라가 대체 어떤 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아래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합쳐져 있어, 저희의 미천한 신통력으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 또한 안에서 온갖 신통력을 다 써보았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구나."

금두계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육정신을 보내 당삼장을 보호하게 하고, 육갑신을 보내 금나라를 지키게 하며, 여러 가람의 신령들에게 앞뒤를 잘 살피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상서로운 빛을 일으켜 솟구쳐 오르더니, 순식간에 남천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따로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영소보전 아래로 올라가 옥황제를 뵈고 엎드려 아뢰었다.

"주군, 신은 오방계제의 사자입니다. 지금 제천대성 손오공이 당삼장을 모시고 경전을 구하러 가던 중, 소뇌음사라는 산을 만났습니다. 당삼장이 그곳을 영산으로 착각하여 절을 올렸으나, 알고 보니 요괴가 만든 가짜 사찰이었습니다. 요괴가 스승과 제자들을 가두고, 손오공은

금나라 안에 가두어 버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급히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옥황제가 즉시 명을 내렸다.

"스물여덟 별자리인 이십팔숙을 보내어, 어서 가서 재앙을 풀고 요괴를 물리치도록 하라."

별자리 신선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금두계제와 함께 천문을 나와 산문 안으로 들어갔다. 산문에 도착하니 밤이 깊어 삼경이 되기 전인 이경 무렵이었다. 요괴들은 당삼장을 붙잡은 공을 세워 노요괴에게 상을 듬뿍 받고는 각자 잠자리에 들러 떠난 뒤였다. 별자리 신선들은 당황하지 않고 금나라 솔 근처로 다가가 외쳤다.

"손대성, 우리는 옥황제께서 구하러 보내신 이십팔숙입니다!"

손오공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어서 무기로 이 솔을 깨부숴라! 그러면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러자 이십팔숙이 대답했다.

"감히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온갖 금속을 녹여 만든 보물이라, 한번 치면 요란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소리가 나면 요괴들이 깨어날 테니 그때는 구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기를 써서 당신을 실어 나르겠습니다. 당신은 안에서 빛이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움직이십시오."

손오공이 "알았다!"라고 대답했다.

보라, 신선들이 창을 쓰는 이는 창을 쓰고, 칼을 쓰는 이는 칼을 쓰며, 도를 쓰는 이는 도를 쓰고, 도끼를 쓰는 이는 도끼를 썼다. 어떤 이는 젊어지고, 어떤 이는 메고, 어떤 이는 들어 올리고, 어떤 이는 실어 날랐다. 그렇게 한참을 작업하여 삼경 무렵이 되었으나, 술은 미동도 없이 마치 통째로 새로 주조한 것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 안에서 손오공은 이리저리 살피고 동서남북으로 둘러보며 기어 다니고 굴러보았지만, 도무지 빛 한 줄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항금룡이 말했다. “손대성, 너무 조금해하지 마시오. 이 보물을 보니 분명 마음먹은 대로 변하는 물건이니, 틀림없이 변신도 가능할 것이오. 그 안에서 틈새가 있는 곳을 손으로 더듬어 보시오. 내가 뿔 끝을 그 틈으로 밀어 넣을 테니, 그때 몸을 변신시켜서 험거운 곳을 찾아 빠져 나오시오.”

손오공은 그 말대로 안에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다. 이 신선이 몸을 작게 줄인 탓에 뿔 끝은 마치 바늘 끝처럼 가늘어져서, 금나라의 맞물린 틈새를 따라 안으로 쑥 밀려 들어왔다. 가엾게도 천 근의 힘을 다 써서야 겨우 안쪽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손오공은 자신의 몸을 뿔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며 외쳤다. “길어져라! 길어져라! 길어져라!”

그러자 뿔이 사발만큼 굵어졌다. 그런데 금나라의 입구는 금으로 주조된 것이 아니라 마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변하더니, 항금룡의 뿔을 짝 물어버려 사방에 틈새라고는 눈곱만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손

오공은 뿔을 더듬으며 소리쳤다. “안 되겠소! 위아래로 조금의 틈도 없소. 어쩔 수 없으니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나를 끌어내 주시오!”

손오공은 즉시 여의봉을 강철 송곳으로 변신시켜 항금룡의 뿔 끝에 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겨자씨만큼 작게 만들어 그 구멍 속에 웅크리고 앉아 외쳤다. “뿔을 뽑으시오! 뿔을 뽑으시오!”

이 신선이 또 얼마나 힘을 쏟아부었는지, 겨우 뿔을 뽑아낼 수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 써버린 나머지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손오공은 요괴가 만든 틈새를 뚫고 눈을 통해 빠져나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여의봉을 휘 뿔아 들더니, 금나라를 향해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다. 그 기세가 마치 구리 산을 무너뜨리고 금광을 깨뜨리는 듯했다. 안타깝게도 불교의 신성한 도구였던 금나라는 손오공의 일격에 수천수만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이 소동에 스물여덟 숙신들은 깜짝 놀라 자빠졌고, 오방계제는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경악했으며, 모여 있던 요괴들도 꿈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다. 늙은 요괴 왕은 잠결에 혼비백산하여 급히 일어나 옷을 걸치고 북을 울렸다. 그리고는 요괴들을 불러 모아 각자 무기를 들게 했다.

마침 하늘이 밝아올 무렵, 요괴들이 보전 아래로 몰려왔다. 그곳에는 손오공이 부서진 금나라 파편들 사이에서 별의 신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요괴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이놈들아! 어서 앞문을 짹 잠가라! 한 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아홉 하늘 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요괴 왕은 부서진 금 조각들을 챙겨 넣고 요괴 부하들을 몰린 뒤, 산문 앞에 늘어섰다. 요괴 왕은 분이 풀리지 않아 무기를 갖추어 차고는, 짧고 유연한 낭아봉을 휘두르며 진영 밖으로 나와 크게 외쳤다. "손오공! 사내자식이라면 멀리 도망치지 말고 어서 앞으로 나와 나와 세 합을 겨루어 보자!"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구름을 낮추어 내려오며, 저 요괴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 보았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머리에는 얇은 금색 머리띠를 두르고, 눈은 부릅뜬 채 눈썹은 노란색의 수직 모양이었다. 코는 담을 매단 듯 콧구멍이 흰히 보였고, 입은 네모진 모양에 이빨은 날카로웠다. 몸에는 고리 모양의 갑옷을 입고 실로 짠 띠를 둘렀으며, 발에는 검은 신을 신고 손에는 낭아봉을 들고 있었다. 그 형상은 짐승 같으면서도 짐승 같지 않고,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손오공이 철봉을 치켜들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대체 어떤 괴물이기에 감히 부처를 사칭하며 이 산을 차지하고 가짜 소뇌음사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자 요괴 왕이 말했다. "이 원숭이 놈이 내 이름을 모르니 감히 신선이 사는 산을 침범하는구나. 이곳은 소서천이라 불리는 곳이다. 내가 수행하여 정과를 얻었기에, 하늘이 내게 보물 누각을 내려 주신 것이다. 내 이름은 황미노불이라 한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황미대왕이나 황미할아버지라 부르며 모시지. 네놈들이 서천으로 가는 길

에 재주가 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보여주어 네 스승을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너와 내기를 하려는 것이다. 만약 나를 이긴다면 너희 사제들을 살려주어 정과를 얻게 해주겠지만, 만약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너희를 때려죽인 뒤 내가 여래를 찾아가 경전을 가져오리라. 그러면 천하가 참된 도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요괴 놈아, 허풍 떨지 말고 내기를 하려거든 어서 올라와서 이 몽둥이를 받아라!” 요괴 왕은 기뻐하며 낭아봉을 휘둘러 맞섰다. 두 사람의 싸움은 실로 대단했다.

두 몽둥이는 서로 달랐으니, 그 특징을 말하자면 이러하다. 하나는 짧고 유연한 불가의 병기요, 하나는 단단하고 거대한 바다와 같다. 둘 다 마음먹은 대로 변하는 신통력을 지녔으니, 이번 싸움에서 서로 기세를 다투는구나. 짧고 유연한 낭아봉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단단한 금고봉은 교룡의 형상을 닮았다. 굵었다 가늘었다 하며 변화무쌍하니 참으로 대단하고, 짧았다 길었다 하며 쉽 없이 몰아친다. 원숭이와 마귀가 나란히 싸우니, 이 싸움은 참으로 거짓이 없구나. 원숭이는 도를 닦는 마음의 원숭이요, 괴물은 하늘을 속이는 가짜 신선이라.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며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악하고 흉악한 모습이 제각각이로다. 한쪽은 머리 위로 몽둥이를 치켜들고 실 틈이 없고, 다른 쪽은 정면으로 들이치는 공격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다. 구름이 뿔어지고 해가 가려지며 안개가 산봉우리를 뒤덮으니, 몽둥이가 오가는 사이 승부는 잊은 채 오직 당삼장을 위해 생사를 넘나든다.

두 사람이 쉴 합이 넘도록 싸웠으나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산문 앞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요괴들이 함성을 지르며 깃발을 흔

들었다. 이때 이편의 28속 천병과 오방계제의 성자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 크게 외치며 마귀를 가운데에 둘러싸 버렸다. 그 기세에 눌린 산문 앞의 요괴들은 겁에 질려 북도 치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었다. 그러나 노요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낭아봉을 휘둘러 병사들을 막아내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춤에서 낚은 흰 천 보따리를 풀어 던졌다. 그러자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오공과 28속, 오방계제 일행이 통째로 보따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요괴는 그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뒤돌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부하 요괴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 듯 기뻐하며 돌아왔다. 노요괴는 부하들에게 삼사십 줄의 밧줄을 가져오게 하여 보따리를 풀고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꼼꼼 묶게 했다. 사람들은 모두 혼이 빠진 듯 축 늘어져 피부가 주글주글해진 채로 끌려갔다. 요괴는 그들을 뒤편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버렸다. 그러고는 연회를 베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게 한 뒤, 각자 잠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한편, 손오공이 여러 신선에게 붙들려 밤중까지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당삼장의 목소리였다. 당삼장은 울며 이렇게 말했다.

"오공아, 내가 그때 네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 그 때문에 오늘 이런 재앙과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너는 금나라(金鑣) 안에 갇혀 다치고, 나는 새끼줄에 묶여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겠느냐. 우리 네 사람이 어찌 이리 기구한 운명을 만났단 말이나. 삼천 번의 공덕

을 쌓아온 수행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곤경에서 벗어나, 아무 탈 없이 서천으로 가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손오공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가엾게 여기며 생각했다. '스승님께서 비록 내 말을 듣지 않으셔서 이런 화를 당하셨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마침 밤이 깊어 요괴도 잠들었으니 아무도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어서 가서 모두를 풀어주고 탈출해야겠다.'

손오공은 대성답게 몸을 숨기는 도술을 부려 몸을 아주 작게 만든 뒤, 묶여 있던 밧줄을 풀고 당삼장의 곁으로 다가가 "스승님!" 하고 불렀다. 당삼장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묻자, 손오공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일러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당삼장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야, 어서 나를 구해다오. 앞으로의 일은 모두 네 뜻에 맡길 테니 더는 강요하지 않오마."

손오공은 곧바로 움직여 먼저 스승을 풀어준 뒤, 저팔계와 사오정도 풀어주었다. 이어 갇혀 있던 28숙과 오방계제들까지 하나하나 모두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백룡마를 끌어와 어서 먼저 길을 떠나자고 재촉했다. 그런데 막 문을 나서려는데 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자, 손오공은 다시 짐을 찾으러 나섰다.

그러자 항금룡이 말했다. "너는 어찌 사람보다 물건을 더 중히 여기느냐? 스승님을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늘, 무엇 하러 짐까지 찾으려 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의복과 발우는 더욱 중요합니다. 보따리 안에는 통관문첩과 비단 가사, 자금 발우가 들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불문의 지극한 보물들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 형님이 어서 찾아보세요. 우리는 먼저 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편, 별들의 신령들이 당삼장을 에워싸고 도술을 부려 함께 신통력을 발휘하니, 한바탕 바람이 일며 울타리를 훌쩍 넘어 큰길로 나갔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가 평탄한 곳에 이르러서야 멈춰 서서 기다렸다.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 때, 손오공은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들이 겹겹이 굳게 닫혀 있었다. 높은 누각 위로 기어 올라가 살펴보니 창문조차 모두 닫혀 있었다. 다시 내려가려니 창틀이 달그락 소리를 낼까 두려워 감히 밀어볼 수도 없었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며 둔갑술을 부리더니, 흔히 박쥐라 부르는 신령한 쥐로 변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시로 이르되,

머리는 쥐처럼 뽀족하고 눈은 쥐처럼 형형하구나. 황혼 무렵 날개를 펴고 빛 없는 낮에는 숨어 지내네. 기와 틈 구멍에 몸을 숨기고 모기를 잡아먹으며 사는데 맑은 달밤을 유독 좋아하니 날아다니는 솜씨가 제법 때를 아는구나.

손오공은 봉인된 기와 틈과 서까래 아래를 따라 안으로 파고들어, 여러 문과 호를 지나 중간쯤 이르렀다. 그때 세 번째 누각 창문 아래에서 번쩍이는 빛줄기가 보였다. 그것은 등불이나 반딧불의 빛도 아니었

고, 노을이나 번갯불 같은 빛도 아니었다. 손오공이 반쯤 날고 반쯤 뛰며 창가로 다가가 보니, 바로 보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다. 요괴가 당삼장의 가사(스님이 입는 옷)를 벗겨서 정성껏 접지도 않고 보따리 안에 어지럽게 쑤셔 넣어 놓은 것이었다. 그 가사는 본래 부처님의 보물이라 그 위에 여의주, 마니주, 홍마노, 자산호, 사리, 야명주가 박혀 있어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손오공은 이 가사와 불기(승려의 도구)를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본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따리 끈이 비뚤어졌든 말든 상관치 않고 어깨에 짊어진 채 곧장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보따리 한쪽이 툭 하고 떨어지더니, 바닥에 '좌당'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래층에서 잠을 자던 늙은 요괴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사람이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자 크고 작은 요괴들이 모두 일어나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히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살피러 달려 나갔다. 어떤 요괴는 "당삼장이 도망갔습니다!"라고 보고했고, 또 어떤 요괴는 "행자 일행이 모두 도망갔습니다!"라고 외쳤다. 늙은 요괴는 급히 명령을 내리며 말했다. "각 문을 철저히 지켜라!" 손오공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요괴의 그물에 걸릴까 두려워, 보따리를 챙기기는커녕 곧장 창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나 버렸다.

요괴는 앞뒤로 당삼장 일행을 찾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본 요괴는 몽둥이를 챙겨 들고 무리를 거느려 뒤쫓아 나갔다. 그런데 산비탈 아래를 보니, 이미 이십팔숙과 오방계제 등의 신선들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며 진을 치고 있었다.

요괴 왕이 호통을 쳤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내가 간다!"

그러자 각목교가 다급히 외쳤다. "형제들아, 괴물이 나타났다!"

항금룡, 저토복, 방일토, 심월호, 미화호, 기수표, 두목해, 우금우, 여토학, 허일서, 위월연, 실화저, 벽수약, 규목랑, 루금구, 위토체, 묘일계, 필월오, 자화후, 참수원, 정목안, 귀금양, 유토장, 성일마, 장월록, 익화사, 진수인 등 이십팔숙이 금두계제, 은두계제, 육갑육정 등 신선들과 사찰을 수호하는 신장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팔계, 사오정과 함께 무기를 하나씩 움켜쥐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당삼장은 데려오지 못했고 백룡마도 잃어버린 상태였다.)

요괴 왕은 이 광경을 보고 허허거리며 냉소를 짓더니, 휘파람을 한번 크게 불었다. 그러자 사오천 명의 크고 작은 요괴들이 하나같이 위엄 있고 힘차게 몰려나와 서쪽 산비탈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그 기세가 실로 살벌했다.

시로 이르되,

마구 악한 마귀가 참된 성품을 괴롭히니 온화한 성품이 어찌 마귀를 당하리오. 온갖 계책을 써보아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천만 가지 신통력을 발휘해도 화합하기 어렵구나. 제천신들이 몰려와 옹호하고 여러 성인들이 무기를 들어 도와주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헛된 일이 되고 굳센 의지는 요괴의 꾀에 흔들리는구나. 하늘을 뒤흔들고 땅을 진동시키는 혼전 속에 그물과 올가미를 쳐서 억지로 가두려 하네. 이쪽에서는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저쪽에서는 북과 징을 울려대니 창과 칼은 차가운 빛을 뿜으며 번뜩이고 검과 극은 살기를 띠며 어지럽게 흘

날린다. 요괴 군사는 흥포하고 용맹한데 신령한 군사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근심 어린 구름은 해와 달을 가리고 처절한 안개는 산하를 뒤덮었네.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 까닭은 모두 삼장법사가 미타불에게 절을 올린 탓이라.

요괴는 더욱 용맹을 떨치며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몰아붙였다.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한창 싸우던 그때, 손오공이 크게 호통을 치며 외쳤다. “이 몸이 왔다!” 그러자 저팔계가 마중 나오며 물었다. “짐은 좀 어떠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짐이 문제냐!” 사오정은 보물 지팡이를 짚고 말했다. “잡담은 그만하고 어서 요괴를 잡으러 갑시다.”

그사이 별의 신령들과 게제, 정, 갑 같은 신들은 요괴 무리에게 둘러싸여 한창 죽을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고, 요괴 왕은 몽둥이를 휘둘러 세 신을 공격했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은 들고 있던 몽둥이와 지팡이를 내던지고 대신 쇠갈퀴를 휘둘러 맞섰다.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늘과 땅이 어둑어둑하여 도무지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지고 달이 동쪽 바다 위로 떠오를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었다.

날이 저물자 요괴는 휘파람을 불어 요괴 무리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명령하고는, 자신이 가진 보물을 꺼냈다. 손오공은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요괴가 보따리를 풀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손오공이 소리쳤다. “큰일 났다, 도망쳐라!”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 그리고 여러 신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몸을 날려 구만리 높은 하늘

위로 꺾충 뛰어올랐다. 신들과 저팔계, 사오정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다가, 손오공이 그들을 획 던져 보따리 속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모두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 오직 손오공만이 홀로 빠져나간 것이다.

요괴 왕은 군사를 거두어 사찰로 돌아가더니, 다시 밧줄을 꺼내어 예전처럼 일행을 묶게 했다. 당삼장과 저팔계, 사오정을 대들보에 매달아 높이 묶어버리고, 백룡마도 뒤에 묶어두었다. 신선들 또한 모두 묶어서 지하 창고로 옮긴 뒤 뚜껑을 굳게 닫아 봉쇄했다. 요괴들은 그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손오공은 구만리 상공으로 뛰어올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요괴 병사들이 깃발도 세우지 않은 채 급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일행이 모두 붙잡혔음을 직감했다.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을 타고 내려와 동쪽 산꼭대기에 내려앉았다. 요괴를 향한 원망에 이를 갈다가도, 당삼장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님!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이번 생에는 이토록 험난한 고난만 겪으시는 겁니까? 매 걸음마다 요괴를 만나니, 이 고통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홀로 한참 동안 탄식하던 손오공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저 요괴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저토록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는 천신과 천장들까지 수많은 사람을 저 보따리 안에 다 집어넣었구나. 하늘에 구원을 요청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옥황제가 나를

괴이하게 여길까 걱정되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 북방에 진무라는 신선이 계셨지. 탕마대천존이라 불리는 그분이 지금 남섬부주 무당산에 계시니, 내가 가서 그분을 모셔와 스승님의 난관을 구해드려야겠다.'

시로 이르되,

"신선의 도는 이루지 못한 채 원숭이만 흠어지고,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오행의 기운마저 메말랐구나."

결국 이번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6회 — 제신이 독수를 당하고, 미륵 이 요마를 결박하다

諸神遭毒手 彌勒縛妖魔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은 달리 방도가 없자, 상서로운 구름 한 조각을 타고 근두운을 몰아 곧장 남섬부주로 달려가 무당산의 진무 대제를 찾아가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천병들까지 모두 껴고 있는 재난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기로 했다. 그는 공중에서 쉬지 않고 달려 하루도 안 되어 스승님의 선경이 눈앞에 보이자, 가볍게 구름을 내려앉히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동남쪽 거대한 마을이 있고, 하늘 중심에는 신령한 산이 솟아 있다. 부용봉은 빼어나게 높고, 자개령은 웅장하게 뻗어 있다. 아홉 강줄기가 흘러 형주와 양주까지 멀리 이어지고, 백월의 산맥은 익진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다. 산 위에는 태허의 보배로운 동굴과 주륙의 영험한 제단이 있으며, 서른여섯 궁에서는 금빛 경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참배객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순임금과 우임금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며, 하늘의 기록이 담긴 옥간과 금서가 전해진다. 누각 위로는 푸른 새

들이 날아다니고, 깃발들은 붉은 자락을 휘날린다. 땅에는 명산이 있어 우주를 웅장하게 채우고, 하늘에는 선경이 열려 허공을 뚫고 솟아 있다. 몇 그루의 낭매화는 활짝 피어 있고, 산 가득한 요초는 빗갈을 뿜 내며 펼쳐져 있다. 골짜기 밑에는 용이 잠겨 있고, 절벽 사이에는 호랑이가 엮드려 있다. 그윽한 계곡 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듯하고, 온순한 사슴은 사람 곁으로 다가온다. 흰 학은 구름을 벗 삼아 오래된 잣나무에 깃들고, 청란과 단봉은 햇살을 향해 울어댄다. 옥허의 스승이 계신 참된 신선의 땅이자, 금빛 궁궐에서 인자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문이다.

상제 조사는 정락국 왕과 선승 황후가 꿈속에서 태양을 삼키는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 임신을 하여, 열네 달을 품은 끝에 개황 원년 갑진년 삼월 초하루 오시에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분은 이러하였다.

어릴 적부터 용맹하고, 자라서는 신령하였다. 왕위를 다스리기보다, 오직 수행에 힘썼다. 부모님도 말릴 수 없어, 황궁을 떠나갔다. 현묘한 도를 닦고 정진하여, 바로 이 산에 머문다. 공덕을 다하고 수행을 마치니, 백일하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옥황제께서 칭호를 내리시니, 이름은 진무라 하더라. 하늘의 허공과 응하여, 거북과 뱀이 하나로 합쳐졌다. 온 세상의 조화가, 모두 그를 만령이라 칭송한다. 어두운 곳도 살피지 못함이 없고, 드러난 곳도 이루지 못함이 없다. 겁이 끝나고 다시 시작될 때, 마귀의 정기를 베어 넘긴다.

손오공은 선경의 경치를 구경하며 일천문, 이천문, 삼천문을 차례로 지나갔다. 마침내 태화궁 밖에 이르니, 상서로운 빛과 서기가 감도는 가운데 오백 명의 영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영관들이 앞으로

나와 맞이하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제 천대성 손오공이라 하오. 스승님을 뵙고자 왔소." 영관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보고하였다. 조사가 곧 전각에서 내려와 태화궁으로 마중 나왔다. 손오공이 예를 갖추며 말했다.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삼장법사님이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에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서우하주에 소서천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소뢰음사라는 곳에 요괴가 살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산문에 들어서시니 아라, 계제, 비구, 성승 같은 부처님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진짜 부처님인 줄 알고 절을 올리려다가, 갑자기 요괴에게 붙잡혀 묶이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방심한 사이에 요괴가 던진 금로(금빛 통)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통은 틈새 하나 없이 입구가 집게처럼 딱 닫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두계제가 옥황상제께 아뢰어, 옥제께서 이십팔수 신장을 보내시니 그날 밤 하계로 내려왔으나 그 통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항금룡이 뿔을 통 안으로 밀어 넣어 저를 꺼내 주었고, 제가 그 금로를 부수자 요괴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깬습니다. 그런데 싸우던 중에 요괴가 하얀 천으로 된 보따리를 던지더니, 저와 스물여덟 명의 신장들, 그리고 오방계제까지 모두 담아 줄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제가 밤중에 겨우 탈출하여 별들과 삼장법사님 일행을 구출했습니다. 그 후 법구를 찾으려다 다시 요괴를 깨우게 되어 천병들과 싸웠는데, 요괴가 다시 보따리를 꺼내 만지작거릴 때 제가 눈치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 보따리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방도가 없어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내가 예전에 북방을 호령하며 진무의 자리에 있을 때, 천하의 요괴를 베는 것은 모두 옥황제의 칙령을 받은 것이었다. 그 후 머리를 풀고 맨발로 신령한 거북과 뱀을 타고, 다섯 뇌신장과 거대한 규룡, 사자, 맹수와 독룡들을 거느리고 동북방의 검은 요기를 제압 하였으니, 이는 원시천존의 부적을 받은 덕분이었다. 지금은 무당산에서 태화전을 지키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온 세상이 태평하고 건곤이 맑구나. 하지만 남섬부주와 북구로주 땅에 요괴가 날뛰고 사악한 귀신들이 숨어든다니, 대성이 내려왔으니 나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구나. 다만 천계의 명을 받지 않고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옥황제께 죄를 지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대성을 전적으로 돕자니 인정을 저버리는 것 같아 망설여지는구나. 서천 길에 요괴가 있다 한들 아주 큰 해는 끼치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내가 거북과 뱀 두 장군, 그리고 다섯 신룡을 보내 너를 돕게 할 터이니, 반드시 요괴를 잡아 스승님의 난을 해결하도록 하거라."

손오공은 조사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구사 장군, 용신들과 함께 정예 병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서천의 경계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소퇴음사에 도착한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곧장 산문 밖으로 내려가 요괴를 향해 싸움을 외쳤다.

한편, 황미대왕이 괴물들을 모아놓고 보물각 아래에서 말했다. "손오공 저놈이 이틀째 나타나지 않으니, 또 어디로 병사를 빌리러 갔는지 모르겠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문에서 작은 요괴가 달려와 보고했다. "행자가 용신과 거북·뱀 두 장군 등 몇 명을 데리고 문밖에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그 원숭이가 어찌 용과 뱀, 거

북의 형상을 한 자들을 데려왔단 말이냐? 저런 자들은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냐?" 황미대왕은 즉시 무장을 하고 산문을 나서며 크게 외쳤다. "네놈들은 어느 길의 용신이냐? 감히 어디라고 내 선경에 침범하느냐!" 다섯 용과 두 장군은 기세가 당당하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위엄이 넘쳤다. 그들이 호통을 쳤다. "이 고약한 괴물놈아! 우리는 무당산 태화궁 혼원교주 탕마천존(진무대제)의 부름을 받은 다섯 용신과 거북·뱀 두 장군이다. 지금 제천대성의 요청과 우리 천존님의 부적에 따라 너를 잡으러 왔다. 이 요괴야, 어서 삼장법사와 천계의 신선들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산의 괴물들을 모조리 베어 죽이고, 이 건물들을 모두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요괴는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 미친한 놈들이 무슨 법력이 있다고 감히 큰소리를 치느냐! 거기 서라, 내 몽둥이 맛을 봐라!" 다섯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뿌렸으며, 두 장군은 흙과 모래를 일으키며 창과 칼, 도와 극을 들고 일제히 공격해 들어갔다. 손오공 또한 철봉을 휘두르며 뒤를 따랐다. 한바탕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시로 이르되, 흉악한 요괴는 무력을 휘두르고, 행자는 병사를 구하러 왔네. 요괴는 보물각을 차지하고 불상을 세웠으며, 행자는 멀리 보배로운 곳을 찾아 용신을 빌리러 왔구나. 거북·뱀과 용신은 물과 불을 일으키고, 요괴는 칼과 병기를 휘두르네. 다섯 용은 명을 받들어 서쪽 길로 왔고, 행자는 스승을 구하러 뒤를 쫓네. 창과 칼이 빛을 발하며 무지갯빛처럼 번뜩이고, 창과 도가 눈부시게 번쩍이네. 저 남아봉은 짧고 부드러우나 능히 강하며, 이 여의금고봉은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라네. 폭죽이 터지는 듯 광광거리는 소리와 쇠를 두드리는 듯 쟁강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네. 물과 불이 한데 어우러져 괴물을 정벌하고, 병

기들이 때를 지어 정령들을 에워싸네. 함성 소리는 늑대와 호랑이를 놀라게 하고, 소란스러운 싸움은 귀신을 떨게 하네. 한창 혼전이 벌어져 승부를 가릴 수 없을 때, 요괴가 다시 보물을 꺼내 드네.

손오공이 다섯 용과 두 장군을 거느리고 요괴와 반 시진 동안 싸우고 있을 때, 요괴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주머니를 풀었다. 이를 본 손오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외쳤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용신과 거북·뱀 두 장군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몰라, 하나같이 무기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막으려 했다. 그때 요괴가 획 하고 주머니를 던졌다. 손오공은 용신과 두 장군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근두운을 타고 구만리 상공으로 뛰어올라 겨우 탈출했다. 하지만 용신과 거북·뱀 두 장군은 그만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요괴는 승리했다며 절로 돌아가, 잡힌 자들을 밧줄로 꿰뚫어 지하실에 던져 넣고 뚜껑을 덮어버렸다.

손오공이 구름에서 내려와 산꼭대기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는 한탄하며 말했다. "그 괴물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러고는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천대성님,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스승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손오공이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살펴보니, 바로 일직공조였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놈, 보잘것없는 신선 같으니라고! 평소에는 그쪽에서 피와 고기나 탐하느라 출근도 안 하더니, 오늘따라 왜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냐? 다리 좀 내밀어 보아라. 이 몸이 몽둥이로 한 대 때려줘야 속이 풀리겠다!" 일직공조가 황급히 예를 갖

추며 말했다. "대성님, 대성님은 인간 세상의 기쁨을 주는 신선이신데 어찌 근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보살님의 명을 받들어, 몰래 당승을 보살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토지신 등과 함께 곁을 지켜야 하기에 감히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지, 어찌 대성님을 무시하겠습니까? 어찌 저를 꾸짖으십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네가 보살피고 있다면, 지금 별자리 신들이나 계제, 가람신(절을 지키는 신)들, 그리고 우리 스승님 일행이 어디에 갇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일직공조가 대답했다. "스승님과 사제들은 모두 보전의 복도에 매달려 있고, 별자리 신들도 모두 지하실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요 이틀 동안 대성님의 소식이 없기에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요괴가 신통과 거북·뱀 장군까지 잡아다가 지하실로 보내버렸더군요. 그제야 대성님이 보내주신 병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신이 급히 대성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성님, 부디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어서 구원병을 구해 오십시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일직공조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하늘의 궁궐을 뵙기가 부끄럽고, 바다의 보물 창고를 마주하기가 민망하구나. 보살님께는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쭙기 두렵고, 여래 부처님의 불상을 뵈면 한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린다. 방금 요괴에게 잡혀간 이들은 진무 대제의 가르침을 받은 구사 장군과 다섯 용신 성중들이 아니냐.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방도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나?"

일직공조가 웃으며 말했다.

"제천대성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정예 병사들이 있는 곳이 한 군데 떠올랐는데, 그들을 모셔 오면 반드시 요괴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대성님께서 다녀오신 무당산은 남섬부주의 땅입니다. 그 병사들이 있는 곳 또한 남섬부주의 우이산 진성, 즉 지금의 사주입니다. 그곳에는 신통력이 광대한 대성국사왕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소장태자라는 제자가 있고, 사대신장이라는 네 명의 장수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은 옛날에 수모낭낭을 항복시킨 적이 있는 용맹한 이들입니다. 대성님께서 직접 가서 그들을 청해 오신다면, 분명 은혜를 베풀어 도와줄 것이니 요괴를 잡고 스승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마음이 기뻐져서 말했다.

"그대는 가서 우리 스승님을 잘 보호해 드려라. 요괴가 스승님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내가 어서 가서 그들을 모셔 오겠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괴물의 소굴을 벗어나 곧장 우이산으로 달려갔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곳이었다.

남쪽으로는 강나루와 가깝고 북쪽으로는 회수와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로 통하고 서쪽으로는 봉부와 이어진다. 산꼭대기에는 누각과 관이 높이 솟아 있고, 산골짜기에는 계곡물이 세차게 솟구친다. 험준한 기암괴석 사이로 빼어난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다. 온갖 과일들은 철을 맞아 싱싱하고, 천 가지 꽃들은 햇살을 맞이하며 활짝 피어 있다. 사람들은 개미 떼처럼 분주히 오가고, 배들은 기러기 떼처럼 넓

게 퍼져 나간다. 산 위에는 서암관, 동악궁, 오현사, 구산사가 있어 종소리와 향연이 푸른 하늘로 피어오르고, 유리천, 오탑곡, 팔선대, 살구꽃 정원이 있어 산빛과 나무 색이 빈성 마을에 비친다. 흰 구름은 머물 듯 떠다니고, 깊은 산새들은 지친 듯 울어댄다. 태산이나 향산, 화산 같은 명산이 아무리 빼어나다 한들, 이곳의 신선 같은 풍경은 영주와 봉래산을 방불케 한다.

손오공은 경치를 마음껏 구경하며 회수를 지나 빈성 안으로 들어갔고, 대성선사 산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곳에는 전각들이 웅장하게 서 있고 긴 회랑이 채색되어 화려했으며, 보탑 하나가 높이 솟아 있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구름을 뚫고 은하수에 기대어 천 길 높이 솟았으니, 우러러보니 금빛 병 모양의 탑이 푸른 하늘을 뚫을 듯하다. 위아래로는 빛이 응집되어 온 우주를 채우고, 동서로는 그림자조차 창가에 비치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보탑의 종소리는 하늘의 음악처럼 들리고, 햇빛에 비친 얼음 용은 범궁을 마주하고 있구나. 영험한 새들은 때때로 지저귀며 이야기를 나누고, 멀리 바라보니 회수가 끝없이 아득하도다.

손오공은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이층 문 앞에 다다랐다. 국사왕 보살은 이미 손오공이 온 것을 알고 소장태자와 함께 문밖으로 나가 맞이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소뢰음사라는 절을 지났습니다. 그곳에 황미라는 괴물이 부처를 사칭하고 있더군요. 저희 스승님은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절을 올리다가 붙잡히고 말았

습니다. 게다가 금로(금빛 낚시 그릇)로 저를 가두었는데, 다행히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금로를 부수고 괴물과 싸우는 와중에, 괴물이 천신과 계제, 가람신, 그리고 저희 스승님과 사제들을 모두 인종대라는 주머니에 담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산에 가서 진무 대제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제께서 다섯 용신과 거북·뱀 장군을 보내 괴물을 잡게 하셨으나, 그놈이 또 주머니를 휘둘러 그들마저 다 잡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렇게 보살님을 찾아왔으니, 부디 위력을 떨치셔서 물을 다스리는 신통력과 중생을 구하는 묘용을 발휘해 저와 함께 스승님을 구해주십시오. 경전을 얻어 돌아가면 영원히 중국에 전해질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드높이고 반야바라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자 국사왕이 말했다.

"그대의 일은 참으로 우리 불교의 흥함을 위한 일이니, 마땅히 직접 나서야겠소. 하지만 지금은 초여름이라 회수의 물이 막 불어나고 있는 때라오. 마침 새로 거둔 수원대성이라는 녀석이 물만 만나면 날뛰는 성격이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중에서 멋대로 굴며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려. 그러니 내 제자인 소장태자와 네 명의 장수를 보내 그대를 돕게 하여, 저 마물을 물리치고 항복시키도록 하겠소."

손오공이 감사를 표한 뒤, 소장태자와 네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소서천의 소뢰음사로 돌아갔다. 소장태자는 하얀 창을 들고 네 장수는 네 자루의 칼을 휘두르며 손오공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요괴를 꾸짖으며 싸움을 걸었다.

요괴의 부하가 달려가 보고하자, 요괴 왕이 다시 요괴 무리를 거느리고 떠들썩하게 밖으로 나오며 외쳤다. "이 원숭이 녀석아, 이번에는 또 누구를 데려왔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장태자가 네 장수를 지휘하며 앞으로 나서서 호통을 쳤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얼굴에 살도 없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아보지도 못하느냐?"

요괴 왕이 말했다. "저쪽 나라의 어린 장수가 감히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왔느냐?"

소장태자가 대답했다. "나는 사주 대성국사왕 보살의 제자로, 네 명의 신장을 거느리고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요괴 왕이 웃으며 말했다. "네놈이 무슨 무예가 있기에 감히 여기까지 와서 까불며 드느냐?"

소장태자가 말했다. "내 무예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내가 읊어줄 테니 잘 들어라!

서쪽 땅 유사국에 조상 대대로 살았으며, 내 아버지는 본래 그 나라의 왕이셨다네. 어릴 적 몸에 병이 많아 고생이 심했으나, 나쁜 별의 기운이 앞길을 가로막았었지. 스승님께서 불로장생의 비결을 멀리서 힘모하시니, 인연이 닿아 약방문을 전해주셨다네. 단약 반 알에 병을 씻고 고통을 물리쳤으니, 왕이 되기보다 수행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네. 수행을 마치니 늙지 않고 하늘의 수명을 누리며, 얼굴은 언제나 소년처럼 빛이 난다네. 용화회의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불당에 오르기도 했었지. 안개를 잡고 바람을 다스리며 물괴물을 거두고,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켜 산천을 평정했다네. 백성들을 보살피며 탑을 높이 세우고, 바다를 고요히 하여 사리의 빛을 밝히니, 하얀 창끝으로는 괴물을 묶어버리고, 검은 승복 소매로는 요괴를 항복시킨다네. 이제 사주의 평온한 성안에서, 소장태자의 이름을 널리 떨치리라!"

요괴 왕은 그 말을 듣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태자라는 녀석아, 나라를 버리고 국사왕 보살을 따라 어떤 불로장생의 술법을 닦았기에, 고작 회하의 물괴물이나 잡을 줄 알면서 손오공의 거짓말에 속아 이 먼 길을 달려와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네가 정말로 오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소장태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창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찔러 들어왔고, 사대신장 또한 한꺼번에 달려들며 공격했다. 손오공은 철봉을 휘둘러 맞서 싸웠다. 요괴 또한 기세등등하여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제 손에 든 짧고 뭉툭한 낡아봉을 휘두르며 이리저리 막아내고 저리저리 부딪치며 거침없이 돌진했다.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했다.

"소장태자, 백색 창, 그리고 네 자루의 보검이 더 강력하구나!"

손오공은 금고봉까지 휘두르며 모두가 마음을 모아 요괴 왕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요괴 왕의 신통력이 워낙 대단하여, 그들의 공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받아넘겼다. 요괴가 휘두르는 늑대 이빨 모양의 몽둥이는 부처의 보물만큼이나 위협적이었고, 칼로 베고 창으로 후려쳐도 도무지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다.

사방에서는 광풍이 몰아치며 웅장한 소리를 내뿜었고, 사악한 기운은 안개처럼 뿌옇게 뒤섞여 눈앞을 가로막았다.

시로 이르되,

어떤 이는 헛된 재주를 부리며 장난치기에 바쁘고, 어떤 이는 오로지 불경을 구하는 데 전념하는구나. 몇 번이고 말을 달려 거침없이 몰아치고, 구름과 안개를 뿜어내며 눈과 빛을 가리는구나. 분노를 터뜨리며 각자 제멋대로 날뛰니, 수많은 도술과 재주가 뒤엉켜 서로 다투는구나.

여러 사람이 한데 엉켜 한참 동안 격렬하게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때 요괴가 다시 보따리를 풀었다. 손오공이 다급히 외쳤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소장태자와 신장들은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그사이 요괴는 교묘한 솜씨로 사대신장과 소장태자를 한꺼번에 보따리 속에 끌어 담아버렸다. 다만 손오공은 미리 눈치를 채고 미리 몸을 피했을 뿐이었다. 승리감에 도취한 요괴는 절로 돌아가, 붙잡은 이들을 밧줄로 꾀꾀 묶어 지하실에 던져 넣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보니, 요괴가 병사들을 불러 모으고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손오공은 서둘러 구름을 낮추어

서쪽 산비탈에 내려앉은 뒤, 슬픈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울먹이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불법을 받들어 선림에 들어온 뒤로, 고난에서 구해주신 관음보살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서천으로 대도를 구하러 가시는 길을 지키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 소뢰음사까지 보필해 왔건만, 길이 평탄할 줄만 알았지 이토록 험한 요괴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갖 수를 다 써보아도 스승님을 구하기가 이토록 어려우니,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 보아도 헛된 수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손오공이 한창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남서쪽 하늘에서 채운 한 조각이 땅으로 떨어지더니, 온 산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공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손오공이 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그 사람은 이러했다.

"귀는 크고 턱은 넓으며 얼굴은 각진 모양이요, 어깨는 넓고 배는 볼룩한 풍채를 가졌네. 가슴에는 봄날 같은 기운이 넘쳐 웃음꽃이 만발하고, 두 눈은 가을 물결처럼 빛이 넘쳐흐르네. 소매를 넓게 펼친 모습은 신선 같아 복이 가득해 보이고, 짙신을 신은 모습은 기개가 넘쳐흐르네. 극락정토의 제일가는 존자이시니, 나무미룩 웃는 화상이라 하겠구나."

손오공은 그를 보자마자 급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동방에서 오신 부처님, 어찌 오셨습니까? 제자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고 있었으니, 만 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륵불이 말했다.

"내가 온 것은 오로지 이 소뢰음사의 요괴 때문이란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르신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여쭙건대, 저 요괴는 어느 쪽 괴물이며 어디서 온 정령입니까? 그리고 저 자루는 대체 어떤 보물입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미륵불이 대답했다.

"저놈은 내 앞에서 악기인 경(磬)을 관리하던 황미라는 이름의 동자란다. 지난 삼월 삼일에 내가 원시천존의 모임(원사회)에 참석하느라 궁궐에 남겨두고 왔는데, 저놈이 내 보물들을 훔쳐 달아나서 부처 행세를 하며 요괴가 된 것이지. 저 자루는 나의 '후천대(後天袋)'로, 속칭 '인종대(사람을 담는 주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저 몽둥이는 경을 치는 망치란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크게 소리쳤다.

"이런 웃기는 화상 같으니! 어르신께서 저 동자를 두고 떠나시는 바람에, 저놈이 감히 부처를 사칭하며 저를 해치게 되었으니, 가문의 법도를 바로잡지 못한 큰 잘못이 있습니다!"

미륵불이 말했다.

"첫째는 내가 부주의하여 사람을 놓친 탓이고, 둘째는 너희 사제들이 아직 마를 다 씻어내지 못하여 수많은 영혼이 세상에 내려와 고난을 겪는 탓이다. 내가 이제 저놈을 잡으러 왔느니라."

손오공이 말했다. "이 요괴는 신통력이 대단한데, 당신은 딱히 무기도 없으니 대체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미륵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 산비탈 아래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과일밭을 일구어 놓았네. 자네가 가서 요괴에게 싸움을 걸게나. 싸울 때는 반드시 지는 척해야 하며,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되네. 그러다 요괴를 내 과일밭으로 유인하게. 내 밭의 다른 과일들은 모두 익지 않았지만, 자네만 아주 잘 익은 커다란 과일로 변신하게나. 요괴가 반드시 과일을 먹으려 들 테니, 그때 자네와 요괴를 함께 먹어버릴 작정이라네. 요괴가 자네를 삼켜 뱃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자네가 마음대로 요괴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네. 그때 내가 요괴의 인종대를 뺏어 요괴를 그 안에 담아 돌아가면 된다네."

손오공이 말했다. "그 계책은 기가 막히지만, 당신이 어떻게 제가 변신한 익은 과일인 줄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요괴가 어찌 저를 따라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미륵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서 지혜로운 눈을 가졌으니, 자네를 못 알아볼 리가 있겠나? 자네가 무엇으로 변신하든 나는 다 알 수 있네. 다만 저 요괴가 따라오지 않을까 걱정되니, 내가 법술을 하나 알려줌세."

손오공이 물었다. "그놈은 분명 인증대로 저를 잡아 가둘 텐데, 어찌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어떤 법술이 있습니까?"

미륵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손을 내밀어 보게."

손오공이 즉시 왼손을 내밀어 건네주었다. 미륵은 오른손 검지에 입안의 신령한 물을 묻혀 손오공의 손바닥에 '금(禁, 금할 금)' 자를 써준 뒤, 주먹을 꼭 쥐고 있다가 요괴가 눈앞에 나타나면 손을 펴라고 일러 주었다.

손오공은 주먹을 쥐고 기분 좋게 싸울 채비를 마쳤다. 그는 한 손으로 여의봉을 휘두르며 산문 밖까지 달려 나가 크게 외쳤다. “요괴 놈아! 이 손 할아버지가 다시 왔다! 어서 나와서 승부를 겨뤄보자꾸나!” 그러자 요괴의 부하가 급히 달려가 보고했다. 요괴왕이 물었다. “그놈이 이번에는 군사를 얼마나 데려와서 싸움을 거느냐?” 요괴 부하가 대답했다. “다른 병사는 없고, 딱 혼자입니다.” 요괴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원숭이 놈이 이제 계책도 다 떨어지고 힘도 다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분명 제 목숨을 끊으러 온 것이로구나.” 요괴왕은 다시 몸단장을 하고 보물을 챙긴 뒤, 가볍고 부드러운 낭아봉을 치켜들고 문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소리쳤다. “손오공, 이번에는 절대로 못 이길 줄 알아라!” 손오공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고약한 괴물 놈아, 내가 왜 못 이긴다는 말이냐?” 요괴왕이 말했다. “네놈이 계책도 없고 힘도 다해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억지로 버티러 온 것을 보았다. 이제 잡히기만 하면 그 어떤 신령한 병사도 너를 구하러 오지 못할 터이니, 그래서 네가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괴물 놈이 죽고 사는 법을 모르는구나. 말은 그만하고 내 몽둥이나 받아라!” 요괴왕

은 손오공이 한 손으로만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 원숭이 좀 보게나. 저놈이 재주를 부리는 것 좀 봐. 어째서 한 손으로만 몽둥이를 휘두르며 버티는 거지?” 손오공이 말했다. “이 놈아, 내 두 손으로 때리면 못 버틸지 몰라도, 만약 내가 두 손을 다 쓰지 않고 한 손만 쓴다 해도 너는 나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요괴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좋다, 좋다! 그럼 이번에는 보물을 쓰지 않고 오직 맨손으로만 정정당당하게 맞붙어 승부를 내보자꾸나!” 그러고는 낭아봉을 치켜들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손오공도 정면으로 마주하며 주먹을 내지르고 두 손으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요괴는 기세가 올라 물러설 줄 모르고, 정말로 꾀수를 부리지 않은 채 오직 몽둥이를 휘두르며 손오공을 몰아붙였다. 손오공은 슬쩍 허풍을 떨며 패배한 척하고는 줄행랑을 쳤다. 요괴는 그 뒤를 곧장 쫓아 서쪽 산비탈 아래까지 달려갔다.

손오공은 수박밭을 보자마자 몸을 굴러 그 안으로 파고들더니, 순식간에 아주 잘 익고 달콤한 커다란 수박으로 변신했다. 요괴는 멈춰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손오공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요괴가 암자 근처로 달려가 외쳤다. “이 수박은 누가 심은 것이냐?”

미륵이 수박을 심은 노인으로 변신하여 초가집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대왕님, 이 소인이 심은 것입니다.”

요괴가 물었다. “잘 익은 것이 있느냐?”

미륵이 대답했다. "잘 익은 것이 있습니다."

요괴가 명령했다. "목이 마르니 잘 익은 놈으로 하나 따오너라."

미륵은 손오공이 변해 있는 그 수박을 두 손으로 받들어 요괴에게 건네주었다. 요괴는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수박을 받아 들고는 입을 크게 벌려 덥석 베어 물었다.

그 틈을 타 손오공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요괴의 목구멍 아래로 쑥 파고 들어갔다. 속으로 들어간 손오공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창자를 휘젓고 배 속을 헤집으며, 재주를 넘고 물구나무를 서며 요괴의 뱃속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다.

요괴는 배가 끓어질 듯한 통증에 입을 벌린 채 눈물을 펄펄 쏟았다. 수박을 심었던 밭은 마치 보리를 타작하는 마당처럼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졌다. 요괴는 비명을 질러댔다. "아이고, 죽겠구나! 제발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다오!"

그때 미륵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히히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이 못된 놈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요괴가 고개를 들어 미륵을 보자, 황급히 땅에 납죽 엎드렸다. 그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머리를 땅에 찼으며 빌었다. "주인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미륵이 앞으로 다가가 요괴를 덥석 붙잡더니, 그가 차고 있던 인종대(사람을 담는 주머니)를 풀어 빼앗고, 악기를 치던 망치까지 뺏어버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손오공아, 내 얼굴을 봐서 이번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자꾸나."

손오공은 분이 풀리지 않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요괴의 뱃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다. 요괴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미륵이 말했다. "오공아,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그만 용서해 주거라." 손오공이 다시 소리쳤다. "입을 크게 벌려라! 이 몸이 나갈 테니!" 요괴는 배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아직 정신줄을 놓지는 않았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은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죽지 않고, 꽃과 잎이 다 져야 뿌리가 마른다'고 하지 않던가. 요괴는 입을 벌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통을 참으며 입을 크게 벌렸다.

그제야 손오공이 뱃속에서 튀어나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손오공이 급히 여의봉을 휘둘러 다시 공격하려는데, 미륵이 이미 요괴를 주머니에 담아 허리춤에 비스듬히 메고 있었다. 미륵은 경쇠 채를 손에 든 채 꾸짖었다. "이 못된 놈! 훔쳐 간 금경(金鏡)은 어디로 가져갔느냐?" 요괴는 목숨을 구걸하며 주머니 속에서 웅얼웅얼 투덜거렸다. "금경은 손오공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미륵이 다시 물었다. "경쇠가 깨졌으면 내 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 요괴가 대답했다. "부서진 금 조각들은 대전 연화대 위에 쌓여 있습니다."

미륵불은 주머니를 들고 악기 채를 쥐더니, 히히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손오공, 내가 함께 가서 금로를 찾아보자꾸나." 손오공은 미륵불

의 신통력을 보고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미륵불을 산으로 인도하여 절 안으로 들어간 뒤, 흩어진 금로 조각들을 거두었다.

절의 산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미륵불이 채로 문을 가리키자 문이 활짝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요괴들은 이미 대장 요괴가 잡혔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마다 주머니를 챙겨 살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손오공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요괴들을 때려눕혔다. 한 마리를 보면 한 마리를 치고, 두 마리를 보면 두 마리를 쳐서, 결국 오칠백 마리에 달하는 작은 요괴들을 모조리 때려죽였다. 죽은 요괴들은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하나같이 산의 정령이나 나무 괴물, 짐승이나 새의 요괴들이었다.

미륵불은 거두어들인 금 조각들을 한데 모은 뒤,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조각들이 즉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완전한 금로 한 쌍이 되었다. 미륵불은 손오공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곧장 극락세계로 떠났다.

손오공은 그제야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풀어주었다.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던 저팔계는 배가 너무 고프 나머지, 손오공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기 전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주방으로 달려가 밥을 찾았다. 마침 요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손오공이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아직 먹지 못하고 있었다. 저팔계는 그것을 보자마자 솥에 담긴 밥을 반이나 먹어 치웠다. 그리고는 그릇 두 개를 가져와 스승님과 사제에게도 각각 두 그릇씩 먹으라고 권한 뒤에야 겨우 손오공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요괴가 왜 나타났는지 묻자, 손오공은 진무 대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일부터 시작해 용신과 구사 장군을 부르고, 소장태자를 빌려온 일, 그리고 미륵불이 나타나 요괴를 항복시킨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삼장법사는 감사의 말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 하늘의 여러 신성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제자야, 그 신성한 분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어제 일직공조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모두 지하실 안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팔계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분들을 구해내자!”

그 멍청한 저팔계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더니,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갈퀴를 찾아 들었다. 그러고는 손오공과 함께 뒤편으로 가서 지하실 문을 열고, 묶여 있던 사람들의 밧줄을 풀어 모두 밖으로 나오게 했다. 삼장법사는 가사를 여미고 나서, 위를 향해 일일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손오공은 다섯 용신과 두 장군을 무당산으로 돌려 보내고, 소장태자와 네 장군을 빈성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이십팔수 신선들을 천부로 돌려보낸 뒤, 계제와 가람의 신들도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게 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만나질 동안 머물렀다. 백룡마에게 먹이를 듬뿍 주고 짐을 챙긴 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길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들은 불을 질러 그곳의 화려한 누각과 보좌, 높은 건물과 강당을 모두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버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며,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다.

"미련도 걸림도 없이 재난을 피해 떠나니, 재앙과 장애를 없애고 몸을 빼내었구나."

결국 언제쯤 대뢰음사에 도착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7회 — 타라선의 고통에서 구제되어 성품이 안정을 찾고, 더러움에서 벗어나 도심이 맑아지다

拯救駝羅禪性穩 脫離穢汚道心清

이야기는 이러하다. 삼장과 세 제자는 소서천을 떠나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한 달 정도 길을 가니 마침 봄이 깊어 꽃이 만발할 때였다. 곳곳의 정원에는 푸른 잎이 우거져 있었고, 한바탕 비바람이 지나간 뒤라 어느덧 황혼이 내려앉고 있었다. 삼장이 말의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제자들아, 날이 저무는구나. 저 길로 가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보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만약 묵을 곳이 없더라도 저희 셋에게는 다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팔계에게는 풀을 베라 하고, 사오정에게는 소

나무를 뽑으라 한 뒤, 이 손오공이 목수 노릇을 해서 길가에 오두막 하나를 똑딱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 년쯤은 끄떡없이 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 여기가 어딘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산에는 호랑이와 표범, 이리나 늑대가 가득하고 땅에는 온갖 요괴가 들끓는데, 대낮에도 다니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밤에 잠을 잔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 갈수록 발전이 없구나. 내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이 여의봉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한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다 버틸 수 있단 말이다."

스승과 제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멀지 않은 곳에 장원 하나가 보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자, 이제 목을 곳이 생겼네요." 삼장이 물었다. "어디냐?"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숲 사이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납시다." 삼장은 기쁜 마음으로 말을 몰아 장원 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보니 사립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삼장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계십니까, 문 좀 열어 주십시오!"

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었으며,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문을 열고는 물었다. "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

오?" 삼장이 가슴 앞에 합장하고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노보 살님, 소승은 동토에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이곳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었으니, 부디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스님, 서천으로 가시려면 이곳은 못 지나갑니다. 여기는 소서천인데, 대서천까지 가려면 길이 아주 멀기도 하지만, 앞길이 험한 건 차치하더라도 당장 이 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어떻게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마을에서 서쪽으로 삼십여 리쯤 가면 칠절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에 희시통이라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칠절'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그 산길은 팔백 리나 되는데, 온 산이 감나무로 가득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감나무에는 일곱 가지 뛰어난 점이 있다. 첫째는 수명을 늘려주고, 둘째는 그늘이 깊으며, 셋째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고, 넷째는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다섯째는 서리 맞은 잎이 보기 좋고, 여섯째는 열매가 맛깔스러우며, 일곱째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칠절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이 곳은 땅은 넓으나 사람이 드문데, 저 깊은 산속은 예부터 사람이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매년 잘 익은 감들이 길 위로 떨어지면 바위 사이의 좁은 길을 온통 메워버리고, 또 비와 이슬, 눈과 서리를 맞으며 여름 내내 썩다 보니 길이 온통 오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희시통'이라 부릅니다. 서풍이 불 때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아무리 더러운 변소라 해도 이만큼 고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은 봄이 깊어 동남풍이 세계 불고 있으니 아직 냄새가 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삼장은 마음이 답답해졌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참다못해 크게 소리쳤다. "이 노인네가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먼! 우리가 멀리서 숙박을 하러 왔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으며 사람을 겁주다니. 당신 집이 좁아서 잠잘 데가 없으면 그냥 이 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보내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해대나?"

노인은 손오공의 험상궂은 생김새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채 억지로 용기를 내어 호통을 치며, 지팡이로 손오공을 가리켰다. "이놈아! 얼굴은 울퉁불퉁하고 이마는 툭 튀어나왔으며, 코는 뭉툭하고 턱은 움푹 들어갔구나. 눈은 켜하니 마치 병든 귀신 같으면서, 어디서 감히 예의도 없이 이 늙은이에게 대드느냐?"

손오공이 짐짓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눈이 있어도 사람 볼 줄을 모르시는구먼. 이 병든 귀신을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말입니다. 관상가들이 이르기를, '생김새가 괴상한 자 속에 아름다운 옥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면 아주 큰 실수입니다. 제가 비록 못생기긴 했어도, 꽤 대단한 재주가 있거든요."

노인이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성명은 무엇이며, 대체 어떤 재주가 있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노래하듯 말했다.

"내 고향은 동승대신주라네, 화과산 앞에서 어려서부터 수행했지. 영대방촌의 스승님을 모시고, 무예를 익혀 그 실력 아주 완벽하네. 바다를 휘저어 용의 어머니를 굴복시키고, 산을 짊어지고 해를 쫓아갈 수도 있지. 요괴를 묶고 마귀를 잡는 데는 내가 제일이라, 별자리를 옮겨 놓으니 귀신조차 두려워하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영웅적 이름, 나는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석후라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어서 들어와 이 초라한 집에서 쉬어가시게."

그리하여 네 사람은 말과 짐을 이끌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집 양 옆으로는 가시덤불이 깔려 있었고, 이중 문은 벽돌로 쌓은 담장에 가시덤불을 덮어 만든 형태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기와를 얹은 방 세 칸이 나타났다. 노인은 의자를 가져와 앉아 차를 대접할 준비를 하며 밥을 차리라고 시켰다. 잠시 후, 탁자 위에는 밀가루 음식과 두부, 토란 순, 무, 겨자, 순무, 향긋한 쌀밥, 그리고 식초를 넣고 끓인 아욱국 등 갖가지 음식이 차려졌고, 스승과 제자들은 배불리 한 끼를 먹었다.

식사를 마친 저팔계가 손오공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사형, 이 노인이 처음에는 숙박을 안 하겠다고 버티더니, 이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까지 차려주니 어찌 된 일일까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게 다 무슨 돈이 된다고 그러느냐? 내일이면 또 열 가지 과일과 열 가지 채소를 우리에게 대접하라고 요구할 게다."

저팔계가 말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네요! 사형이 그 몇 마디 허풍으로 노인을 속여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 내일 당장 도망이라도 치면 노인이 사형을 또 대접해 주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라, 다 생각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황혼이 내려앉자, 노인이 다시 등불을 켜라고 불렀다. 손오공이 몸을 굽혀 예의를 갖추며 물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이 씨라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이곳이 이 씨 성을 가진 분들이 사는 이가장인가요?"

노인이 말했다.

"아니라네. 이곳은 타라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오백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지. 여러 성씨가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 집안만 이 씨라네."

손오공이 물었다.

"이 보살님, 저희에게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방금 요괴를 잡을 줄 안다는 말을 들었네만, 마침 우리 마을에 요괴가 하나 있어. 자네가 우리를 대신해 그놈을 좀 잡아준다면, 반드시 큰 보답을 하겠네."

손오공은 공손히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보세요, 저 양반이 사고를 치는 꼴을 좀 보라고요. 요괴를 잡는다고 호기롭게 나서면서, 자기 외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저렇게 미리 덥석 약속부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사람아,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내가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버려야 저 노인이 다른 사람을 부르러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삼장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너는 매사에 왜 그리 네 마음대로만 하느냐. 만약 저 요괴가 신통력이 엄청나서 네가 도저히 잡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한 꼴이 되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이 노인이 물었다. "대체 무엇을 더 물으시려는 겁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이곳은 지세가 평탄하고 깨끗한 데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곳도 아닌데 어떤 요괴가 감히 이런 부유한 마을에 나타난단 말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아주 오랫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3년 전 6월 무렵, 갑자기 한바탕 바람이 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곡식을 타작하느라 마당에 모여 있고, 모내기 하느라 논밭에 나가 있어 모두가 정신없이 바빴는데, 다들 날씨가 변고가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요괴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기르던 소와 말을 잡아먹고 돼지와 양도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닭과 거위는 통째로 삼켜버리고, 남녀를 만나면 산 채로 씹어 삼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스님, 만약 스님께 재주가 있어 요괴를 잡아 이 땅을 깨끗이 치워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큰 보답을 할 것이니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참 잡기 어렵겠는데요."

그러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정말 잡기 어렵겠네, 어렵겠어. 우리는 그저 길을 가는 승려들일 뿐이라, 하룻밤 묵어보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데 요괴를 무슨 수로 잡겠나?"

노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당신은 알고 보니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떠돌이 승려였구려! 처음 만났을 때는 별을 훑기고 구름을 부리며 요괴를 항복시키고 괴물을 묶어버릴 것처럼 큰소리를 치더니, 막상 이 이야기를 꺼내니 잡기 어렵다며 발뺌을 하다니!"

손행자가 말했다. "어르신, 요괴를 잡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어서 잡기가 힘든 것이지요."

이 노인이 물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행자가 대답했다. "요괴가 3년 동안이나 마을을 어지럽히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짐승을 해쳤겠습니까? 집집마다 은 한 냥씩만 내놓는다면, 500가구만 모아도 은 500냥이라는 큰돈이 됩니다. 그 돈이면 어디든 가서 법사(法官) 한 사람을 구해 요괴를 잡게 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3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참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이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돈을 쓰는 문제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은 서너 냥 정도는 아낌없이 썼습니다. 재작년에 산 남쪽에 사는 스님 한 분을 찾아가 요괴를 잡아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손행자가 궁금하여 물었다. "그 스님은 요괴를 어떻게 잡으려던 참이었습니까?"

이 노인이 회상하며 말했다. "그 스님은 가사를 걸치고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공작경을 읊고 나서 법화경을 외우셨습니다. 향로에는 향을 피우고 손에는 방울을 들고 계셨지요. 한창 경전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요괴가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바람이 일고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요괴가 마을로 곧장 들이닥쳤지요. 스님과 요괴가 싸우는 모습은 정말 볼

만했습니다. 주먹을 한 번 내지르면 손으로 한 번 낚아채고, 다시 주먹을 내지르면 또 한 번 낚아채며 맞서 싸웠지요. 그런데 스님이 맞대응을 하려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몽땅 뽑혀버렸습니다. 결국 잠시 후 요괴가 이기고는 안개와 노을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알고 보니 요괴가 상처를 다 말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스님의 머리는 마치 쪼개진 수박처럼 민둥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쪽이겠는데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했다. "그놈은 목숨 하나 내놓고 덤비는 건데,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라네. 그놈을 위해 관을 짜서 장례를 치러주고, 또 그 제자에게 은자까지 쥐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제자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손행자가 물었다. "그놈을 잡으려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른 적은 없습니까?"

이 노인이 대답했다. "작년에 도사 한 명을 모셔온 적이 있지요."

"그 도사는 어떻게 그놈을 잡으려 했습니까?" 손행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그 도사라는 사람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법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요령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부적을 태운 물을 뿌리며 신령과 장수들을 불러내어 요괴를 붙잡으려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도사와 요괴

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싸우다가 괴물이 구름 속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하늘과 땅이 다시 맑아지길 기다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사를 찾아 나섰더니, 글썽 도사가 산골짜기 시냇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건져 올려 살펴보았더니, 그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꼴이더군요!"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셈이군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했다. "그놈은 제 목숨 하나 내놓는 게 전부겠지만, 우리는 돈과 양식을 넉넉히 내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손행자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그놈을 잡아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했다. "만약 정말로 그놈을 잡을 재주가 있다면, 마을 어른들을 모셔다가 문서로 약속을 합시다. 승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은자는 얼마든지 넉넉히 드릴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그저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합시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노인네가 남에게 사기당하는 게 아주 겁이 나셨나 보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어른들을 모셔 오십시오."

이 노인은 기쁨이 가득하여 즉시 하인들에게 명해 이웃과 친척, 사돈과 친구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렇게 모인 여덟아홉 명의 노인들은 당

승을 만나 요괴를 잡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 기뻐했다. 노인들이 물었다.

"어느 제자가 요괴를 잡으러 가는가?"

손오공이 손을 모아 깎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이 작은 스님이 갑니다."

그러자 노인들이 겁에 질려 말했다.

"안 되네, 안 돼! 그 요괴는神通력이 엄청나고 몸집도 산더미처럼 거대하다네. 자네처럼 왜소하고 마른 스님은 그놈의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도 안 될 정도야."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몸집은 작아도 아주 단단합니다. '숫돌에 칼을 갈 때 묻은 기운까지 다 먹어 치운' 아주 야무진 몸이라니까요."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따르며 물었다.

"스님, 요괴를 잡기만 한다면 사례로 무엇을 원하는가?"

손오공이 말했다.

"사례를 묻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속담에 '금은 눈이 부시고, 은은 멍청해 보이며, 엽전은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덕을 쌓는 스님들이니 절대로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노인들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계율을 잘 지키는 고승이시구려. 하지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공짜로 일을 해달라 하겠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 잡는 논을 일구며 먹고사는 처지라네. 만약 요괴를 항복시키고 마을을 깨끗이 해준다면, 우리 집마다 좋은 논 두 마지기씩을 내놓아 모두 합쳐 천 마지기를 모아주겠네. 그곳에 스님 사제들이 절을 짓고 앉아 참선하며 수행을 한다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람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손오공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땅을 받으면 말도 먹여야 하고, 곡식과 풀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 질 녘에도 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도 잠을 못 자서, 요괴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인들이 물었다.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쳐도, 대체 무엇을 사례로 받아야 하겠는가?"

손오공이 말했다.

"출가한 몸이니, 그저 차 한 잔과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노인들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참 쉽구려! 그런데 그 요괴를 대체 어떻게 잡을 텐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놈이 제 발로 오기만 하면 바로 잡아버릴 겁니다."

노인들이 다시 말했다.

"그 요괴는 아주 대단하다네. 위로는 하늘을 찌르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며, 올 때는 바람이 불고 갈 때는 안개가 자욱하지. 자네가 어떻게 그놈에게 가까이 다가간단 말인가?"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바람과 안개를 부리는 요괴라면 제 손주나 다름없습니다. 몸집이 커진다고 해도, 그놈을 때려눕힐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휘이익 하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여덟아홉 명의 노인들이 벌벌 떨며 말했다. "저 스님이 입만 열면 요괴라더니, 정말 요괴가 나타났나 보오!"

이 노인은 급히 뒷문을 열고 친척들과 당승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요괴가 나타났소!"

저팔계와 사오정도 급히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오공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는군! 출가한 사람이 어찌 안팎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오? 거기 서시오, 가지 말고 나를 따라 마당으로 나가서 대체 어떤 요괴인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저 사람들은 다 이 집 손님들이잖아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요괴가 온 게 분명한데, 다들 숨으려 가는데 우리라고 왜 가겠어요? 저 사람들과 친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굳이 가서 뭘 보겠단 말입니까?"

하지만 손오공의 힘은 워낙 막강하여 저팔계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그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세워 두었다. 그때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기세가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나무를 쓰러뜨리고 숲을 꺾으니 맹수도 근심하고, 강물을 뒤엎고 바다를 휘저으니 귀신도 슬퍼하네. 화악산의 세 봉우리에 엮힌 돌을 뒤엎고, 천지 만물의 네 대륙을 통째로 들어 올릴 기세로다. 마을 집들은 모두 문을 닫아걸고, 온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감추어 숨었구나. 검은 구름은 끝없이 밀려와 은하수를 가리고, 등불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둠에 잠겼도다."

바람의 기세에 겁을 먹은 저팔계는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입으로 땅을 파헤쳐 얼굴을 묻었는데, 마치 못에 박힌 듯이 꿈쩍도 하지 못했다. 사오정 역시 머리와 얼굴을 가린 채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손행자가 바람 소리를 듣고 요괴임을 알아차렸다. 순식간에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허공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두 개가 보였다. 손행자가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형제들아, 바람이 지나갔으니 일어나서 좀 보자."

그러자 멍청한 표정의 저팔계가 입을 찹 벌린 채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 개의 등불 같은 빛을 본 저팔계가 갑자기 소리 내어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겠는데요, 정말 재미있겠어! 알고 보니 예의를 차릴 줄 아는 요괴였나 보네. 저놈이랑 친구가 되어야겠어."

사오정이 말했다. "이 깊은 밤에 얼굴을 마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팔계가 대꾸했다. "옛말에 '밤길을 갈 때는 촛불을 밝히고, 촛불이 없으면 멈춘다'고 했어. 저렇게 등불 한 쌍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걸 보니 분명 좋은 놈일 거야."

사오정이 다시 말했다. "잘못 보셨어요. 저건 등불이 아니라 요괴의 두 눈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기가 죽어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이구머 니나! 눈이 저렇게 크면 입은 또 얼마나 클까."

손행자가 말했다. "아우야, 겁먹지 마라. 너희 둘은 스승님을 잘 보살피고 있어라. 이 몸이 올라가서 저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따져 물어보마."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우리 정체를 들키지는 마세요."

손행자가 몸을 휙 날려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쇠몽둥이를 움켜쥐고 매섭게 소리쳤다. "게 멈춰라! 거기 서라! 내가 여기 있다!"

요괴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버티며 긴 창을 휘둘러 어지럽게 막아냈다. 손행자가 몽둥이를 겨누며 물었다. "너는 어느 쪽 요괴냐? 어디서 온 괴물이나?"

요괴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창만 휘둘러댔다. 손행자가 다시 물었으나 요괴는 여전히 대답 없이 창질만 계속했다. 손행자는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귀머거리냐, 병어리냐? 도망갈 생각 마라, 내 몽둥이를 맛보게 해주마!'

요괴는 전혀 겁먹지 않고 창을 마구 휘두르며 공격을 막아냈다. 공중에서 요괴와 손행자는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한참을 싸웠으나, 밤이 깊어 삼경(子時, 밤 11시~새벽 1시)이 될 때까지 승패는 나지 않았다.

한편, 이 노자의 집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팔계와 사화상은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알고 보니 요괴는 그저 창을 휘둘러 방어만 할 뿐, 손행자를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손행자의 몽둥이는 실 새 없이 요괴의 머리 위를 내리치고 있었다.

이를 본 저팔계가 웃으며 사화상에게 말했다. "사화상, 자네는 여기서 잘 지키고 있게나. 이 몸이 가서 좀 도와줘야겠어. 저 원숭이 녀석 혼자서 공을 다 세우게 놔둘 순 없지. 그래야 나도 술 한 잔이라도 얻어 먹을 것 아닌가!"

저 멍청한 녀석(저팔계)은 구름을 타고 솟구쳐 올라 쫓아가더니 갈퀴로 내리쳤다. 그러자 요괴도 창을 휘둘러 맞섰다. 두 무기가 마치 날아다니는 뱀이나 번개처럼 격렬하게 맞붙었다. 그 모습을 보던 저팔계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 요괴, 창술이 정말 대단한데! 산후창(山後槍)도 아니고 전사창(纏絲槍)이로구나. 마씨 집안의 마가창(馬家槍)도 아니고, 이건 연병창(軟柄槍, 자루가 부드러운 창)이라 부를 만하네!"

그러자 손오공이 나무랐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함부로 떠들지 마라. 세상에 무슨 연병창이 있단 말이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잘 좀 봐봐. 저 녀석이 창끝을 내밀어 우리를 막아내는데, 창자루는 보이지도 않잖아.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건지 모르겠어."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 자루가 부드러운 창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저 요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아직 사람의 도(人道)에 들지 못해 음기가 아주 강한 모양이다. 아마 날이 밝아 양기가 강해지면 반드시 도망칠 게야. 하지만 도망칠 때 반드시 뒤를 쫓아 잡아야 하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네 말이 맞아!"

한참을 더 싸우다 보니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요괴는 더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손행자와 저팔계가 함께 뒤쫓아 가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다. 바로 칠절산 희시통이었다.

저팔계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어떤 놈이 여기서 변을 본 거야? 으, 냄새가 정말 고약하네!"

손행자는 코를 쥐어짜듯 가리며 외쳤다. "요괴를 쫓아야 해, 어서 쫓아야 한다고!"

요괴는 산 너머로 도망치다 그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 바로 붉은 비늘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 홍린대망이었다. 그 모습을 보라.

시로 이르되,

눈빛은 새벽별처럼 번뜩이고, 콧김은 아침 안개처럼 뿜어내네. 뽕뽕한 이빨은 강철 검 같고, 굵은 발톱은 금 갈고리 같구나. 머리에 돋은 육각 뿔은 수천 개의 마노를 박아 넣은 듯하고, 온몸을 덮은 붉은 비늘은 만 갈래 연지를 발라놓은 듯하네. 땅에 누워 있으면 비단 이불인 줄 알겠고, 하늘을 날면 무지개인 줄 알겠구나. 엎드려 쉴 때는 비린내가 하늘을 찌르고, 움직일 때는 붉은 구름이 몸을 감싸네. 크기는 너무 커서 양옆의 사람이 동서 방향을 분간 못 할 정도요, 길이는 너무 길어서 산 하나가 남북을 가로질러 차지한 듯하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세상에, 저렇게 긴 뱀이라니! 저놈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면 한 번에 오백 명은 먹어야 배가 부르겠는데."

손행자가 말했다. "아까 그 연병창이라던 게 알고 보니 저놈의 두 갈래 혀바닥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몰아붙여 놈이 지쳤으니, 뒤에서 쳐서 몰아내자."

저팔계가 몸을 날려 뒤쫓으며 갈퀴를 휘둘렀다. 그러자 요괴가 굴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는데, 칠팔 척이나 되는 긴 꼬리만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저팔계가 갈퀴를 내려놓고 꼬리를 덥석 움켜쥐며 외쳤다. "잡았다, 잡았어!"

저팔계는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당겼지만, 털끝만큼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냥 놔둬. 놔두면 알아서 처치할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무작정 잡아당기지만 말라고."

저팔계가 정말로 손을 놓자 요괴는 굴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저팔계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까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벌써 반쯤은 우리 것이 되었을 텐데, 저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꺼내란 말이야? 이건 완전히 뱀을 놓친 거나 다름없잖아!"

손행자가 말했다. "이놈은 몸집이 워낙 거칠고 굴은 좁으니, 안에서 몸을 돌리지는 못할 거야. 분명히 일직선으로만 움직여야 할 테니 뒤쪽에 분명히 출구가 있을 거다. 네가 얼른 뒷문 밖으로 가서 길을 막고 있어라. 내가 앞문 밖에서 놈을 때려눕힐 테니."

그 멍청한 놈이 정말 쏘살같이 산 너머로 도망치더니, 구멍 하나를 발견하고는 잼싸게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앞문 밖에서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둘러 구멍 안을 퍽 하고 찢어버렸다. 깜짝 놀란 괴물이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뒷문으로 튀어나왔다. 저팔계는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놈의 꼬리에 맞아 나동그라졌는데,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땅바닥에 누워 아픔을 참아야 했다.

구멍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손오공은 여의봉을 챙겨 들고 달려오며 요괴를 쫓으라고 소리쳤다. 그 외침을 들은 저팔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픔을 참으며 일어나, 갈퀴를 휘두르며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요괴는 이미 도망갔는데, 뭘 그렇게 허둥지둥 달려드는 거야?" 저팔계가 대답했다. "이 몸이 여기서 풀이라도 휘저어 놈을 놀라게 하려는 거지!" 손오공이 말했다. "이 멍청아, 빨리 따라오거나 해!"

두 사람이 계곡을 가로질러 달려가 보니, 요괴가 몸을 둥글게 말고 머리를 치켜든 채 커다란 입을 벌려 저팔계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저팔계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반면 손오공은 오히려 맞서 달려들다가 요괴의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렸다. 저팔계는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고는 크게 소리쳤다.

"형님! 형님도 당하셨구려!"

요괴의 배 속에서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배를 지탱하며 말했다.

"팔계야, 걱정 마라. 내가 이걸로 다리 하나 만들어 볼 테니 잘 보아라."

그러자 요괴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동쪽으로 뻗은 무지개다리 같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다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가 감히 그 위를 지나가겠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배로 만들어 볼 테니 잘 보거라."

손오공은 배 속에서 여의봉으로 요괴의 배를 떠받쳤다. 그러자 요괴가 배를 땅에 바짝 붙이고 머리만 치켜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배와 같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배 같기는 한데, 돛이 없어서 바람을 이용하기 어렵겠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길 좀 비켜라.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법을 보여줄 테니."

손오공은 배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여의봉을 요괴의 등 뒤로 쑥 밀어 넣었다. 여의봉이 한 5~7장(丈) 정도 솟아오르니 마치 돛대와 같았다. 요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 기세가 바람을 타는 것보다 더 빨랐다. 요괴는 원래 가던 길로 되돌아 산 아래로 20여 리를 질주하더니, 그제야 먼지 구덩이 속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 요괴가 죽었구나!

저팔계가 뒤쫓아 달려와는 갈퀴를 휘둘러 요괴를 마구 두들겨 팼다. 그러자 손오공이 요괴의 몸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쏙 빠져나오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미 죽은 놈을 왜 자꾸 두들겨 패는 거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이 못난 돼지가 평생 죽은 뱀을 때려잡는 게 취미인 걸 모르셨소?"

말을 마친 저팔계는 무기를 거두고는 요괴의 꼬리를 붙잡아 뒤로 끌고 갔다.

한편, 타라장의 이 노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승의 두 제자가 밤새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분명 목숨을 잃은 모양이구려."

삼장이 말했다. "별일 없을 겁니다. 나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잠시 후, 손행자와 저팔계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질질 끌며 왁자지껄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마을의 노인과 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어르신, 바로 이 요괴가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神通한 법술로 요괴를 베고 사악한 것을 물리쳐 주셨으니, 저희가 이제야 비로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격하여 이 집 저 집 불러 모으며 저마다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닳새나 이레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으나, 정중히 거절해도 마을 사람들이 완강히 붙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일행이 돈이나 물건을 받지 않자, 저마다 마른 양식과 과일 등을 준비하고 나귀와 말에 짐을 가득 실었으며, 화려한 깃발까지 내걸어 배웅에 나섰다. 이곳의 집이 오백여 가구인데, 배웅하러 나온 사람만 해도 칠팔백 명에 달했다.

일행은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칠절산 희시통 입구에 다다랐다. 삼장이 그곳의 악취가 심하고 길마저 짝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오공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코를 쓱 훑치며 대답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네요.” 손오공이 어렵다고 말하자 삼장은 눈물까지 글썽였다. 이때 이 노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와 말했다. “스님, 너무 애 태우지 마십시오. 저희가 여기까지 모셔 오면서 이미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스님의 제자가 요괴를 물리쳐 마을의 재앙을 없애준다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새로운 길을 닦아 스님을 모셔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까 이 산길이 팔백 리나 된다고 하셨죠? 당신들이 무슨 대우왕 같은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산을 깎고 길을 닦는단 말입니까? 우리 스승님을 모셔 가려면 결국 저희가 힘을 써야지, 당신들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삼장이 말에서 내려 물었다. “오공아, 힘을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장 산을 넘으려 해도 어렵고, 새로 길을 닦으려 해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예전 길로 지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먹을 것을 누가 챙겨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노

인이 말했다. “스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네 분이 머무시는 동안은 저희가 무엇이든 다 대접해 드릴 테니, 먹을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정 그렇다면 우선 마른 밥 두 섬이랑 찌떡, 그리고 주전부리 좀 준비해 두세요. 내 저 입만 큰 스님이 배불리 먹고 나서 커다란 돼지로 변해 예전 길을 들이받아 뚫어 놓으면, 우리 스승님이 말을 타고 가실 때 저희가 옆에서 부축하며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팔계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형님, 다들 깨끗하고 멋진 모습만 보이며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지독한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오능아, 네가 정말로 저 골목을 뚫어 나를 산 너머로 인도한다면, 이번 일의 일등 공신으로 인정해 주마."

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여기 계신 시주님들도 다 듣고 계시니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저 팔계는 본래 서른여섯 가지 변화술을 부릴 줄 압니다. 다만 가볍고 화려하게 날아다니는 것으로 변하는 건 좀 어렵지만, 산이나 나무, 바위나 흙더미로 변하는 것, 그리고 코끼리나 돼지, 물소나 낙타로 변하는 것은 정말로 다 할 줄 압니다. 다만 몸이 커지면 배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라, 배를 든든히 채워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저희에게 마른 음식과 과일, 구운 떡과 간식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원래는 산을 깎아 길을 내어 배웅해 드리려 했는데, 우선 이것들을 모두 내놓을 테니 마음껏 드

십시오. 변신을 마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희가 다시 사람을 보내 밥을 지어다 드리겠습니다."

팔계는 마음이 무척 기뻐서 입고 있던 검은 도포를 벗어 던지고 구치파(九齒鉋)를 내려놓으며 사람들에게 외쳤다. "자, 놀리지 마시고 이 팔계가 보여주는 지독한 활약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저 멍청한 녀석(저팔계)은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휘익 흔들며 정말로 커다란 돼지로 변신했다. 그 모습이 실로 이러했다.

입술은 길고 털은 짧으며 살집은 포동포동하니,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약초를 먹고 자랐구나. 검은 얼굴에 눈은 해와 달처럼 빛나고, 둥근 머리에 큰 귀는 바나나 잎 같네. 단단한 뼈를 수련하여 하늘만큼 수명이 길고, 거친 가죽을 단련하여 철갑처럼 튼튼하구나. 코로는 씹씹거리며 괴성을 지르고, 목에서는 껍껍거리며 울부짖네. 네 발의 하얀 발굽은 천 길 높이까지 솟은 듯하고, 갈기가 선 긴 몸은 백 장이나 되어 넉넉하구나. 세상에 살찐 돼지는 많이 보았으나, 오늘 같은 노련한 돼지 괴물은 처음 보노라.

당승과 일행이 모두 감탄하며, 천봉(天蓬)의 법력이 참으로 높고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손오공은 저팔계가 저렇게 변한 것을 보고, 배웅하던 사람들에게 마른 음식과 물건들을 한데 모아 저팔계가 먹을 수 있게 준비하라고 일렀다. 저팔계는 음식이 익었는지 날것인지 따지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더니, 다시 앞장서서 길을 닦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신발을 벗고 짐을 단단히 메라고 시켰고, 스승인 당승에게는 안장에 편

히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자신도 신발을 벗으며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정녕 마음이 있다면, 어서 빨리 음식을 가져와 우리 사제에게 힘을 보태게 해주세요."

배웅하러 나온 사람이 칠팔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노새나 말을 타고 있었기에 마을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해 오고, 걸어온 삼백 명은 산 아래 서서 일행이 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원래 마을에서 산까지가 서른 리가 넘고, 다시 음식을 가져오려면 서른 리를 더 가야 하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백 리에 달했다. 그사이 당승 일행은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다. 마을 사람들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서둘러 말을 몰아 희시통 골목으로 밤새 달려갔고, 다음 날에야 겨우 일행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외쳤다. "경전을 구하러 가시는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저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승은 그 말을 듣고 감격하여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참으로 선량한 신도들이로군요."

그는 저팔계에게 잠시 멈춰 서서 음식을 더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말했다. 저팔계는 이를 동안 길을 닦느라 한창 배가 고프던 참이었다.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은 칠팔 석이나 되었는데, 저팔계는 쌀밥이든 밀가루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배를 든든히 채운 저팔계는 다시 앞장서서 길을 뚫기 시작했다. 당승과 손오공, 사오정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각자 길을 떠났다.

시로 이르되.

타라장의 손님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팔계는 산을 헤치며 골목을 열었네. 당승의 지극한 정성은 신령한 힘을 부르고, 손오공의 신통력은 괴물을 굴복시켰네. 천 년 묵은 희시통의 막힘이 오늘에야 뚫리고, 칠절산 골목이 오늘에야 열렸구나. 여섯 가지 욕망과 속세의 번뇌를 모두 끊어내니, 평안히 연화대에 올라 예배하리라.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어떤 요괴를 만나게 될지는 결국...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8회 — 주자국에서 당승이 전생을 논 하고, 손행자가 세 번의 꺾인 팔로 신통 력을 펼치다

朱紫國唐僧論前世 孫行者施為三折肱

선한 인연을 모두 거두어들이니, 명예가 사부주에 널리 퍼지리라.
지혜의 빛을 따라 저 언덕에 오르니, 뽕뽕, 구름은 하늘 끝에서 뭉게뭉
게 피어오르네. 모든 부처가 서로 화답하며, 요대의 영원한 가을날 속
에 머물러 있으리. 인간 세상의 나비 꿈을 깨뜨리고, 쉬어라, 쉬어라,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어 근심을 멀리하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 일행이 번뇌의 먼지를 씻어내고 해탈의 길
을 향해 나아가는 사이,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철에
이르렀다.

시로 이르되, "바다 위 석류꽃은 비단처럼 붉게 피어나고, 연잎은 푸
른 쟁반처럼 펼쳐졌구나. 두 갈래 버드나무 길에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
고, 길손들은 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피하네."

앞으로 나아가던 중, 문득 가까운 곳에 성곽이 하나 보였다. 당승이 말을 멈춰 세우며 물었다. "제자들아, 저기가 어디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은 참으로 글자를 모르시는군요. 어찌 대당 국왕의 어명을 받들어 궁궐을 떠나오셨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승려로 자라 온갖 경전과 법전을 통달하였거늘, 어찌 내가 글을 모른다 하느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글을 아신다면 저 성벽 위에 걸린 황색 깃발에 적힌 커다란 글자 세 자를 어찌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냐고 물으십니까?"

당승이 꾸짖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허튼소리 마라! 저 깃발이 바람에 어지럽게 휘날리는데, 설령 글자가 적혀 있다 한들 어찌 똑똑히 보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 손오공의 눈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만?"

그러자 저팔계와 사오정이 거들었다. "스승님, 사형의 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저렇게 멀리서 바라보는데 성곽도 흐릿한데, 글자가 어찌 보인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저 글자가 '주자국' 세 글자가 아닙니까?"

당승이 말했다. "주자국이라니, 필시 서쪽 나라의 왕국일 터인데, 관문을 통과할 서류를 새로 바꿔야겠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일행은 다리를 건너 세 겹의 성문을 차례로 통과했다. 과연 이름난 황도의 모습이 눈 앞에 펼쳐졌다.

문루는 높이 솟아 있고 성벽의 톱니 모양 구조물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성 주변으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남북으로는 높은 산들이 마주 보고 있었다. 여섯 개의 큰 거리와 세 곳의 시장에는 물자가 넘쳐났고, 수만 가구의 집들이 모여 활기찬 생기가 가득했다. 과연 제왕이 머무는 도읍답고 천하의 중심인 대도시라 할 만했다. 먼 땅에서도 배를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멀리서 온 귀한 비단과 보물들이 넘쳐났다. 첩첩이 이어진 산세는 멀리 뻗어 있고, 궁궐의 담장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다. 세 곳의 관문이 엄격히 지켜지니, 만고에 태평성대가 이어질 듯했다.

스승과 제자들이 큰 시장 거리를 걸어가니,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늙고 의복도 정갈하며 말씨 또한 맑고 깨끗하여 대당의 변화한 도성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길 양옆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은 저팔계의 못생긴 얼굴과 사오정의 검고 큰 키, 그리고 손오공의 덩수룩한 얼굴을 보고는 장사를 팽개친 채 구경하려 몰려들었다. 당승은 그저 "사고 치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걸으렴"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연꽃 씨방 같은 입을 품속으로 쑥 집어넣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오정 역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직 손오공만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삼장법사의 곁을 바짝 지킬 뿐이었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슬쩍 쳐다보고는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하지만 한가롭게

노는 이들이나 장난기 많은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몰려들어, 기와 조각이나 벽돌을 던지며 저팔계를 놀려댔다. 당승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제발 소란을 피우지 마라"라고 거들 당부했다. 저팔계는 겁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퉁이를 돌아, 담장 위에 '회동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문이 나타났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저 관청 안으로 들어가자." 손오공이 물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당승이 대답했다. "회동관은 천하의 소식이 모이고 통하는 곳이니, 우리도 잠시 들러 방해를 좀 해도 괜찮단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쉬면서, 내가 국왕을 알현하여 통관문첩을 새로 교체한 뒤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 길을 떠나자꾸나."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입을 삐죽 내밀며 주변을 구경하던 사람 수십 명을 겁주어 쫓아버렸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깁시다. 저 시끄러운 놈들이 떠들어대지 못하게 말이에요." 저팔계가 먼저 관 안으로 들어가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물러갔다.

한편, 그 객관에는 정직과 부직을 맡은 두 명의 관리가 있었는데, 둘 다 대청에 앉아 관청에 보낼 인부들의 명단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당승 일행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일제히 물었다.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시기에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당승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귀한 땅에 이르렀으니 감히 함부로 지나칠 수 없어, 통관 서류를 확인받고 통행 허가를 얻고자 합니다. 잠시 이곳 회동관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두 관리는 그 말

을 듣고 즉시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띠를 조여 맨 뒤, 대청 아래로 내려가 당승을 맞이했다. 그들은 곧바로 객실을 청소하여 쉴 곳을 마련하게 하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당승이 감사의 뜻을 전하자, 두 관리인은 인부들을 데리고 대청 밖으로 나갔다. 하인들이 어르신을 객실로 모시자 당승은 그곳으로 향했다. 이를 지켜보던 손오공이 투덜거렸다. “이놈들이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어째서 나를 대청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냐?” 당승이 달랬다. “이곳은 대당의 관할도 아니고 우리 나라와 이어진 곳도 아니란다. 게다가 수시로 다른 나라의 관리들이 오가니, 이곳에 머물며 대접받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기어코 대접을 받아야겠다!”

한편, 마침 관리인이 나타나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주었다. 흰쌀 한 그릇과 밀가루 한 그릇, 푸른 채소 두 줌, 두부 네 모, 면근(麵筋, 밀로 만든 식품) 두 덩이, 말린 죽순 한 그릇, 그리고 목이버섯 한 그릇이었다. 당승은 제자들에게 물건을 받게 하고 관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리인이 말했다. "서쪽 방에 깨끗한 솔과 아궁이가 있고 땀감도 쓰기 편하니, 직접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당승이 물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소. 국왕께서 지금 대전(殿上)에 계시는가?" 관리인이 대답했다. "우리 폐하께서는 오랫동안 조회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오늘은 길한 날이라, 문무백관과 함께 새로 불일 방을 의논하고 계십니다. 만약 통관 문첩을 교체하려거든 지금 서둘러 가야 제때 맞출 수 있습니다. 내일로 넘어가면 안 될 테고, 그때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당승이 제자들에게 일렀다. "손오공, 너희는 여기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라. 나는 얼른 가서 문첩을 확인하고 돌아올 테

니, 돌아오면 같이 먹고 길을 떠나자꾸나." 저팔계가 급히 가사 속에 넣어두었던 통관 문첩을 꺼내 왔다. 당승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궁으로 향하며, 제자들에게 밖으로 나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오봉루 앞에 이르렀다. 전각이 우뚝 솟고 누대가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단문(端門) 밖에 이르러, 일을 아뢰는 관원에게 부탁하여 조정에 전하게 하고 통관문첩을 확인받고자 하였다. 그러자 황문관이 옥계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조문 밖에 동토 대당에서 보낸 칙사 승려 한 명이 있습니다. 서천 뇌음사로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통관문첩을 새로 바꾸고자 하니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과인이 오래 병을 앓아 정전에 나가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전각에 올라 의원을 구하는 방을 내붙였더니 마침 고승이 우리 나라에 왔구나." 그러고는 즉시 명을 내려 삼장을 계단 아래로 불러들이게 하였다. 삼장이 곧 예를 올리며 엎드리니, 국왕은 다시 금전(金殿)으로 올라오라 하여 자리를 내리고, 광록시에 명하여 공양을 준비하게 하였다. 삼장은 은혜에 감사한 뒤 통관문첩을 바쳤다.

국왕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법사님, 그대의 대당은 몇 대에 걸쳐 임금이 바르고 몇 대에 걸쳐 신하가 어질었습니까? 그리고 당나라 임금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병이 들었다가 되살아나시어, 그대를 먼 산천 너머로 보내 경전을 구해오게 하셨습니까?" 삼장은 그 물음에 몸을 굽혀 합장하며 대답했다. "빈승의 나라는 이러하니

다. 삼황이 세상을 다스리고 오제가 인륜의 질서를 세웠으며, 요순이 자리를 바로잡고 우탕이 백성을 편안케 하였습니다. 성주(成周)의 자손이 많아지자 저마다 천하를 나누어 세웠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나라를 갈라 임금을 칭하였습니다. 열여덟 제후국이 변경을 나누었다가 이후 열두 나라로 줄어들어 세상이 순박하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의가 없어) 수레와 말이 오가도 서로 삼키려 들었고, 칠웅이 승부를 다투다 여섯 나라가 진나라에 귀속되었습니다. 하늘이 패현의 유방과 노공 항우를 내니 저마다 어질지 못한 마음을 품었으나, 강산은 한나라의 것이 되어 약법(約法)을 삼가 따랐습니다. 한나라가 사마씨(진(晉))에게 넘어가고 진나라가 다시 어지러워졌으며, 남북으로 송·제·양·진(陳) 등 열두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여러 왕조가 대를 이은 끝에 대수(隋)나라가 정통을 이었으나, 꽃놀이에 빠져 무도하니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 임금의 성은 이씨요 국호는 당이라 합니다. 고조께서 붕어하시고 지금은 세민(世民) 임금께서 다스리시니, 강물이 맑고 바다가 잔잔하며 그 덕이 크고 너그럽고 어지십니다. 그런데 장안성 북쪽에 괴이한 수룡신(용왕)이 있어 (옥황상제가 명한) 단비를 멋대로 깎아 줄었으니, 마땅히 그 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용이 밤에 꿈에 나타나 임금께 환난에서 구해 달라 빌었기에, 임금께서 사면을 허락하시고 곧 어진 신하를 불러들여 전각 안에 머물게 하고는 천천히 바둑을 두며 (그를 붙잡아 두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자 그 어진 신하가 꿈속에서 용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신음 소리를 내며 물었다. "법사님, 그 어진 신하라는 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바로 우리 임금을 모시는 승상으로, 성은 위(魏)요 이름은 징(徵)입니다. 그는 천문에 밝고 지리를 알며 음양을 분별할 줄 아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세우는 큰

재상입니다. 그가 꿈에서 경하(涇河)의 용왕을 베는 바람에, 용왕이 저승에 가서 '우리 임금의 구해 주마 해놓고 도리어 죽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임금께서 갑자기 병이 나셨고 점차 몸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위징이 편지 한 통을 써서 임금께 들려 보내 저승 풍도성(酆都城)의 판관 최각(崔瑑)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뒤 당나라 임금께서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위징의 덕분에 최판관이 문서를 고쳐 임금의 수명을 스무 해나 늘려 준 것입니다. 이제 수륙대회(水陸大會)를 열고자 하시어, 빈승을 먼 길로 보내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며 부처님께 절하고 《대승경(大乘經)》 삼장(三藏)을 구해와, 죄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제도하여 하늘로 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왕은 다시 신음하며 탄식했다. "참으로 천조(天朝) 대국이라 임금은 바르고 신하는 어질구려. 과인은 이토록 오래 병을 앓으면서도 나를 구해 줄 신하가 하나도 없구려." 삼장은 이 말을 듣고 슬쩍 겹눈질하여 보니, 황제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살이 빠졌으며 몸은 수척하고 기력이 쇠해 보였다. 삼장이 막 무언가 여쭙려는데, 광록시(光祿寺) 관원이 들어와 당승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아뢰었다. 국왕이 명을 내려 "피향전(披香殿)에서 짐의 식사와 함께 차려, 법사와 더불어 들게 하라"고 하였다. 삼장은 은혜에 감사하고 국왕과 함께 들어가 공양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다.

한편, 손행자는 회동관에서 사승에게 차와 밥을 준비하고 채소 요리를 정돈하라고 시켰다. 사승이 말했다. "차와 밥은 짓기 쉽지만, 채소 요리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행자가 물었다. "어째서냐?" 사승이 대답했다. "기름, 소금, 간장, 식초 같은 양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나에게 잔돈이 좀 있으니, 팔계에게 시켜 시장

에 가서 사 오라고 하겠다." 그러자 게으름뱅이 팔계가 몸을 사리며 말했다. "전 못 갑니다. 제 얼굴이 못생겨서 괜히 화를 불러일으켰다가 스승님께 꾸지람을 들을까 무서워요." 손행자가 말했다. "정당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고, 남을 해치거나 빼앗는 것도 아닌데 무슨 화가 있겠느냐?" 팔계가 대꾸했다. "형님은 방금 (사람들이) 노루처럼 겁먹어 자빠지던 꼴을 못 보셨나 보군요? 제가 이 문 앞에서 주둥이를 쭉 빼들었더니 사람들이 열 명 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만약 북적이는 시장통에 갔더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너는 북적이는 시장통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시장에서 무엇을 파는지 보기는 했느냐?" 팔계가 말했다. "스승님께서 화를 피하라고 고개만 숙이고 다니라 하셨으니, 정말이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술집, 쌀가게, 방앗간, 비단과 잡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맛있는 찻집, 국수집, 커다란 구운 떡과 찐빵집도 있다. 식당에는 맛있는 국밥과 양념, 채소도 있고, 온갖 귀한 떡과 과자, 점심 식사 거리, 기름진 음식과 달콤한 음식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내가 가서 좀 사 올 테니 너도 좀 먹겠느냐?" 이 말을 들은 팔계는 입에 침이 고여 목구멍으로 꿀꿀꿀꿀 침을 삼키며 벌떡 일어나 말했다. "형님, 이번에는 제가 폐를 끼치지만, 다음에 돈이 모이면 저도 꼭 답례로 한턱내겠습니다!" 손행자는 속으로 웃으며 사승에게 말했다. "사승, 밥을 잘 지어 두고 있어라. 우리가 양념을 좀 사 올 테니." 사승도 팔계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임을 알고는 적당히 대답했다. "두 분 다 다녀오세요. 꼭 넉넉히 사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오시고요." 팔계는 얼른 그릇을 챙겨 들고 손행자를 따라 문밖으로 나섰다. 지나가던 관원 두 명이 물었다.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손행자가 대답했다. "양념 좀 사러 간다." 관원이 말했다. "이 거리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모퉁이를 돌아 고루(鼓樓, 북 누각)를 지나세요. 거기 정씨네 잡화점에 가면 얼마를 사든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생강, 후추, 참잎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길 서쪽으로 향했다. 손오공은 여러 찻집과 음식점 앞을 지나갔지만, 살 만한 것도 먹을 만한 것도 없으며 그냥 지나쳤다. 저팔계가 외쳤다. "사형, 그냥 여기서 적당히 좀 사서 먹읍시다." 손오공은 저팔계를 골려주려는 심산이었기에 선뜻 사려 하지 않고 말했다. "이 사람아, 성급하게 굴지 마라. 좀 더 걷다 보면 제대로 된 걸 찾을 수 있을 테니, 큰 가게를 골라 맛있는 걸 사 먹자꾸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뒤따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소리가 울리는 고루 근처에 다다랐는데, 그 아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며 길을 짝 메우고 있었다. 이를 본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걸 보니, 낯선 얼굴에 수상쩍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찌려고요?"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스님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잡아간단 누구 잡아간단 말이나? 그냥 지나가서 정가네 식당에 들러 먹을 것을 좀 사 오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됐습니다, 됐어. 저는 화를 자초하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사람 많은 곳에 끼어 있다가는 귀가 멍멍해지고,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깨지다가 몇 명이라도 죽기라도 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손오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여기서 벽 밑에 가만히 서 있거라. 내가 얼른 가서 사 올 테니, 돌아올 때 너 먹을 국수랑 구운 떡을 사 오마." 그러자 저팔계는 손오공에게 그릇을 건네주

고는, 벽에 입을 대고 얼굴을 돌린 채 죽어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었다.

손행자가 누각 쪽으로 걸어가 보니 과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살펴보니, 다름 아니라 누각 아래에 황실의 방이 붙어 있어 많은 이들이 구경하느라 몰려든 것이었다. 손행자가 가까이 다가가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번뜩이며 자세히 읽어보니, 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짐은 서우하주 주자국의 국왕이다. 나라를 세운 이래 사방을 평정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내왔으나, 최근 국사에 불길한 일이 생겨 병이 깊어지는 바람에 침상에 누워 지낸 지 오래되었고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국의 태의원에서 여러 차례 좋은 약을 골라 써보았으나 치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방을 붙여 천하의 현명한 선비들을 널리 모집하고자 한다. 북쪽에서 오든 동쪽에서 오든, 중원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으니, 의술과 약재에 정통한 자가 있다면 보전으로 들어와 짐의 병을 치료해 주기 바란다. 병이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라의 강토를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니,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에 방을 붙여 알린다. 반드시 방을 보고 찾아올 것."

내용을 다 읽은 손행자는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옛말에 '움직여야 재물이 따른다'고 했지. 진작 관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나을 걸 그랬어. 이진 약을 따로 살 필요도 없겠군. 일단 경전 구하는 일은 하루쯤 미뤄두고, 이 몸이 의사 노릇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손오공은 몸을 낮게 굽히고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흠 한 줌을 집어 위로 뿌리며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숨기는 은신술을 펼쳐 살금살금 다가가 방을 떼어냈다. 이어 동남쪽(巽方)을 향해 신선 의 기운을 한 모금 들이마셨다가 불어내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 주변 사람들을 모두 흠어 놓았다. 그사이 손오공은 몸을 돌려 곧장 저 팔계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팔계는 주둥이를 벽 밑에 댄 채 마치 잠든 것처럼 서 있었다. 손오공은 그를 깨우지 않고 방문을 열어 슬그머니 그의 품속에 찔러 넣고는, 발길을 돌려 먼저 회동관으로 향했다.

한편, 누각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바람이 몰아치자 저마다 머리를 가리고 눈을 감았다. 어느덧 바람이 지나가고 보니 붙어 있던 황방(임금이 내린 방)이 사라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당황했다. 본래 그 방은 열두 명의 내관과 열두 명의 교위가 이른 아침에 받들고 나와 붙인 것인데, 채 세 시진(여섯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람에 날려 가버린 것이었다. 사람들이 벌벌 떨며 좌우로 찾아 헤매던 중, 문득 저 팔계의 품속에서 종이 귀통이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다가가 물었다. "네가 방을 떼어 온 것이냐?" 저팔계는 멍하니 고개를 번쩍 들더니 입을 짹 벌렸다. 그 기세에 눌린 교위 몇 명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저팔계가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자, 앞에 있던 담대한 몇 사람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의원을 찾는 황방을 떼어 갔으면, 어서 궁으로 들어가 만세(국왕)를 치료해 드려야지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 저팔계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네 아들이 방을 떼어 오면, 네 손자가 병을 고칠 것이다!" 교위가 다시 물었다. "네 품속에 숨긴 것이 무엇이냐?" 저팔계가 그제야 고개를 숙여 보니, 정말로 종이 한 장이 들

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쳐 보고는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 원숭이 녀석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저팔계가 분에 못 이겨 종이를 찢어버리려 하자, 사람들이 급히 그를 붙들며 말했다. "네 이놈, 죽고 싶으냐! 이것은 지금의 국왕께서 내리신 방문인데 누가 감히 훼손한단 말이냐? 네 품에 들어 있었으니 분명 나라를 고칠 의술을 지녔을 터, 어서 우리와 함께 가자." 저팔계가 소리쳤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방은 내가 댄 것이 아니라 내 사형 손오공이 댄 것이다! 그놈이 몰래 내 품에 집어넣고는 나를 버려두고 가버렸단 말이다. 이 일을 분명히 밝히겠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놈을 찾으러 가주마." 사람들이 대꾸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멀쩡히 다 만들어진 종은 안치고 새로 종을 부어서 치겠다는 게냐? 네가 방을 떼어 왔는데 우리더러 누구를 찾으라는 거냐? 시비 가릴 것 없이 어서 끌고 가서 주상 전하를 뵙자." 사람들은 사정을 따지지 않고 저팔계를 밀고 끌며 재촉했다. 그러나 저팔계가 발을 딱 붙이자 마치 뿌리를 내린 듯하여, 열댓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너희가 앞뒤 분간을 못 하는구나. 계속 이리 잡아끌다가 내 미련한 성질이 도지면, 그때는 원망하지 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통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이 팔계를 에워쌌다. 그중 나이 든 내관 두 명이 다가와 말했다. "네 생김새가 참으로 기이하고 목소리도 범상치 않구나. 대체 어디서 온 놈이기에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팔계가 대답했다. "저희는 동토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스승님은 당나라 국왕의 동생이신 법사님인데, 방금

조정에 들어가 통관 서류를 새로 바꾸러 가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여기서 먹을 것을 좀 사려고 왔는데, 아래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더러 여기서 기다리라고 시켰지요. 그러더니 형님이 갑자기 게시판에 붙은 방을 보더니,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핵 떼어내 제 품속에 몰래 찔러 넣고는 먼저 가버렸습니다."

내관이 물었다. "아까 얼굴이 하얗고 통통한 스님이 궁궐 문을 향해 급히 달려가던데, 그분이 네 스승이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팔계가 맞장구쳤다. "그럼 네 형님은 어디로 갔느냐?" "저희는 총 네 명인데, 스승님은 서류를 바꾸러 가셨고, 저희 세 명과 짐, 말은 모두 회동관에 있습니다. 형님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고는 먼저 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관이 말했다. "교위는 이 자를 거칠게 다루지 마라. 우리도 같이 관으로 가면 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팔계가 녀석 좋게 대꾸했다. "두 분 할머니께서 참으로 눈치가 빠르시군요!"

그러자 교위들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이 중이 물건을 알아볼 줄 모르는구나. 어찌 감히 내관 어른들을 보고 할머니라고 부른단 말이냐?"

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참으로 음양을 거스르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저 두 분 어르신은 할머니나 마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 어찌 공공(公公, 내관을 부르는 말)이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소리쳤다. "말대꾸하지 말고 어서 네 형님이나 찾아 나서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소란스러웠는데, 그 수가 삼오백 명은 족히 넘어 보여 모두 회동관 문 앞까지 몰려들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사형은 저처럼 장난으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무섭고 진지한 분이라고요. 그러니 사형을 만나면 반드시 큰절을 올리며 '손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형이 상대해 줄 테니까요. 안 그러면 사형이 얼굴색을 싹 바꾸고 화를 낼 텐데, 그러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내관들과 교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쪽 사형이 정말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국왕 폐하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나라의 절반을 차지해도 마땅할 정도니 우리가 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잡다한 사람들은 모두 문밖에서 웅성거리며 떠돌고 있었다. 팔계는 내관들과 교위들을 거느리고 곧장 관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손행자와 사승이 객실에서 방을 떼어온 일을 두고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팔계가 다가가 그들을 붙잡고는 마구 소리쳤다.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한테 채소 국수랑 구운 떡 같은 먹을 거리를 사 오라고 속여놓고는,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잖아! 게다가 회오리바람까지 일으켜서 무슨 황실 방을 떼어다가 몰래 내 품에 쑤셔 넣고 나를 놀려먹다니. 너 나랑 형제라고 할 수 있겠어?"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길을 잘못 들어 판 데로 간 모양이구나. 나는 북소리가 들리는 곳 근처에서 먹을 것을 사서 급히 너를 찾으러 왔는데 네가 없기에 먼저 온 것뿐이다. 대체 어디서 무슨 방을 뺏다는 말이냐?"

팔계가 대답했다.

"지금 방을 확인하러 온 관리들이 여기 와 있다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관들과 교위들이 손행자를 향해 예를 갖추며 말했다.

"손 어르신, 오늘 저희 국왕께서 인연이 닿아 하늘이 어르신을 내려 보내셨나 봅니다. 반드시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여 국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강산과 사직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손행자는 즉시 표정을 엄숙히 고치고는 팔계가 들고 있던 방문을 건네받아 사람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방을 확인하러 온 관리들이냐?"

내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소인은 사례감의 내관이고, 이들은 금의교위들입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이 의원을 찾는 방은 내가 켜 놓은 것이 맞으니, 내 사제인 팔계가 나를 소개하러 온 것이다. 네 주군이 병이 들었다면, 흔히 말하기를 '약은 함부로 팔지 않고, 병은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가서 국왕에게 직접 나를 청하러 오라고 전해라. 내가 손만 대면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할 능력이 있다."

내관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위가 말했다.

"그토록 큰소리를 치시니 필시 그만한 도량이 있으시겠지요. 저희는 절반은 여기서 간곡히 청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정에 들어가 보고하겠습니다."

네 명의 태감과 여섯 명의 교위를 불러들여, 그들이 국왕의 부름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조정으로 들어가 계단 아래에서 외쳤다. "주공,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국왕은 막 당승과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 보고를 듣고는 물었다. "기쁜 소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태감이 대답했다. "저희가 일찍이 의원을 찾는 방을 내걸어 고루 아래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동토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성스러운 승려, 손 장로라는 분이 그 방을 떼어 갔습니다. 지금 그분이 회동관에 머물고 계시는데, 국왕께서 직접 가서 모셔 오라고 합니다. 그분은 손만 대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 이에 특별히 보고를 올립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당승에게 물었다.
“법사께서는 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당승이 합장하며 대답했다. “빈승에게는 못난 제자가 세 명 있습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 제자들 중에 의술에 능한 이가 누구입니까?”

당승이 말했다. “폐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못난 제자들은 모두 산천을 떠도는 평범한 재주꾼들일 뿐입니다. 그저 짐을 짊어지고 말을 몰며, 물길을 찾아 헤매고 저를 데리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는 일이나 잘합니다. 혹은 험한 곳에서 마물을 굴복시키고 괴물을 잡거나, 호랑이를 엮드리고 용을 다스리는 일 정도는 할 줄 알지만, 약의 성질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법사께서 어찌 그리 겸손해하십니까? 과인이 오늘 전각에 올라 법사를 만난 것은 참으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제자가 의술을 모른다면 어찌 감히 내 방을 떼어 가면서 과인이 직접 마중나가게 하겠습니까? 분명 나라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어 국왕이 명했다. “문무백관은 들으라! 과인은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어 가마를 타고 움직이기 어렵다. 너희들이 과인을 대신하여 모두 조정 밖으로 나가 손 장로를 정중히 모셔 오너라. 내 병을 살펴달라고 청하되, 그를 만났을 때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말고 반드시 ‘신승 손장로’라 부르며 군신 간의 예로써 대접하라.”

신하들은 명을 받들고, 방을 살피던 태감과 교위들과 함께 곧장 회동관으로 가서 줄지어 참배하였다. 그 바람에 저팔계는 겁이 나 결방에 숨고, 사오정은 벽 뒤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대성(손오공)은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단정하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팔계가 속으로 못마땅해 하며 투덜거렸다. "이 원숭이 녀석이 사람 잡겠네. 저렇게 많은 관원이 절을 하는데 답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다니?" 얼마 뒤 참배가 끝나자, 신하들이 반열을 나누어 아뢰었다. "신승 손 장로님께 아뢰입니다. 저희는 모두 주자국 임금의 신하로, 오늘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정결한 예로써 신승을 모시고 입조하여 병을 살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제야 손오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에게 물었다. "너희 임금은 어찌하여 직접 오지 않았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저희 임금께서는 몸이 허하고 기력이 약하여 감히 가마를 타지 못하시는지라, 특별히 저희에게 임금을 대신하는 예를 갖추어 신승을 모셔 오라 명하셨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그대들은 먼저 앞서 가라. 내가 곧 뒤따라가겠다." 신하들이 각자 품계에 따라 대열을 지어 떠났다. 손오공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일어서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제발 우리는 끌어들이지 마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를 끌어들이지는 않겠다. 다만 너희 둘은 나를 위해 약이나 받아 두어라." 사오정이 물었다. "무슨 약을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누구든 나에게 약을 보내오거든 수량대로 받아 두었다가, 내가 돌아오면 쓸 수 있게 해 다오." 두 사람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다.

손행자는 관원들과 함께 곧장 성안으로 들어갔다. 신하들이 먼저 앞장서서 국왕에게 보고하자, 국왕은 구슬로 장식된 발을 걸어 올리고 용의 눈과 봉황의 눈처럼 빛나는 눈을 번뜩이며 입을 열어 물었다.

"신승 손 장로라는 분이 어느 분이시오?"

손행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씩씩하게 외쳤다.

"이 몸이 바로 그 손 장로요!"

국왕은 손행자의 목소리가 워낙 험악한 데다 생김새 또한 알뜰고 사나운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용상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당황한 여관들과 내관들이 급히 국왕을 부축해 궁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국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자가 나를 놀라 죽게 만드는구나!"

이를 본 관리들은 모두 손행자를 원망하며 꾸짖었다.

"저 스님은 어찌 저리 무례하고 상스럽단 말인가? 감히 어떻게 제멋대로 방을 떼어 가버릴 수 있단 말인가!"

손행자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저를 잘못 탓하셨습니다. 만약 저렇게 사람을 굶뜨게 한다면, 귀국의 국왕께서는 천 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말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 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니요?" 그러자 손행자가 대답했다. "지금은 병든 임금이지만, 돌아가시면 병든 귀신이 될 것이고, 다시 태어나도 또 병든 사람일 터이니, 그러면 천 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하들이 화가 나서 외쳤다. "이 스님이 예의도 모르고 어찌 이토록 함부로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

오. 의술의 이치는 지극히 미묘하고 현묘하니, 그 요체는 마음속에서 변화를 헤아리는 데 있도다. 망(望)·문(聞)·문(問)·절(切)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치 못하니, 첫째는 그 신기(神氣)와 안색을 살피는 망(望)이라, 윤택한지 메마른지, 살졌는지 여위었는지, 깨어 있는지 자는지를 보는 것이요. 둘째는 소리를 듣는 문(聞)이라, 목소리가 맑은지 탁한지, 참된 말인지 헛소리인지를 듣는 것이며, 셋째는 묻는 문(問)이라, 병이 든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고 대소변은 어떤지 묻는 것이요, 넷째는 맥을 짚는 절(切)이라, 경락을 살펴 맥이 떠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지, 겹인지 속인지를 밝히는 것이라. 내가 망·문·문·절을 행하지 않고서는, (환자는) 이생에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못하리라." 문무백관들 사이에서 태의원 관원이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나서서 칭찬하며 말했다. "이 스님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설령 신선이라 할지라도 병을 보려면 반드시 망·문·문·절을 써서 신성하고 정교한 의술에 맞추어야 하는 법입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근시에게 일러 전하게 했다. "장로께서 망(望, 눈으로 보고), 문(聞, 냄새를 맡고), 문(問, 물어보고), 절(切, 맥을 짚는) 이치를 사용하여 병을 알아낸 뒤 약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용상에 누워 있던 국왕은 연신 이렇게 외쳤다. "그냥 가라고 해라. 과인은 이제 낫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기운조차 없구나."

근시가 궁 밖으로 나와 말했다. "그 스님, 우리 왕의 뜻이니 이만 가 보시오. 왕께서 낫선 사람의 얼굴을 볼 기력이 없으시다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낮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신다면, 내가 실을 매달아 맥을 짚는 현사진맥(懸絲診脈)을 하면 되지 않겠소?"

신하들은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현사진맥이라니, 듣기만 했지 직접 본 적은 없구나. 다시 가서 보고드리자."

근시가 다시 궁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주군, 저 손 장로가 주군을 직접 뵈지 않고도 실을 매달아 맥을 짚겠다고 합니다."

국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과인이 3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방법은 써본 적이 없구나.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

근시는 즉시 밖으로 나와 전했다. "주군께서 현사진맥을 허락하셨으니, 어서 손 장로를 궁으로 불러 진찰하게 하라!"

손행자는 곧 보전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당승이 그를 마주하며 꾸짖었다. "이 말쑥꾸러기 원숭이야, 네가 나까지 해치려 하는구나!"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오히려 스승님을 돋보이게 해 드리려는 것인데, 어찌 제가 스승님을 해친다고 하십니까?"

당승이 호통을 쳤다. "네가 나를 따른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누구를 고쳐본 적이 있느냐? 너는 약의 성질도 모르고 의학 서적 한 권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어찌 이토록 대담하게 큰 사고를 치려 하느냐?"

손행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스승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저에게는 큰 병도 고칠 수 있는 비책이 몇 가지 있으니,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설령 고치려다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저 의술이 부족해

사람을 죽였다는 죄명만 물을 뿐이지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스승님은 우선 앉아서 제 진맥법이 어떤지 지켜보시기나 하세요."

장로가 다시 말했다. "네가 《소문》이나 《난경》, 《본초》, 《맥결》 같은 의학 서적의 구절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 이렇게 근거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무슨 현사진맥(실을 매달아 맥을 짚는 법)을 하겠다는 말이냐?"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제 몸에 금사(金絲)가 있는데, 아직 못 보셨나 보군요."

그러고는 손을 뻗어 꼬리에서 털 세 가닥을 뽑아 한 움큼 쥐더니,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털은 즉시 세 가닥의 실로 변하였는데, 한 가닥의 길이는 각각 2장 4척(약 7.8미터)이나 되었다. 손행자는 이 실들을 24절기에 맞춰 손바닥 위에 펼쳐 놓고 당승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금사가 아닙니까?"

겉에 있던 내관이 말했다. "장로께서는 그만 말씀을 멈추시고, 어서 궁 안으로 들어가 진찰을 받으러 가시지요."

손행자는 당승과 작별하고 내관을 따라 궁으로 들어가 진찰을 받으러 갔다.

시로 이르되, "마음에 비방을 품었으니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속에 묘한 비결을 감추었으니 장생을 주해하도다."

결국 가서 어떤 병을 찾아낼지, 또 어떤 약을 쓰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9회 — 마음은 밤사이 약물을 닦고, 임금은 연회석상에서 요사스러운 것을 논하다

心主夜間修藥物 君王筵上論妖邪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은 환관들과 함께 황궁 내원으로 들어가 침궁 문밖에 멈춰 섰다. 손오공은 세 가닥의 금색 실을 환관에게 건네 주며 안으로 들여보내 이렇게 일렀다.

“내궁의 왕비나 가까운 태감에게 전해라. 우선 국왕 폐하의 왼손 손목 아래에 실을 묶되, 춘·관·척의 세 부위를 지나게 하고, 실 끝은 창살 사이로 빼내어 나에게 전달하라고 말이다.”

환관은 손오공의 말대로 하여 국왕을 용상에 앉힌 뒤, 춘·관·척 부위에 맞춰 실 한쪽 끝을 묶고 다른 쪽 끝은 창밖으로 빼냈다. 손오공은 창밖으로 나온 실 끝을 받아 쥐고, 먼저 오른손 엄지로 검지를 받쳐 촌맥을 짚었다. 이어 중지를 엄지 위에 올려 관맥을 살피고, 다시 엄지로 무명지를 받쳐 척맥을 짚었다.

손오공은 스스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사기, 오울, 칠표, 팔리, 구후의 기운과 맥이 뜨고 중간에 가라앉는지, 가라앉은 데서 다시 뜨는지 등을 세심히 살피며 병의 허실을 가려냈다. 그리고 나서 국왕에게 왼손을 풀게 한 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오른손 손목 부위를 차례로 진찰했다. 진찰을 마친 손오공은 몸을 한번 크게 떨더니 금색 실을 몸 안으로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엄숙하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 왼손의 촌맥은 강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관맥은 거칠고 느릿하며, 척맥은 맥이 비어 있으면서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의 촌맥은 떠 있으면서 매끄럽고, 관맥은 느릿하면서 불규칙하게 뛰며, 척맥은 빠르면서도 단단합니다. 왼손의 촌맥이 강하고 긴장된 것은 속이 허하여 가슴이 아픈 것이요, 관맥이 거칠고 느릿한 것은 땀이 나고 근육이 저린 것이며, 척맥이 비어 있고 가라앉은 것은 소변이 붉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촌맥이 떠 있고 매끄러운 것은 내부가 맺혀 경락이 막힌 것이요, 관맥이 느릿하고 불규칙한 것은 오래된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것이며, 척맥이 빠르고 단단한 것은 답답함과 허한 기운이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진찰해 보니, 크게 놀라고 근심하며 생각이 깊어 생긴 병으로, 이를 일컬어 ‘쌍조실군(두 마리 새가 무리를 잃음)’이라 합니다.”

안에 있던 국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맥을 아주 정확히 짚었구려! 과연 내가 앓던 병이 맞소. 어서 밖으로 나가 약을 지어 오시오!”

손오공이 궁궐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보던 내관들이 이미 관리들에게 소식을 전한 뒤였다. 잠시 후 손오공이 나타나자, 삼장법사가 즉시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맥을 짚어보니, 이제 병에 맞는 약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신통한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쌍조실군(두 마리 새가 무리를 잃음)’이라는 병명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설명했다.

“암수 한 쌍인 새 두 마리가 원래는 한데 어우러져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와 소나기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암컷은 수컷을 볼 수 없고 수컷도 암컷을 볼 수 없게 되어, 암컷은 수컷을 그리워하고 수컷 또한 암컷을 그리워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쌍조실군’이 아니겠습니까?”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환호하며 외쳤다.

“과연 신통한 스님이십니다! 참으로 명의이십니다!”

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한 어의가 나서서 물었다.

“병의 상태는 알아내셨으나, 어떤 약을 써서 고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처방전에 얼마일 필요 없습니다. 약재가 보이는 대로 가져오십시오.”

어의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경전에 이르기를 ‘약에는 팔백여덟(808) 가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백네(404) 가지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이 비단 한 사람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약이 보이는 대로 가져오라는 말씀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약은 처방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모든 약재를 다 모아놓고, 그 상황에 맞춰 가감하여 쓰려는 것입니다.”

의관은 더 이상 말을 잊지 않고 즉시 조정 문 밖으로 나가, 자기 관아의 당직자들에게 명하여 성안의 모든 생약·약재 상점에 두루 알리고 약재를 가져오게 했다. 약재는 종류별로 각각 세 근씩 마련하여 손오공에게 보내게 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곳은 약을 조제하는 곳이 아니니, 모든 약재와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회동관으로 보내어 나의 두 사제에게 넘겨 받아두게 하시오.” 의관은 명을 받들어 팔백여덟(808) 가지의 약재를 종류별로 세 근씩 마련하고, 약을 찌는 절구와 갈판, 체, 약을 가는 유발과 절굿공이 같은 모든 기구들을 회동관으로 보내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넘겨주었다.

손오공은 전각으로 가서 스승님께 함께 회동관으로 가서 약을 만들자고 청했다. 그때 마침 장로(삼장)가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내궁에서 어명이 전해 내려왔다. 대신들에게 명하여 법사님을 머물게 하고 문화전에 함께 목계 하라는 내용이었다. 내일 아침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통관 문서를 다시 발급해 정중히 배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자야, 이건 나를 불모로 붙잡아 두려는 뜻이 아니냐. 만약 병을 잘 고치면 기쁜 마음으로 배웅받겠지만, 만약 고치지 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너는 반드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약을 조제해야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걱정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이 손오공에게는 나라를 고칠 신통한 의술이 있으니까요.”

손오공은 대성(大聖)답게 삼장법사와 작별하고 신료들에게 인사를 올린 뒤, 곧장 회동관으로 향했다. 저팔계가 마중 나오며 웃으며 말했다.

"형님, 딱 보니 알겠네요!"

손오공이 물었다.

"네가 뭘 안다는 말이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이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은 결국 틀렸고, 이제는 정치 없이 떠돌며 먹고살 궁리를 하려 한다는 걸 알죠. 오늘 보니 이곳이 워낙 풍요로우니, 어떻게든 약방이라도 하나 차려볼 생각 아니세요?"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국왕을 고쳐 드리고 나서, 일이 잘 풀리면 조정에서 물러나 길을 떠날 텐데 무슨 약방을 차린단 말이나?"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이 팔백여 가지 약재를 약재마다 세 근씩 가져왔으니 모두 이천사백이십사 근이나 되는데, 고작 한 사람을 고치는 데 이걸 다 쓰겠어요? 이걸 다 먹으려면 대체 몇 년이 걸린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많이 쓸 리가 있느냐? 저 태의원 관리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 약재를 저리 많이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래야 내가 어떤 약재를 쓰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여, 내 신묘한 처방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마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관사가 눈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신통하신 스님 어른, 부디 저녁 식사를 하시지요." 손오공이 물었다. "아침에는 나를 그렇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청하다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관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어른께서 오셨을 때, 소인들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인 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른께서 신통한 재주를 발휘하여 나라의 주인을 고쳐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국왕께서 병이 나오신다면 어른께서는 이 나라의 강산에 뭍이 있는 분이 되실 것이고, 저희 또한 모두 어른의 신하가 될 것이니 마땅히 절을 올리며 모셔야 합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 흔쾌히 전각 안으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고, 저팔계와 사오정도 그 좌우에 나누어 앉았다. 음식이 차려지자 사오정이 물었다. “사형, 스승님은 어디 계십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국왕께서 불모로 붙잡아 두셨다. 병을 다 고치고 나면 그때 사례하며 배웅해 드릴 것이다.” 사오정이 다시 물었다. “스승님께서서는 대접을 잘 받고 계십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국왕께서 어찌 대접을 안 하시겠느냐? 내가 올 때 보니 이미 세 명의 대신이 곁에서 모시고 문화전으로 모셔 가더라.” 저팔계가 거들었다. “그렇게 말하니 역시 스승님이 제일 대단하시구먼. 스승님은 대신들이 모시는데, 우리는 고작 관사 둘이 시중드는 게 전부니 말이야. 에이,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 저팔계가 배불리 먹는 데나 집중하자고!” 세 사람은 그렇게 마음 편히 음식을 즐겼다.

날이 저물었다. 손오공이 관리를 불러 말했다. “불을 꺼 두시고 양초를 넉넉히 가져다주십시오.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관리는 곧 양초를 여러 개 가져다주었고, 손오공은 이를 각자 나누어 보관하게 했다.

한밤중이 되어 거리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무슨 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얼른 끝내고 쉬어요. 졸려 죽겠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대황을 한 냥 가져와서 곱게 가루로 내어라.”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대황은 맛이 쓰고 성질이 차며 독이 없습니다. 그 성질은 무거워 떠오르지 않고, 그 효능은 움직임이 빨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막힌 기운을 몰아내어 울체를 풀어주고, 화란을 잠재워 태평성대를 가져다주니 그 성질이 마치 장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내려보내는 힘이 강하니, 오래 앓아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서 쓰면 안 됩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이 약은 가래를 삭이고 기를 순하게 하며, 뱃속에 뭉쳐 있는 찬 기운과 열기를 씻어내는 약이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 너는 가서 파두를 한 냥 가져오너라. 껍질과 막을 벗기고 기름진 독기까지 두드려 없앤 다음 곱게 가루로 만들어 오너라.”

저팔계가 말했다. “파두는 맛이 맵고 성질이 뜨거우며 독이 있습니다. 굳어진 것을 깎아내어 폐부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막힌 것을 뚫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시원하게 해주니, 마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군과 같아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도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이 약은 맺힌 것을 깨뜨리고 창자를 잘 통하게 하여, 심장이 붓거나 배가 불러오는 병을 다

스릴 수 있다. 어서 만들어 오너라. 내가 곁들여 쓸 다른 약재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함께 쓰면 된다.”

두 사람은 즉시 두 가지 약재를 곱게 갈며 물었다. “사형, 나머지 수십 가지 약재도 더 써야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약재를 팔백여 가지나 준비해서, 한 종류당 석 근씩이나 챙겨놓고 고작 이 두 낭만 쓰다니, 정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십니다!” 손오공은 꽃무늬가 그려진 사발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아우야, 잔소리 말고 이 사발을 가져가서 술 밑바닥의 그을음을 반 사발 정도 긁어 오너라.” 저팔계가 되물었다. “그건 왜 필요합니까?” “약에 넣어야 한다.” 사오정도 거들었다. “소제는 약에 술 그을음을 넣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술 그을음은 ‘백초상’이라 하여 온갖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재다. 네가 몰랐구나.” 그 말을 들은 어수룩한 저팔계는 정말로 그을음을 반 사발이나 긁어 온 뒤, 그것을 다시 곱게 갈았다.

손오공이 잔을 건네며 말했다. “가서 우리 말의 오줌을 반 잔 정도만 더 가져오너라.”

저팔계가 물었다. “그건 왜 필요해요?”

“약을 만들려고 한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러자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말 오줌은 비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약으로 써요? 제가 보기엔 식초를 풀어서 알약을 만들거나, 쌀가루를 풀어서 만들거나, 꿀을 넣거나, 아니면 그냥 맑은 물로 만들기도 했지, 말 오줌으로 약을

만드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비리고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 위장이 약한 사람은 바로 토해버릴 텐데, 거기다 파두나 대황처럼 설사를 유도하는 약까지 먹이면 속이 뒤집어져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할 텐데, 그게 장난이에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본래 서해 용왕의 몸이었던 놈이란 말이다. 만약 그놈이 기꺼이 오줌을 싸 주기만 한다면, 네가 어떤 병을 앓든 그것을 먹기만 하면 바로 나을 것이다. 다만 그게 참 얻기가 어려울 뿐이지."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말 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말은 땅에 비스듬히 엎드려 잠만 자고 있었다. 저팔계가 발로 툭툭 차서 배 밑을 건드려 보며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줌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저팔계가 손오공에게 달려와 말했다. "형님, 황제 폐하를 고칠 생각은 접으시고 차라리 이 말을 먼저 고치세요. 저놈은 속이 꽉 막혀서 오줌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같이 가마."

사오정도 말했다. "저도 가서 좀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말 곁으로 다가가자, 말이 갑자기 뛰어오르며 사람의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사형, 어찌 모르십니까? 저는 본래 서해의 날아다니는 용이었습니다. 천계의 법도를 어기는 바람에 관음보살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나, 대신 뽕을 깎고 비늘을 벗겨내어 말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스승님을 등에 태우고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것은 그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제가 만약 물에 들어가 소변을 보면 물속

의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용이 될 것이요, 산에 가서 소변을 보면 산의 풀들이 그 맛을 보고 영지로 변하여 신선들의 시종들이 채집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속세의 곳에서 함부로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게, 말조심하게. 이곳은 서방국의 국왕이 계신 곳이지 속세가 아니며, 그렇다고 함부로 버리는 것도 아니네. 흔히들 ‘털이 모여 갓옷을 이룬다’고 하지 않나. 이 나라 왕의 병을 고치려는 것이니, 병을 잘 고치면 모두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 이곳을 무사히 떠나지 못할까 두렵네.”

말은 그제야 “기다리시오!”라고 외치더니, 앞으로 한 번 꺾충 뛰었다가 뒤로 한 번 웅크렸다. 그러더니 입안의 이빨을 딱딱거리며 소리를 내더니, 겨우 몇 방울을 내보이며 몸을 일으켰다. 저팔계가 보고는 말했다. “이 죽일 놈, 이게 바로 금즙(金汁)이로구나. 좀 더 싸 주면 좋으련만.”

손오공이 보니 반 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됐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니 가져가게.” 그제야 사오정이 기뻐하며 받아 들었다.

세 사람은 대청으로 돌아와 앞서 준비한 약재들을 한데 섞고 잘 버무려 커다란 알약 세 덩이를 만들었다. 손오공이 보고 말했다. “형제들, 알약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러자 저팔계가 대꾸했다. “호두만 한 크기인데 뭘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먹기에는 한입 거리도 안 되겠는 걸요.” 두 사람은 약을 작은 상자에 담아 보관하고는 옷을 입은 채 그

대로 잠이 들었다. 밤새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고, 어느덧 날이 밝아 왔다.

한편, 국왕은 병이 깊은 와중에도 정무를 돌보며 조회를 열었다. 그러다 당승을 알현한 뒤, 즉시 여러 관리에게 명하여 서둘러 회동관으로 가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손 장로에게 약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관리들이 뒤따라 숙소로 들어오더니, 손오공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우리 국왕께서 특별히 명하시어, 이 신통한 약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저팔계가 뚜껑을 열어 상자를 건네자, 관리가 물었다. “이 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국왕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것은 오금단이라 하오.” 옆에 있던 저팔계와 사오정은 속으로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솔 밑바닥의 그을음을 섞어놓고 어찌 오금단이라고 하는 거야?” 관리가 다시 물었다. “약과 함께 먹을 매개체(약인)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매개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소. 그중 구하기 쉬운 방법은 여섯 가지 재료를 달인 물로 복용하는 것이요.” 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 여섯 가지가 무엇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늙은 까마귀의 방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잉어의 오줌, 왕모마마가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 태상노군이 화로에서 금단을 만들 때 나오는 재, 옥황상제가 쓰다 해진 두건 세 조각, 그리고 간혀 있는 용의 수염 다섯 가닥이요. 이 여섯 가지를 달인 물로 이 약을 먹이면, 국왕의 근심 병이 곧바로 나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관리가 말했다. “그것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다른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무근수(땅에 닿지 않

은 물)로 복용하면 되오.” 관리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야 구하기 쉽지요.” 손오공이 되물었다. “어째서 구하기 쉽다고 생각하오?” 관리가 대답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무근수를 이렇게 구한다고들 합니다. 그릇을 들고 우물가나 강가로 가서 물을 뜬 다음,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급히 걸음을 옮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으로 달려가 환자에게 먹이면 된다고 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우물이나 강에 있는 물은 모두 뿌리가 있는 물이오. 내가 말하는 무근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땅에 닿기 전에 바로 받아 환자에게 먹여야 진정한 무근수라 할 수 있소.” 관리가 다시 말했다. “그것도 어렵지 않겠군요. 비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약을 먹이면 되겠습니다.”

손오공이 정중히 절을 올리며 인사를 나누자, 의관들은 약을 받아 들고 국왕에게 돌아가 올렸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근시를 불러 약을 가져오게 한 뒤 살펴보며 물었다.

"이것은 무슨 알약이냐?"

신료들이 대답했다.

"신통한 승려께서 말씀하시기를 '오금단'이라 하였으니, 무근수(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닿지 않은 물)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왕이 즉시 궁인들에게 무근수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러자 신료들이 말했다.

"승려의 말씀에 따르면, 무근수는 우물물이나 강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닿지 않은 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왕은 곧바로 어차관을 불러 명을 전하게 하여, 법사들을 불러 비를 내려달라고 빌게 하였다. 신료들은 그 명을 받들어 방을 붙이고 비를 기다렸다.

한편, 손오공은 회동관 대청에 앉아 저팔계에게 말했다.

"방금 국왕이 허락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어야 약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급한데 어떻게 비를 내리겠느냐? 내가 보니 이 국왕은 참으로 덕이 높고 어진 임금 같으니, 우리가 비를 내려 약을 짓는 것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저팔계가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는 내 왼편에 서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라."

그리고는 사오정에게도 말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서서 곁을 지키거라. 이 몸이 국왕을 위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좀 구해오겠다."

손오공은 곧바로 도술을 펼치는 주문을 외우며 신령한 기운을 모았다. 그러자 정동쪽에서 먹구름 한 조각이 서서히 머리 위로 다가왔다. 그때 동해 용왕 오광이 나타나 외쳤다.

"대성, 동해 용왕 오광이 뵙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별일 아니니 번거롭게 해 미안하네. 국왕의 약을 짓는 데 쓸 하늘의 물을 좀 도와주러 왔네."

용왕이 말했다.

"대성께서 부르실 때 물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저 혼자 몸으로 왔습니다. 비를 내릴 도구도 없고 바람이나 구름, 천둥, 번개도 없는데 어떻게 비를 내린단 말씀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지금은 바람이나 구름, 번개 같은 건 필요 없네. 비가 많이 올 필요도 없고, 그저 약을 섞을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되네."

용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재채기를 두어 번 크게 하고 침을 좀 뱉어내어, 그 물로 약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아주 좋네, 아주 좋아! 망설이지 말고 어서 서둘러 주게나."

늙은 용왕이 공중에서 검은 구름을 서서히 낮추어 황궁 위까지 끌어왔다. 그러고는 몸을 숨겨 형체를 감춘 채 침을 한 번 뱉고 뱉으니, 그것이 곧 달콤한 단비로 변했다. 그러자 조정의 모든 관리가 일제히 환호하며 외쳤다. "우리 주상 전하께 만 가지 경사가 겹치니, 하늘이

내려 단비를 내리시는구나!” 국왕은 즉시 명을 내려 말했다. “그릇을 가져와 담도록 하라! 궁궐 안팎을 가리지 말고, 관직의 높고 낮음도 따지지 마라. 모두 신선한 물을 받아 저를 구원하는 데 쓰도록 하라.” 그러자 문무백관은 물론 삼궁육원의 후궁들과 삼천 명의 궁녀, 팔백 명의 미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잔과 컵을 들고, 그릇과 쟁반을 받쳐 든 채 단비를 받으려 기다렸다. 늙은 용왕은 공중에서 계속해서 침을 뱉어내며 왕궁 앞뒤를 떠나지 않았다. 한 시진쯤 지나서야 용왕은 손오공에게 작별을 고하고 바다로 돌아갔다. 신하들은 쓰던 잔과 그릇을 거두어들이는데, 어떤 이는 한두 방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너 방울을 받기도 했으며, 아예 한 방울도 받지 못한 이도 있었다. 이들이 모은 물을 모두 합치니 대략 세 잔 정도가 되어 모두 어안(임금의 책상) 앞으로 바쳐졌다.

참으로 기이한 향기가 금란전에 가득하니, 아름다운 맛이 천자의 뜰에 향기롭게 퍼져 나갔다.

국왕은 당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금단과 단비(하늘에서 내린 감로)를 챙겨 궁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오금단 한 알을 삼키고 단비 한 잔을 마셨다. 다시 한 알을 삼키고 또 단비 한 잔을 마셨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여 세 알의 약을 모두 삼키고 세 잔의 단비를 다 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속에서 물레 돌아가는 소리처럼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국왕은 즉시 깨끗한 통을 가져와 대여섯 차례나 배설을 했다. 그리고 나서 미음으로 속을 달랜 뒤 용상에 쓰러지듯 누웠다. 두 명의 후궁이 통을 살펴보고는, 더러운 오물과 가래가 끝

도 없이 나오고 그 안에 찹쌀밥 덩어리까지 들어 있다며 깜짝 놀랐다. 후궁이 용상 가까이 다가가 보고했다.

"병의 근원이 모두 빠져나왔나이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다시 미음을 한 그릇 더 먹었다.

잠시 후, 국왕은 가슴과 마음이 탁 트이며 기혈이 조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신이 맑아지고 다리에 힘이 넘쳐났다. 용상에서 내려와 조정 의복을 갖춰 입은 국왕은 즉시 보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당승을 보자 국왕은 몸을 굽혀 절을 올렸고, 당승은 서둘러 답례를 했다. 절을 마친 국왕은 어의의 부축을 받으며 이렇게 일렀다.

"어서 서신을 준비하라. 서신에는 '두 번 절하며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적고, 관리들을 보내 법사님과 그 제자 세 분을 정중히 모셔라. 동각의 문을 활짝 열고 광록시(궁중 연회를 담당하는 관청)에 명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라."

여러 관리가 명을 받들어 서신을 준비하고 잔치를 마련하기 시작하니, 과연 이러하였다. 나라를 뒤흔들던 큰 병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타났다.

한편, 저팔계는 국왕이 보낸 사례를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형님, 정말이지 대단한 명약입니다! 이번에 받은 보답은 모두 형님 덕분이예요.”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부터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온 집안이 함께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약을 만들었으니, 우리 모두에게 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군말 말고 맛있게 드시기나 하세요.” 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모두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관리들이 길을 안내하여 동각으로 올라가니, 이미 당승과 국왕, 그리고 대신들이 자리를 잡고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손오공은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스승님께 예를 올린 뒤, 뒤이어 들어오는 관리들을 맞이했다. 상 위에는 네 개의 채식 상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열 가지가 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앞쪽에는 고기 요리가 올라온 육식 상 하나가 있었고, 좌우로는 사오백 개의 단독 상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다.

시로 이르되,

"백 가지 맛의 진수성찬에 천 종의 귀한 술이 흐르고, 부드러운 유제품과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하구나. 꽃처럼 화려한 장식에 과일은 향긋하고 달콤하며, 설탕 과자와 떡은 정성스레 차려져 있네. 돼지, 양, 닭, 거위, 물고기, 오리까지 고기 요리 가득하고, 채소와 죽순, 목이버섯과 버섯까지 채소 요리 풍성하구나. 향긋한 국물과 달콤한 과자, 부드러운 곡식 죽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매콤하고 달콤하게 입맛을 돋우네."

임금과 신하들이 잔을 들어 자리를 잡자, 차례에 따라 술병이 전해지며 연회가 시작되었다.

국왕은 잔을 들고 먼저 당승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당승이 말했다. "빈승은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국왕이 말했다. "고기 없이 빗

은 정갈한 술(소주, 素酒)입니다. 법사님, 이 한 잔은 어떠십니까?” 당승이 다시 대답했다. “술은 승려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입니다.” 국왕은 못내 아쉬운 듯 말했다. “법사님께서 술을 금하신다면, 무엇으로 경의를 표해야 하겠습니까?” 당승이 웃으며 말했다. “제 못난 제자 세명이 대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국왕은 기뻐하며 금잔을 돌려 손오공에게 건넸다. 손오공은 잔을 받아 모두에게 예를 갖춘 뒤 술을 한 잔 들이켰다. 국왕은 손오공이 시원스럽게 마시는 것을 보고 또 한 잔을 올렸다. 손오공은 사양하지 않고 또 마셨다. 국왕이 웃으며 말했다. “삼보종(三寶鍾) 잔으로 한 잔 드시오.” 손오공은 거절하지 않고 또 마셨다. 국왕은 다시 술을 따르게 하여, 사계배(四季杯) 잔으로 한 잔을 비우게 했다.

저팔계는 옆에서 술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침을 꼴깍 삼키며 애를 태웠다. 그러다 국왕이 손오공에게 간곡히 권하는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일어나 소리쳤다.

“폐하, 드신 그 약도 다 제 덕분입니다. 그 약 안에는 말의…….”

손오공은 저팔계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일을 그르칠까 봐 얼른 저팔계에게 술잔을 건넸다. 저팔계는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국왕이 궁금하여 물었다.

“신통한 승려께서 약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손오공이 얼른 말을 가로채며 대답했다.

“이 형제가 워낙 입이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좋은 처방을 알게 되면 꼭 남에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거든요. 폐하, 아침에 드신 약에는 ‘마두령’이라는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국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마두령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병을 고치는 데 쓰느냐?”

곁에 있던 태의원 관리가 대답했다.

“폐하, 마두령은 맛이 쓰고 차가우며 독이 없습니다. 숨 가쁜 증상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없애는 데 큰 효험이 있습니다. 기를 잘 통하게 하여 혈독을 제거하고, 허한 몸을 보하며 기침을 멎게 하고 가슴 답답함을 풀어줍니다.”

국왕이 웃으며 말했다.

“과연 적절하게 잘 썼구나, 잘 썼어. 저팔계 스님, 한 잔 더 드시게.”

저팔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삼보종(三寶鍾) 잔으로 한 잔을 비웠다. 국왕이 사오정에게도 술을 권하자 사오정 역시 세 잔을 마신 뒤 모두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국왕이 다시 커다란 술잔을 들어 손오공에게 권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어서 앉으십시오. 이 노손은 권하는 순배대로 시원히 마실 것이니, 감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신통한 승려의 은혜가 태산처럼 무거우니, 과인이 다 갚을 길이 없구려. 우선 이 커다란 술 한 잔을 들이켜시오. 내 할 말이 있소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씀만 하시면 이 노손이 기분 좋게 마시겠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과인이 몇 년 동안 근심과 의심이 쌓인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신통한 승려가 준 영험한 약 한 첩 덕분에 맥이 뚫려 병이 나았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제 폐하의 맥을 짚어보았을 때, 근심과 의심이 병이 된 것은 알았으나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하신지는 몰랐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옛말에 ‘집안의 치부는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소. 하지만 신통한 승려는 과인의 은인이니, 웃지 않고 들어준다면 말해주겠소.”

손오공이 말했다. “어찌 웃음을 보인단 말입니까? 편히 말씀하십시오.”

국왕이 물었다. “신통한 승려가 동쪽에서 오셨다는데, 그동안 몇 개의 나라를 거쳐 오셨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다섯 혹은 여섯 군데 정도를 거쳐 왔습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다른 나라의 왕비들은 보통 무엇이라 부른다 오?”

손오공이 말했다. “나라의 왕비라면 보통 정궁, 동궁, 서궁이라 부릅니다.”

국왕이 말했다. “과인의 나라는 그렇게 부르지 않소. 정궁은 금성궁, 동궁은 옥성궁, 서궁은 은성궁이라 부르지. 지금은 옥성궁과 은성궁 두 왕비만 궁에 머물고 있소.”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금성궁은 어찌하여 궁에 없습니까?”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없어진 지 벌써 3년이 되었소.”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국왕이 말을 이었다. “3년 전 단오절이었소. 과인이 비빈들과 함께 어화원 해류정 아래 모여 종(粽, 찹쌀떡)을 풀어 먹고 쑥을 꽂으며, 창포주와 웅황주를 마시고 용선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한 차례 불더니, 공중에 요괴 하나가 나타났소. 스스로를 ‘새태세’라 칭하며, 기린산 해치동에 살고 있는데 동굴에 부인이 한 명 부족하다고 하더군. 그러더니 우리 금성궁의 자태가 아름답고 고우니 부인으로 삼겠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했소. 만약 세 번 외치는 동안 내놓지 않으면, 먼저 과인을 잡아먹고 그다음엔 신하들을, 마지막엔 성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먹겠다고 했소. 당시 과인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느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금성궁을 해류정 밖으로 밀어냈더니 요괴가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낚아채 가버렸소. 과인은 그 일로 너무

놀라 가슴이 떨리고, 먹었던 종(粽)이 속에서 짝 막혀버렸지. 게다가 밤낮으로 근심과 생각이 끊이지 않으니, 그 고통스러운 병이 3년이나 이어졌던 것이오. 이제 신통한 승려의 영단(靈丹)을 먹고 몇 번을 배설했더니, 3년 전부터 쌓여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소. 덕분에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예전처럼 맑아졌구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신통한 승려가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 은혜가 어찌 태산만큼 무겁다는 말로 그치겠소!”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커다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두 입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웃으며 국왕에게 물었다. “폐하, 알고 보니 그런 근심 때문에 고생하셨군요. 이제 이 손오공을 만났으니 다행히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금성궁을 다시 궁으로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국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짐은 밤낮없이 오로지 그 생각뿐이라오. 다만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찌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지 않겠소?” 손오공이 말했다. “이 손오공이 폐하와 함께 가서 요괴를 굴복시켜 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국왕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만약 내 왕비를 구해준다면, 짐은 후궁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백성으로 살겠소. 이 나라의 강산을 모두 신성한 승려에게 넘겨줄 테니, 그대가 황제가 되시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팔계는 국왕이 예법을 갖추어 절하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해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이 황제라는 사람이 체통도 없군! 어찌 아내를 구하겠다고 나라까지 버리면서 스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인가?” 손오공이 급히 앞으로 나서서 국왕을 부축하며 말했다. “폐하, 그 요괴가 금성궁을 데려간 뒤로 지금까지 다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국왕이 대답했다. “재작년 오월 단오 무렵에 금성궁을 잡아

갔는데, 시월쯤에 다시 와서는 왕비를 모실 궁녀 두 명을 내놓으라 하기에 짐이 두 명을 내주었소. 작년 삼월에는 또 궁녀 두 명을 가져갔고, 칠월에는 또 두 명을 가져갔으며, 올해 이월에도 또 두 명을 가져갔도.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겁이 나는구려.” 손오공이 물었다. “그렇게 자주 나타난다면 두렵기는 하십니까?” 국왕이 말했다. “그놈이 워낙 자주 찾아오니,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를 입을 까 두렵기도 하오. 그래서 작년 사월에 짐이 요괴를 피하기 위해 피요루를 짓게 했소. 바람 소리만 들려도 그놈이 온 줄 알고, 두 왕비와 후궁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숨곤 한대요.”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괜찮으시다면 저를 그 피요루로 데려가 보여주시겠습니까?” 국왕은 즉시 왼손으로 손오공을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료들도 일제히 일어났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렇게 맛있는 술을 두고 안 드시고는, 잔치 분위기 다 깨뜨리면서 뭘 보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국왕은 그 말을 듣고 저팔계가 먹을 것 때문에 투덜거린다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관리에게 명하여 흰 상 두 개를 가져와 술을 차려놓고 피요루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러자 저팔계는 그제야 조용해지더니 스승님과 사오정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자, 잔치 구경하러 갑시다!”

문무 관리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국왕은 곁에 선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황궁을 지나 어화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에는 눈에 띄는 누각이나 전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손오공이 물었다. “피요루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시 두 명이 붉은 칠을 한 멜대를 메고 나타나더니, 빈터에 놓인 커다란 사각형 돌판을 들어 올렸다. 국왕이 설명했다. "바로 이곳이라네. 이 아래는 삼 장(丈)이 넘는 깊이로 땅을 파서 아홉 칸의 궁전을 만들어 두었지. 안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네 개 있는데, 그 안에 맑은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등불을 켜두어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다네. 나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면 이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사람들이 밖에서 돌판을 덮어버린다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 요괴가 아직 왕을 해치지 않은 모양이군요. 만약 정말로 왕을 해치려 들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쪽 방향에서 바람이 뽕뽕 불어오며 흙먼지가 사방으로 휘날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관리들이 일제히 불평을 쏟아냈다. "이 스님은 입만 열면 요괴 타령이니! 요괴 소리가 나오자마자 정말 요괴가 나타났구나!"

겉에 질린 국왕은 손오공을 뒤로한 채 얼른 지하 구멍 속으로 몸을 숨겼고, 당승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관리들 또한 모두 혼비백산하여 자리를 피했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겉에 질려 숨으려 하자, 손오공이 두 사람의 양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제들아, 겁낼 것 없다. 내가 저놈이 어떤 요괴인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 잘 보고 있거라."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쇼! 확인하긴 뭘 확인해요? 관리들은 다 숨고, 스승님은 몸을 피하고, 국왕까지 피했는데 우리만 가서 뭐 하겠소? 체면치레하러 가는 것도 아니면서!”

사오정 역시 몸을 버둥거리며 벗어나려 했지만, 손오공의 손아귀를 떨쳐낼 수는 없었다. 손오공이 두 사람을 꼭 붙잡고 있는 사이, 허공에서 요괴 하나가 번쩍하며 나타났다. 그 요괴의 생김새가 어떠했는지 보아라.

키는 아홉 자나 되어 험악하기 그지없고, 두 눈은 금빛 등불처럼 번뜩인다. 부채를 펼친 듯 커다란 귀에, 못을 박은 듯한 네 개의 강철 송곳니가 돌아 있다. 붉은 털이 관자놀이를 감싸고 눈썹은 불꽃처럼 치솟았으며, 코는 술지게미를 누르는 도구처럼 늘어져 콧구멍이 흰히 보인다. 수염은 붉은 주사 빛깔 같고, 광대뼈는 울퉁불퉁하게 솟아 얼굴빛은 푸르스름하다. 두 팔은 붉은 근육과 푸른 힘줄이 돌아 있고, 열 개의 날카로운 손톱은 창을 움켜쥐고 있다. 허리에는 표범 가죽 치마를 두르고, 맨발에 형클어진 머리를 한 모습이 마치 귀신과도 같다.

손오공이 보고는 물었다. “사오정, 너 저놈을 아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저놈과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는 저팔계에게 물었다. “팔계야, 너는 아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차를 마시거나 술을 같이 한 적도 없고, 이웃이나 친구 사이도 아닌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압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저놈을 보니 동악천제(東嶽天齊) 수하에서 문을 지키는 초면금정귀(醺面金睛鬼)와 닮았구나.” 저팔계가 손사래를 치

며 말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손오공이 되물었다. “네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저팔계가 논리적으로 따지듯 말했다. “귀신은 음의 기운을 가진 존재라 해가 지고 나서 신시, 유시, 술시, 해시가 되어야 나타나는 법입니다. 지금은 아직 사시인데 어떤 귀신이 감히 나타나겠습니까? 설령 귀신이라 해도 구름을 타고 다니지는 못할 겁니다. 바람을 다스린다 해도 그저 회오리바람 정도지, 어찌 이런 광풍을 일으키겠습니까? 어찌면 저놈이 바로 새태세일지도 모르겠군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 제법 논리적인 구석이 있구나. 정 그렇다면 너희 둘은 여기서 잘 지키고 있거라. 내가 가서 저놈의 이름을 물어본 뒤, 국왕을 도와 금성궁을 구해 오겠다.” 저팔계가 걱정하며 말했다. “가려면 가되, 절대로 우리를 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손오공은 당당하게 대답 대신 상서로운 빛을 뿜으며 하늘로 꺽충 뛰어올랐다. 아! 시로 이르되,

나라를 평안케 하려면 먼저 임금의 병을 물리쳐야 하고, 도를 지키려면 마음속의 애증을 먼저 없애야 하리라.

결국 하늘로 솟구쳐 오른 손오공이 요괴와 싸워 이길지, 어떻게 요괴를 붙잡고 금성궁을 구해낼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0회 — 요마가 보물에서 연기와 모래, 불을 내뿜고, 손오공이 계책을 써서 자금령을 훔치다

妖魔竇放煙沙火 悟空計盜紫金鈴

한편, 손오공은 신통력을 떨치며 여의봉을 치켜들고 상서로운 빛을 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는 요괴를 향해 호통을 쳤다. "네놈은 어디서 온 요괴냐?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그러자 요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나는 다른 이가 아니다! 기린산 해치동의 새태세 대왕님을 모시는 선봉이다. 지금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궁녀 두 명을 데려가 금성황후를 모시러 왔다. 네놈은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따져 묻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제천대성 손오공이다! 동토의 당삼장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이 나라를 지나다, 너희 같은 요괴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나라를 바로잡고 사악함을 물리치려 왔다. 마침 너희를 찾고 있었는데, 제 발로 죽으러 오는구나!" 요괴는 그 말을 듣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긴 창을 휘두르며 손오공을 찔러왔다. 손오공 역시 여의봉을

들어 맞서 싸웠다. 공중에서 두 존재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시로 이르되, "봉은 용궁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보물이고, 창은 인간 세상에서 두드려 만든 철이라네. 어찌 범상한 병기가 신령한 병기와 비길 수 있으랴, 스치기만 해도 신기(神氣)가 빠져나갈 터. 대성께서는 본래 태을선인이요, 요괴는 본래 사악한 업보의 존재라네. 어찌 요사스러운 것이 정인을 가까이하랴, 바른 기운이 서리면 사악함은 곧 멸하리라. 한쪽은 바람을 일으키고 흙을 뿌리며 임금을 괴롭히고, 다른 쪽은 안개를 밟고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가리네. 체면 따위 버리고 승부를 겨루어 보나니, 무능한 자가 어찌 호걸이라 자부하겠는가! 역시 제천대성이 으뜸이라, 쉿쉿 소리와 함께 봉 한 방에 창이 먼저 부러졌구나." 손오공의 여의봉에 맞은 요괴는 긴 창이 두 토막이 나자,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히 몸을 돌려 서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놈을 굳이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구름을 타고 내려와, 요괴를 피하던 동굴 입구로 가서 외쳤다. “스승님, 국왕 전하와 함께 나오십시오! 요괴를 쫓아버렸습니다!” 그제야 당삼장은 국왕을 부축하여 동굴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고 깨끗했으며, 요괴의 사악한 기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왕은 곧장 술상 앞으로 다가가 직접 술병을 들고 금잔에 술을 가득 채워 손오공에게 권하며 말했다. “신성한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오공이 잔을 받아 들고 대답하려는데, 문득 조정 밖에서 관리가 달려와 보고했다. “서문 쪽에 불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손에 든 금잔과 술을 공중으로 휘 던져버렸다. ‘챙그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금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왕은 깜짝 놀라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신성한 스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본래 전각으로 모셔 절을 받

으며 감사 인사를 올려야 마땅하나, 마침 앞에 술이 있어 이렇게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잔을 던져버리시니, 혹시 저에게 불쾌한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관리가 달려와 보고했다. “다행히 큰비가 내렸습니다! 서문에 불이 나자마자 큰비가 쏟아져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지금 거리마다 물이 흐르는데, 온통 술 냄새뿐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잔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불쾌해하셨으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괴가 서쪽으로 패퇴하며 쫓겨나지 않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던진 이 술 한 잔은 요괴가 지른 불을 꺼서 서쪽 성안의 백성들을 구한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국왕은 더욱 기뻐하며 정중히 대접했다. 곧 당삼장 일행을 보전으로 모셔 올린 뒤, 자리를 내어주고 나라를 맡기려는 기색까지 보였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폐하, 방금 그 요괴는 새태세의 부하인 선봉이라 하며 궁녀를 잡아 가려 했습니다. 그놈이 싸움에 지고 돌아갔으니 분명 그놈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놈은 필시 저와 싸우러 올 것입니다. 요괴가 한꺼번에 군사를 몰고 와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다치게 할까 걱정됩니다. 폐하를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 제가 직접 가서 그놈을 맞이한 뒤, 공중에서 낚아채 황후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여기서 그놈의 동굴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국왕이 대답했다. "과인이 예전에 야불수(夜不收, 정탐 척후병) 군마를 그곳에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오가는 데 쉼 날이 넘게 걸린

다고 하더이다.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리는 대략 삼천여 리쯤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외쳤다. "팔계와 사오정은 이곳을 잘 지키고 있거라. 이 몸은 얼른 다녀오마!"

국왕이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신승이여, 부디 하루만 여유를 두시지요. 마른 음식을 좀 볶아 준비하고 여비로 쓸 은자도 챙겨드리며, 빠른 말도 한 마리 골라 드릴 테니 그때 출발하십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폐하, 그것은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이 삼천 리 길쭉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도 식기도 전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신승이여, 내 말이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 대의 모습이 꼭 원숭이 같아 보여서 묻는 것이요. 어찌 그런 법력을 지녀서 이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몸은 비록 원숭이의 형상이지만, 어려서부터 생사의 길을 헤쳐 왔네. 명스승 찾아다니며 도를 전수받고, 산 앞에서 밤낮없이 수련했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화로 삼아, 해와 달의 기운을 한데 모았네. 음과 양, 물과 불을 조화롭게 다스리니, 어느덧 신비로운 도의 문을 깨달았도다. 천강의 기운을 운용하는 공력을 믿고,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네. 화로를 달고 불을 지피는 때를 맞추며, 납과 수은을 섞어 정성을 다했지. 오행을 모아 만물을 창조하고, 사상의 조화를 때에 맞춰 이루었으니, 두 기운이 황도에서 만

나고, 세 가지 기운이 금단의 길에서 하나가 되었네. 법칙을 깨달으니
온몸에 신통력이 깃들어, 본래의 재주가 신의 도움을 받는 듯하구나.
한 번 도약하면 태행산을 단숨에 넘고, 한 번 내달리면 능운도를 가뿐
히 지나네. 험한 산봉우리가 수천 겹이라 한들 무엇이 걱정이며, 장강
이 백여 리라 한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변화무쌍한 신통력으로 거침이
없으니, 십만 팔천 리 길도 단숨에 달려가리라!"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술잔을 받들어 손오공에게 건네며 말했다. "신승께서 멀리 오
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이 술 한 잔을 드시고 기운을 내시오."

하지만 요괴를 잡으러 가는 데 온 마음이 쏠린 손오공에게 술을 마
실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냥 두
십시오. 다녀와서 마시겠습니다."

말을 마친 손오공은 획 하고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순식간에 자취
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편, 손오공이 몸을 획 날리자 눈앞에 거대한 산 하나가 안개를 머
금은 채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
가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장관인 산이었다.

시로 이르되, 하늘을 찌를 듯 솟아 땅을 차지하니, 해를 가리고 구름
을 만들어내네. 하늘에 닿은 곳은 뽕족한 봉우리가 솟아 있고, 땅을 차
지한 곳은 멀리 뻗은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네. 해를 가리는 것은 산
마루에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요, 구름을 만드는 것은 절벽 아래 반짝

이는 바위라네. 푸른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푸르고, 반짝이는 바위는 만 년 세월에도 그 빛을 잃지 않네. 숲속에서는 밤마다 원숭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계곡에서는 요괴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산새는 애처롭게 지저귀고, 산짐승은 우렁차게 포효하네. 산노루와 산사슴은 짝을 지어 분주히 뛰어다니고, 산까마귀와 산까치는 무리지어 뻑뻑하게 날아다니네. 산풀과 산꽃은 끝이 없고, 산복숭아와 산열매는 철마다 새로이 빛나네. 비록 험준하여 다니기 어렵다 하나, 요괴와 신선이 은거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로다.

손오공은 이 장관을 보고도 질리지 않고 계속 구경하며 동굴 입구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산골짜기 사이에서 불길의 확 타오르며 솟구쳐 올라왔다. 순식간에 붉은 불꽃이 하늘을 뒤덮더니, 그 불길 속에서 불보다 더 독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참으로 고약한 연기였다! 시로 이르되,

불빛은 만 개의 금등잔처럼 사방으로 튀고, 불꽃은 천 갈래 무지개처럼 붉게 휘날리네. 그 연기는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도 아니고, 풀이나 나무가 타는 연기도 아니며, 푸른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의 다섯 빛깔을 띠고 있네. 남천문의 기둥을 그을리고 영소전의 대들보를 태우며, 굴속에 사는 짐승은 가죽이 다 녹아내리게 하고 숲속의 새들은 깃털이 다 타버리게 하네. 이토록 고약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데, 어찌 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요괴 왕을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

손오공은 겁이 나던 차에, 산속에서 갑자기 모래 폭풍이 한 줄기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정말 하늘과 해를 가릴 정도로 엄청난 기세였다! 보라.

"모래는 흩날리며 하늘 끝까지 뒤덮고, 먼지는 둔탁하게 대지를 가로막네. 가는 곳마다 미세한 먼지가 눈을 어지럽히고, 거친 흙먼지는 골짜기를 깨알처럼 굴러다니네. 약초 캐는 신선 아이는 동료를 잃고 헤매며, 땔나무 하는 나무꾼은 집을 찾지 못하네. 손안에 명주를 쥐고 있어도 눈앞이 아득해, 눈에 불꽃이 튀듯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

손오공은 그 광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코안으로 모래와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코끝이 간질간질하더니 재채기가 두 번이나 터져 나왔다. 손오공은 얼른 뒤를 돌아 바위 아래에서 조약돌 두 개를 찾아 코를 막았다. 그러고는 몸을 흔들며 불을 피우는 작은 새의 모습으로 변신하더니, 자욱한 연기 속으로 날아들었다. 한참을 날아다니며 움직였더니 그제야 코안의 모래가 사라지고 연기도 가라앉았다.

손오공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징 소리가 땡땡 울려 퍼졌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군. 여기는 요괴가 사는 곳이 아니야. 징 소리가 군사들이 치는 소리 같은 걸 보니, 나라의 큰길이라 공문을 전달하는 군사들이 지나가는 모양이구나. 우선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한참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작은 요괴 하나가 노란 깃발을 짊어지고 문서를 등에 멘 채 징을 치며 날아갈 듯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저놈이 징을 치며 오고 있었구나. 저놈이 어떤 서신을 전하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

다." 그러고는 손오공이 몸을 흔들어 잼싸게 맹렬한 벌레로 변신하니, 요괴의 등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요괴는 징을 치며 웅얼웅얼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 대왕님은 참으로 마음이 독하시기도 하지. 3년 전 주자국에 가서 금성황후를 강제로 빼앗아 오셨는데, 그동안 운이 없어 아직 몸에 손도 못 대셨으니, 그 대신 궁녀들만 고생이로다. 두 명을 보내도 죽고, 네 명을 보내도 죽으니 말이야.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또 하려는데 하필이면 딱 걸리고 말았네. 궁녀를 데려오려던 선봉이 이름 모를 손행자라는 놈에게 패해서 돌아오질 않으니 말이야. 우리 대왕님께서 이 일로 크게 노하셔서 다른 나라와 싸워보겠다고 나더러 전령을 보내라고 하셨어. 이번에 가면 저 나라 국왕이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지, 싸우게 되면 분명 불리할 거야. 우리 대왕님께서 연기와 불꽃, 날아다니는 모래를 일으키시면 저 나라 국왕과 신하, 백성들 중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겠지. 그때 우리가 성을 차지하면 대왕님은 황제가 되시고 우리는 신하가 될 테니, 비록 크고 작은 관직을 얻긴 하겠지만 참으로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로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요괴 중에도 마음씨가 착한 놈이 있구나. 방금 저놈이 한 말 중에 "하늘의 도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결코 나쁜 뜻이 아니지 않은가? 다만 금성황후와는 인연이 닿지 않아 몸에 가까이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겠다.'

손오공은 잉 하는 소리를 내며 날개를 퍼덕여 요괴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길을 따라 십여 리쯤 가다가 몸을 한 번 흔들어 변신하니, 머리는

양 갈래로 땀아 올리고 온갖 조각 천을 기워 만든 옷을 입은 도동의 모습이 되었다. 손에는 어고(나무로 만든 타악기)를 들고 입으로는 도교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손오공은 산비탈을 돌다가 요괴를 마주치자, 먼저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나으리,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무엇을 전달하러 가시는데요?"

요괴는 마치 손오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을 치던 손을 멈추고, 싱글벙글 웃으며 답했다. "우리 대왕님께서 주자국에 도전장을 내밀라고 나를 보내셨네."

손오공이 말을 받으며 물었다. "주자국 황후는 대왕님과 잠자리를 함께하셨습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재작년에 억지로 잡아 왔을 때, 어떤 신선이 오색선의(仙衣) 한 벌을 금성궁(황후)께 새색시 단장용으로 보내왔지. 그런데 황후가 그 옷을 입자마자 온몸에 바늘 같은 가시가 돌아나서, 우리 대왕님이 감히 손끝 하나 대지 못하신다네. 조금이라도 만지려 하면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황후 몸에 손을 대지 못하셨어. 아침에는 선봉을 보내 시종들 궁녀를 데려오라 했더니, 무슨 손행자라는 놈에게 패하고 돌아왔지 뭐야. 대왕님께서 몹시 노하셨기에, 내게 도전장을 들려 보내 내일 그놈과 맞서 싸우라고 하셨다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대왕님께서 어찌 그리 화가 나셨을까요?"

요괴가 대답했다. "그 일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고 계시지. 자네, 가서 도교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게나. 대왕님의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 드려야지."

손오공이 포권을 하며 몸을 빼더니 곧장 떠나려 했다. 요괴는 여전히 징을 치며 앞장서 가고 있었다. 손오공은 기세를 몰아 달려들더니 여의봉을 획 휘둘러, 뒤를 돌아보며 요괴의 뒤통수를 단번에 내리쳤다. 가엾게도 요괴는 머리가 깨져 피가 솟구치고 목이 꺾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손오공은 봉을 거두며 속으로 후회했다. "너무 서둘렀구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으니 말이야. 뭐, 됐어."

그는 요괴가 들고 있던 전서를 챙겨 소매 속에 넣고, 황기와 징은 길가 풀숲에 숨겨 두었다. 시체를 시냇가로 끌고 가 던지려는데, 갑자기 '챙그랑' 소리가 나더니 요괴의 허리춤에서 금으로 장식된 아패(신분증) 하나가 드러났다. 아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심복 소교 이름은 유래유거. 키는 작고 얼굴은 넓데데하며 수염은 없다. 이 패를 늘 차고 다녀야 하며, 패가 없으면 가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놈 이름이 유래유거(왔다가 돌아옴)라고? 내 일격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는 아패를 풀어 허리에 찼다. 시체를 처리하려다가도 혹여 불과 연기 같은 요괴의 독이 묻어 있을까 걱정되어, 요괴의 동굴을 바로 찾아가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여의봉을 들어 요괴의 가슴팍을 톡 쳐서

공중으로 띄워 올린 뒤, 곧장 주자국으로 돌아가 큰 공을 세우겠노라 다짐했다. 손오공은 혼자 중얼거리며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순식간에 국경을 향해 달려갔다.

저팔계는 금란전 앞에서 국왕과 스승을 보필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손오공이 공중에서 요괴 한 마리를 획 채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에이, 참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진작 나더러 가져오라고 했으면 내 공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요괴를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쳤다. 저팔계는 얼른 달려가더니 쇠갈퀴로 요괴를 쿡쿡 찌르며 외쳤다.

"이건 다 내 공이야!"

손오공이 물었다.

"네 공이 대체 무슨 공인데?"

저팔계가 대답했다.

"나 덕분이라고!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여기 봐, 이 갈퀴에 구멍이 아홉 개나 뚫렸잖아."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놈 머리가 붙어 있는지 한번 봐라."

저팔계가 웃으며 맞장구쳤다.

"아이고, 머리가 없네! 어쩐지 내가 아무리 찢어도 꿈쩍도 안 한다 했어."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은 어디 계시냐?"

"전각 안에서 국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

"그럼 가서 스승님을 모셔 오너라."

저팔계는 급히 전각 위로 뛰어 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삼장이 곧 몸을 일으켜 전각 아래로 내려와 손오공을 맞이했다. 손오공은 전투를 선포하는 글을 적은 서신을 당삼장의 소매 속에 몰래 넣어주며 말했다.

"스승님, 이걸 잘 간직하시고 국왕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국왕도 전각 아래로 내려와 손오공을 맞이하며 물었다. "신성한 스님, 오셨습니까? 요괴를 잡은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계단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단 아래 있는 저게 요괴가 아닙니까? 제가 때려죽여 왔습니다." 국왕이 그것을 보고는 말했다. "요괴의 시체가 맞기는 합니다만, 새태세는 아닙니다. 새태세는 과인이 직접 두 번이나 보았는데, 키는 한 길 여덟 자(一丈八尺)나 되고 어깨너비는 다섯 정(停)이나 될 만큼 떡 벌어졌으며, 얼굴에서는 금빛이 나고 목소리는 벼락 같았습니다. 저렇게 작고 볼품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폐하께서 알아보시니 역시 그자가 아니군요. 이놈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잔챙이 요괴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공을 세우겠다고 먼저 덤비기에 때려죽여서 가져온 것입니다." 국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좋소, 아주 좋소! 이것이야말로 큰 공이라 할 만하오. 과인이 이곳에서 사람을 보내 수시로 소식을 알아보아도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스님께서 오시자마자 요괴를 잡아 오시다니 참으로 신통한 능력이십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는 이들에게 명했다. "어서 따뜻한 술을 가져오너라! 스님의 공을 축하드리자!"

손오공이 말했다. "술을 마시는 건 사소한 일입니다. 폐하께 여쭙겠습니다. 금성황후께서 떠나실 때, 혹시 남겨둔 증표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국왕은 '증표'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칼과 창이 심장을 파헤치는 듯한 통증을 느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해 명절에 온 나라가 경사스러웠건만, 새태세라는 흉악한 요괴가 나타나 소리를 질러댔지. 강제로 황후를 빼앗아 제 아내로 삼으려 하니, 과인은 백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내주었네. 그때 이후로 나누던 대화도, 다시 만날 기약도 모두 끊겼으니, 정자에서 다시 만날 날이 어디 있겠는가? 남겨둔 증표 하나, 향낭 하나 보이지 않으니, 지금까지 나 홀로 이토록 외롭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네."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가까이 계시는데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황후께서 남긴 증표가 없다면, 그곳 궁궐 안에 황후께서 아끼시던 물건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하나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국왕이 물었다.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요괴가 참으로神通력이 대단합니다. 연기와 불, 그리고 모래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 정말 잡기가 쉽지 않겠더군요. 설령 요괴를 잡는다 해도, 황후께서 저를 낳신 사람으로 여겨 나라로 돌아오려 하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요괴가 평소 아끼던 물건을 가져가야만, 황후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국왕이 말했다. "소양궁 화장각 위에 금성황후가 손목에 차던 황금 보석 팔찌 한 쌍이 있네. 그날 단오를 맞아 오색 실을 묶으려던 차에 잠시 빠두었던 것이라 차고 있지는 않았지. 그것이 황후가 가장 아끼던 물건인데, 지금은 화장함 안에 들어있네. 과인은 황후가 이별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그 물건을 보기만 해도 황후의 고운 얼굴이 떠올라 병세가 더욱 깊어지곤 한다네."

손오공이 말했다. "그 이야기는 그만두시고 우선 그 황금 팔찌를 가져와 주십시오. 아까우시다면 다 가져가도 좋고, 아까우시다면 딱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국왕은 즉시 옥성궁에 명하여 팔찌를 꺼내오게 했다. 팔찌를 가져온 이는 국왕에게 건넸다. 국왕은 그것을 보며 "내 아픔과 따듯함을 알아

주던 황후여..." 하고 몇 번을 흐느낀 뒤,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받아 자신의 팔에 끼웠다.

"좋다, 대성!"

손오공은 공로를 치하하는 술 한 잔을 마시지 않고, 곧장 근두운을 타고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다시 기린산으로 날아갔다. 경치를 구경할 겨를도 없이 곧장 동굴을 찾아 나섰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손오공은 멈춰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해치동 입구를 지키는 크고 작은 부하 요괴가 오백 명이나 되어, 그곳에 뻘뻘하게 늘어서 있었다.

뻘뻘하게 늘어선 무리가 창과 칼을 들고 있으니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촌촌히 늘어선 깃발들은 바람을 타고 펄럭였다. 호랑이 같은 장수와 곰 같은 병사들은 요술을 부려 변화무쌍하고, 표범 머리를 한 용맹한 장수들은 기세가 등등했다. 사나운 늑대와 용맹한 수달 같은 병사들도 가득했다. 교활한 토끼와 노루 같은 병사들은 창과 칼을 휘두르고, 긴 뱀과 큰 구렁이 같은 병사들은 칼과 활을 차고 있었다. 원숭이 요괴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진을 치며, 군영을 세우고 바람의 흐름을 살필 줄 알았다.

손오공은 그 광경을 보고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몸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가 왜 몸을 돌렸겠는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까 요괴를 때려죽인 곳으로 가서 황기와 징, 아패를 찾아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주문을 외우며 몸을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유래유

거'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는 징을 쟁강쟁강 울리며 성큼성큼 걸어가 해치동으로 곧장 돌진했다.

동굴 안 풍경을 좀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원숭이 요괴 하나가 말을 걸었다. "유래유거, 너 돌아왔느냐?" 손오공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래, 돌아왔다." 원숭이 요괴가 말했다. "어서 가보거라. 대왕님께서 박 피정에서 네 보고를 기다리고 계신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징을 치며 정문 안쪽을 살폈다. 가보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돌로 만든 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좌우에는 기이한 꽃과 신령스러운 풀이 피어 있으며 앞뒤로는 오래된 측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했다. 어느덧 두 번째 문 안쪽까지 들어선 손오공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여덟 개의 창문이 밝게 빛나는 정자가 하나 보였다. 정자 한가운데에는 금실로 무늬를 넣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요왕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는데 그 생김새가 참으로 험악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머리 위에서는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가슴에서는 무시무시한 살기가 솟구친다. 입 밖으로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빠죽 나와 있고, 귀 밑에는 타오르는 듯한 머리카락이 붉은 연기를 내뿜는다. 수염은 마치 화살을 꽂아 놓은 듯하고, 온몸의 털은 겹겹이 쌓인 양털처럼 빠죽빠죽 솟아 있다. 구리방울처럼 부릅뜬 눈은 태세(太歲)조차 능가할 기세요, 손에 든 쇠몽둥이는 하늘에 닿을 듯하다.

손오공은 요괴를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게 굴며,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차리지 않았다. 그저 얼굴을 뻗 돌려 밖을 향한

채 징만 계속 쳐댔다. 요왕이 물었다. "네가 왔느냐?" 손오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요왕이 다시 물었다. "유래유거라니, 네가 왔단 말이냐?" 이래도 손오공은 대꾸가 없었다. 참다못한 요왕이 앞으로 달려 나와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집에 와서 어찌 징만 치고 있느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 대체 무슨 일이냐?"

손오공은 징을 바닥에 뿔 던져버리며 말했다. "무슨 '무슨 일이냐'는 거야?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갔더니,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진을 치고 서 있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보자마자 '요괴를 잡아라! 요괴를 잡아라!'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밀고 끌고, 들쳐 메고 성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 국왕을 만나니까 국왕이 당장 '저놈을 베어라!'라고 명령하더라고. 다행히 두 명의 책사가 '두 나라가 싸울 때 사신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 그러더니 내 전투 서신을 챙겨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군사들 앞에서 내 다리를 서른 번이나 후려치고 나서야 겨우 말을 전하라고 보내주더군. 조만간 그놈들이 당신과 싸우러 올 거야."

요왕이 말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네가 호되게 당했구나. 그러니 물어도 대답을 안 한 게 당연하군."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니까! 그저 아픈 걸 참느라 대답을 못 한 거야." 요왕이 다시 물었다. "그쪽 군사는 얼마나 되더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다 매를 너무 맞아 겁이 나는 바람에 군사 수가 몇 명인지 셀 겨를이 없었어. 그저 무기가 뽁뽁하게 늘어서 있는 것만 봤지."

활과 화살, 칼과 창, 갑옷과 옷가지, 창과 방패, 검과 극, 깃발들이 즐비했다. 날카로운 창과 달 모양의 도끼, 투구와 갑옷, 커다란 도끼와

방패, 철지레가 가득했다. 긴 몽둥이와 짧은 망치, 쇠갈퀴와 창, 투구까지 갖추고 있었다. 신발과 머리 보호구, 두툼한 옷에 채찍과 신령한 탄환, 그리고 구리 망치까지 갖추고 있었다.

요왕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괜찮아. 그런 무기들은 불 한 번이면 다 타버릴 것들이다. 가서 금성황후에게 전해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싸우러 나간다는 말을 듣더니, 황후가 눈물을 펴펴 쏟으며 안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 네가 가서 그쪽 군사가 아주 용맹해서 반드시 나를 이길 것이라고 말해주어, 황후의 마음을 좀 달래주어라."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 마음이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고는 길을 잘 아는 듯 모퉁이 문을 돌아 대청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눈앞에는 웅장한 대궐들이 펼쳐졌는데, 아까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판판이었다. 뒤편 궁궐에 이르자 멀리서부터 화려한 채색 문이 보였으니, 바로 금성황후가 머무는 곳이었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요괴 여우와 요괴 사슴 두 무리가 모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황후의 좌우를 모시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황후가 한 손으로 턱을 껴 채,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앉아 있었다. 과연 다음과 같았다.

시로 이르되, 옥 같은 얼굴은 곱고 부드러우며, 미모는 요염하기 그지없네. 단장하기 귀찮아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꾸미기 싫어 비녀조차 꽂지 않았네. 얼굴엔 분칠도 안 해 연지 빛이 바랬고, 머리에는 기름기 없어 구름 같은 머리카락이 부스스하네. 앵두 같은 입술은 짝 깨물고, 눈썹은 찌푸린 채 눈에는 눈물이 고였구나. 한마음은 오로지 주자

국 국왕만을 그리워하니, 당장이라도 이 천라지망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라. 참으로 옛말에 미인은 팔자가 사납다더니, 봄바람 앞에서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서 있구나.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황후가 말했다. "이 무례한 촌놈 같으니! 내가 주자국에 있을 때 국왕과 함께 영화를 누리던 시절에는, 태사나 재상들도 나를 보면 먼지 앞에 엎드리듯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야만스러운 요괴 놈이 감히 어디서 와서 '안녕하십니까' 따위의 상스러운 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냐?" 곁에 있던 시비들이 나서며 말했다. "마님,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이자는 대왕님의 심복인 소교로, 이름은 유래유거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도전장을 보낸 것도 바로 이자입니다." 황후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참으며 물었다. "네가 도전장을 보냈다면, 주자국의 국경까지 가 보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는 서신을 들고 성안까지 들어가 금란전에서 국왕님을 직접 뵈고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황후가 다시 물었다. "국왕을 만나니, 그가 무엇이랴 하더냐?" 손오공이 말했다. "국왕께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말씀과 군사를 배치하는 일에 대해 대왕님께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국왕께서 황후님을 몹시 그리워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셨습니다."

황후는 그 말을 듣고 여우와 사슴 모양의 하인들을 물러가게 했다. 손오공은 궁궐 문을 닫고 얼굴을 문질러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뒤, 황후에게 말했다.

"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 천축국 뇌음 사에 계신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스님입니다. 제 스승님은 당나라 왕의 동생인 당삼장이며, 저는 그분의 큰제자 손오공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지나다가 우연히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임금과 신하들이 의원을 구하려고 방을 붙인 것을 보고 제가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상사병을 고쳐 드렸지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제게 사례를 하던 중에, 당신이 요괴에게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용과 호랑이도 굴복시킬 능력이 있으니, 요괴를 잡아 당신을 나라로 돌려보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싸워 패한 선봉도 저이고, 요괴를 때려죽인 것도 저입니다. 그놈들의 문 앞 기세가 워낙 흉악하여, 제가 '유래유거'의 모습으로 변신해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들어와 당신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황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손오공은 황금 보관을 꺼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며 말했다.

"만약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보십시오."

황후는 보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내려와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스님, 정말 저를 구해주어 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내가 하나 물겠는데, 불을 지르고 연기를 내뿜고 모래를 뿌려대는 그 물건이 대체 무엇입니까?"

황후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될 줄 아세요? 그저 금령 세 개일 뿐이에요. 첫 번째 방울을 흔들면 삼백 장이나 되는 불길 이 치솟아 사람을 태워 죽이고, 두 번째 방울을 흔들면 삼백 장 높이의 연기가 피어올라 사람을 질식시키며, 세 번째 방울을 흔들면 삼백 장 규모의 황사가 휘몰아쳐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불이나 연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 황사가 가장 무서워요. 만약 그 모래가 콧속으로 들어가 면 목숨을 잃고 말거든요."

손오공이 말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해. 아까 저도 그 모래 때 문에 재채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울을 어디에 두던가요?"

황후가 말했다. "그가 방울을 내려놓을 리가 있겠어요?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걸거나 앉거나 잠을 잘 때도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아요."

손오공이 말했다. "당신이 만약 주자국으로 돌아가 국왕을 만날 생 각이 있다면, 그간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다 잊어버리세요. 아주 화사 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꾸며서 그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방울을 당신에게 맡기도록 유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몰래 훔쳐낸 뒤에 요괴를 물리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을 데 리고 돌아가 다시금 부부의 연을 맺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지 요."

황후는 그 말대로 하기로 했다.

한편, 손오공은 요괴의 심복 부하로 변신하여 궁궐 문을 열고 곁에 있던 시녀들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황후가 명령했다. “유래유거야, 어서 앞쪽 박피정으로 가서 대왕을 모셔 오너라. 대왕께 드릴 말씀이 있다.” 손오공은 대답한 뒤 즉시 박피정으로 달려가 요괴에게 말했다. “대왕님, 성스러운 궁의 황후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요왕은 기뻐하며 물었다. “황후께서 평소에는 늘 나를 꾸짖기만 하셨는데, 어찌 오늘 이리 친히 부르신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황후께서 주자국 국왕의 안부를 물으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왕은 이제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라에서 다른 황후를 세웠습니다’라고 말이지요. 그 말을 듣고 황후께서 마음을 접으셨기에, 방금 저를 보내 대왕님을 모셔 오라 하신 것입니다.” 요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참으로 쓸모가 있구나! 내가 저 나라를 쳐서 없애버리면, 너를 조정의 태재로 봉해주마.”

손오공이 말로 고마움을 표한 뒤, 재빨리 요왕을 따라 후궁 문앞까지 갔다. 황후가 기쁜 얼굴로 마중 나오더니 손을 잡아 부축하려 했다. 그러자 요왕이 찢찢매매 물리나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황후께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혹여 손이라도 다칠까 두려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황후가 말했다.

"대왕, 어서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왕이 대답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히 말씀하십시오."

황후가 말을 이었다.

"대왕께 수치를 당하며 지낸 지 벌써 3년이 되었건만, 아직 한 이불을 덮고 잠자리를 같이하지 못했군요. 전생의 인연이라 부부의 연을 맺었건만, 대왕께서는 어찌 저를 남처럼 대하시며 마음을 멀리하시는 건가요? 제가 주자국의 황후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진상품으로 보물을 가져오면 대왕께서는 다 살펴보신 뒤에 반드시 저와 함께 나누곤 했지요. 이곳에는 어떤 보물이 있기에 늘 담비 가죽 옷만 입고 고기만 드시며, 비단이나 금구슬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하게 하시나요? 그저 가죽을 깔고 털을 덮고 지낼 뿐이지요. 혹시 귀한 보물이 있는데도 저를 멀리하시느라 보여주지 않고 따로 챙겨두신 건가요? 예를 들어, 대왕께서 금령 세 개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분명 보물일 텐데, 어찌하여 건거나 앓을 때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건가요? 차라리 저에게 맡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부부로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도리 아니겠어요? 이렇게조차 맡기지 않으신다면 저를 남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왕은 크게 웃으며 사과하듯 말했다.

"황후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옳고말고요. 보물이 여기 있으니, 오늘 바로 황후님께 맡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들춰 보물을 꺼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오공은 눈을 떴지 않고 요괴가 옷을 두세 겹씩 들춰내어 몸에 딱 붙여 지니고 있던

금령 세 개를 꺼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손오공은 금령을 건네받아 숨을 채워 넣어 흔들리지 않게 만든 뒤, 표범 가죽을 보따리처럼 만들어 싸서 황후에게 건네며 말했다.

"물건이 비록 미천하나 정성을 다해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절대 밖으로 드러내어 흔들며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황후가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화장대 위에 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애들아, 어서 술을 준비해라. 대왕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몇 잔 마시고 싶구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녀들이 과일과 채소를 차리고 노루와 토끼 고기를 내왔으며, 코코넛 술을 따라 올렸다. 황후는 요괴를 달래기 위해 요염한 자태를 취하며 교태를 부렸다.

손오공은 곁에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움직였다. 화장대 근처로 다가간 그는 금령 세 개를 조심스레 집어 들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궁궐 문을 빠져나와 동굴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다 인적이 없는 박피정 앞에 이르러 표범 가죽에 싸인 보따리를 펼쳐 보았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은 찻잔만큼 컸고, 양 끝에 있는 두 개는 주먹만큼 컸다. 손오공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솜뭉치를 떼어내듯 가볍게 풀어버렸다.

그 순간,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 그리고 황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건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온 불길은 순

식간에 박피정 전체를 뜨겁게 달구며 번져 나갔다. 이 소란에 놀란 문지기 요괴들이 앞다투어 후궁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 소동에 잠에서 깬 요왕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어서 불을 꺼라! 빨리 불을 꺼!"

요왕이 급히 달려 나와 살펴보니, 다름 아닌 '유래유거'가 금령을 훔쳐 달아나려던 참이었다. 요왕이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다.

"이 천한 놈! 감히 내 보물인 금령을 훔쳐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어서 내놓지 못할까!"

요왕이 명령을 내리자, 문을 지키던 호랑이 장수, 곰 장수, 표범 머리 요괴, 표범 장수, 수달과 코끼리 요괴, 푸른 늑대, 영리한 노루, 교활한 토끼, 긴 뱀, 커다란 구렁이, 그리고 유인원 요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괴가 무리를 지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손오공은 당황하여 금령을 떨어뜨리고는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곧바로 여의봉을 뽑아 들고 온갖 재주를 부리며 앞으로 마구 휘둘렀다. 요왕은 보물을 챙겨 넣고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앞문을 닫아라!" 요괴들이 그 명령을 듣고 문을 닫는 자는 문을 닫고, 싸우는 자는 싸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겨우 몸을 빼낸 뒤 여의봉을 거두고는, 몸을 흔들어 변신하더니 멍청한 파리 한 마리가 되어 불이 나지 않는 바위 벽에 딱 붙어 있었다. 요괴들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보고했다. "대왕님,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요왕이 물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요괴들이 모두 대답했다. "앞문은 굳게 잠겨 밧줄로 묶여 있으니,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습니

다." 요왕이 엄히 말했다. "살살이 뒤져라!" 어떤 요괴는 물을 끼얹어 불을 끄고, 어떤 요괴는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손오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요왕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도대체 어떤 도둑놈이기에 이토록 대답하단 말이냐! '유래유거'의 모습으로 변신해 내게 와서 보고를 하고, 내 곁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다가 내 보물을 훔쳐 가다니! 진작에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면 모를까, 만약 산 밖으로 나가서 하늘바람이라도 맞게 되면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호랑이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대왕님의 복이 하늘에 닿아 저희의 운수가 다하지 않았기에 간신히 알아차린 것입니다." 곰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대왕님, 이 도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 패배한 선봉장 손오공일 것입니다. 분명 오는 길에 '유래유거'를 만나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가 가졌던 황기, 징, 아패를 빼앗아 그 모습으로 변신해 이곳까지 와서 대왕님을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왕이 말했다. "옳거니, 네 말이 맞다!" 그러고는 다시 명령했다. "애들아, 살살이 뒤져서 대비하고, 절대로 문을 열어 도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시로 이르되, "재주를 부리려다 도리어 서툴게 되고, 장난을 치려다 진짜 일이 되어버렸구나."

결국 손오공이 어떻게 요괴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